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09.

1

Vol. 205

부록 | 부산문화회관 1월 공연캘린더
| 2009년 탁상용 카렌다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www.bsculture.busan.kr



謹賀新年

문화의 향기가 그윽한 부산시민의
문화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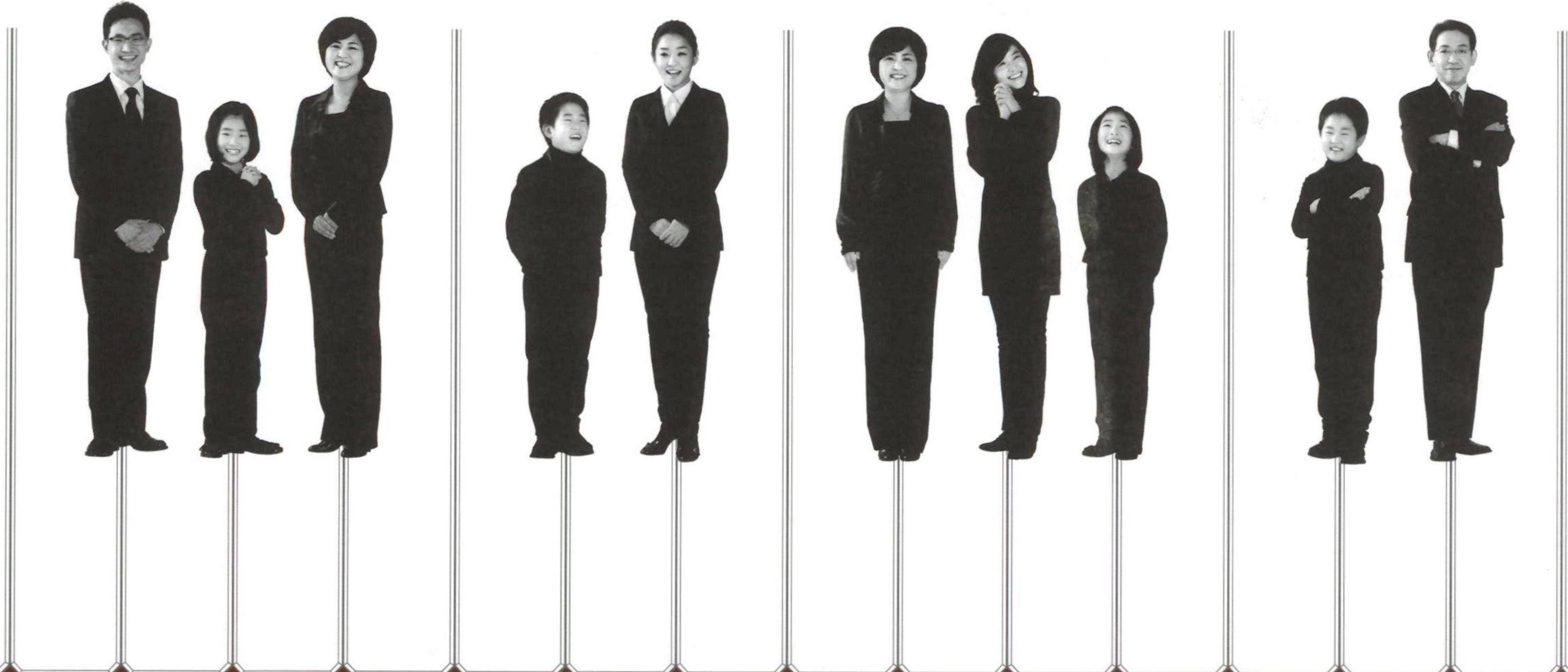


부산문화회관





그 토 록 꿈 꾸 던 야 마 하 피 아 노 를 가 질 꿈 같 은 기 회



야마하 피아노 특별 초대전

2008년 12월 12일 ~ 2009년 1월 31일

Event.1 야마하의 특별한 제안
꿈꾸던 야마하 피아노를 특별한 가격에 드립니다



JU109 PE Silent

JU109 PW

JX113T PE

U1J PE

Event.2 야마하의 특별한 선물
피아노 구매 고객에게는 감쪽한 야마하 큐빅 스피커(NX-A01)를 드립니다



NX-A01

※Event2의 야마하 큐빅 스피커는 Black/White 중 택1 가능하며, 조기 품절시 대체 상품으로 제공됩니다

Event.3 특별한 무이자 할부
신한카드, KB카드 결제시 6개월/10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드립니다



※상기 이미지 컷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가대리점
서울 그랜드피아노1번지 02)523-7571 / 롯데강남 02)3474-0660 / 롯데노원 02)965-0660 / 롯데분점 02)3471-0660 / 롯데잠실 02)449-0660 / 악기소핑(주) 02)734-9922 / 애경백화점 02)855-3131 / 칸뮤직(주) 02)9494-992 / 상지악기 02)482-3000 / 현대목동 02)2163-1880 / 현대천호 02)473-0009 / AK Music 02)713-1173 / C.K.R 뮤직 02)3486-0660 / IPARK MALL 02)967-0660 / J Music 02)420-2100 / 경기 경인야마하 032)424-2002 / 분당동신 031)711-1808 / 롯데분당 031)722-0660 / 롯데일산 031)966-0660 / 수원야마하 031)240-1530 / 안산야마하 031)494-4403 / 용인야마하 031)707-0700 / 인천 종합악기 031)635-7744 / ㈜썬뮤직 031)267-3300 / 평촌NC 031)386-9160 / 피아노피아 031)243-0070 / Neo Music 031)911-0660 / YAMAHA 종합악기 031)466-7277 / 인천 인천뮤직플라자 032)542-6200 / 부산 롯데동래 051)527-0660 / 롯데센텀점 051)257-0660 / 부산야마하 051)868-5551 / 야마하피아노 051)256-7010 / 대구 고려야마하 053)652-0064 / 대백플라자 053)424-7500 / 롯데대구역점 053)660-3711 / 광주 광주현대야마하 062)350-8320 / 야마하월드 062)511-1010 / 울산 울산야마하 052)294-8800 / 충청 갤러리아일랜드점 042)934-0660 / 대전야마하 042)485-2442 / 롯데대전 042)521-0660 / 세월피아노 043)277-7844 / 파가니니 042)476-0338 / 천안현대악기사 041)577-5828 / 경상 개나리악기 055)281-3400 / 경북야마하 054)743-1000 / 포항야마하 054)248-5544 / 거제동서피아노 055)680-0080 / 마산야마하 055)295-6619 / 월드야마하 055)322-2332 / 진주중앙 055)742-4767 / 전라 군산야마하 063)471-1002 / 리치악기사 063)226-6555 / 순천야마하 061)755-2222 / 익산야마하 063)858-3388 / 전주야마하 063)283-1690 / 강원 강원야마하 033)244-8844 / 원주야마하 033)748-1411 / 육림악기 033)252-5041 / 제주 제주야마하 064)755-0237

2009 제5회 부산국제음악제 축제음악회 시리즈 Busan Music Festival

오프닝 갈라콘서트



[연주곡] 헨델/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파싸칼리아, 모차르트/ 2대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슈 만/ 피아노 솔로(빈사육제) 브람스/ 피아노5중주

2월 13일(금) 오후 7시30분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부산 출신의 세계적 피아니스트 박종화와 부산시향 악장 김동욱, 부산시향 첼로수석 양욱진, 세계적 바이올리니스트 제임스 버즈웰, 비올리스트 홍웨이 황이 들려주는 브람스 피아노5중주! 제임스 버즈웰, 양고운의 바이올린 듀오!

[출연] 피아노/박종화, 필립케윈, 서정원 바이올린/제임스버즈웰, 김동욱 비올라/홍웨이황 첼로/양욱진

회원권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라이징 스타-

탁영아 피아노독주회

2월 15일(일) 오후 5시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부산 출신의 세계적 유망주 피아니스트 탁영아의 무대! "열정, 상상력, 진실함이 어우러진 최상의 조화"라는 평을 받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탁영아의 홈카밍 연주회!

회원권 2만원 균일

[연주곡]

하이든/ 피아노 소나타 C장조 작품 50

브람스/ 피아노 소나타 제2번

쇼 팡/ 환타지-폴로네이즈 작품 61

주디스 자이몽/ 마법사들

리스트/ 페트라르카 소네트 104

리스트/ 베르디의 리골레토 페러프레이즈



후원자를 위한 디너 콘서트



[연주곡] 슈베르트 아르페지오네 소나타 (첼로/정명화, 피아노/제롬 로엔탈) 등 수곡

2월 17일(화) 오후 6시30분 | 파라다이스호텔 본관2층 연회장

부산국제음악제의 초청 연주자들이 팬들과 가까이서 만나는 음악회로 식사 후에 음악회가 해설과 함께 진행됩니다.

[사회 및 해설] 백혜선

회원권 15만원 (디너콘서트에 참여해 주시면 부산국제음악제의 후원자가 됩니다)

페스티벌 콘서트 (멘델스존의 실내악)

-멘델스존 탄생 200주년 기념-

2월 18일(수) 오후 7시30분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멘델스존의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여 멘델스존 음악만으로 꾸며진 무대로 부산을 넘어 아시아로 세계로 나아가는 실내악의 대향연을 펼친다.

회원권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연주곡] 멘델스존/ 4손을 위한 피아노 듀오, <한여름밤의 꿈> 모음곡 중에서

멘델스존/ 피아노 3중주 제2번 c단조, 멘델스존/ 피아노 8중주

[출 연] 피아노/ 신수정 바이올린/ 제임스버즈웰, 마스코 우소다, 김동욱, 양고운 비올라/ 홍웨이 황, 김가영 첼로/ 양욱진, 민경아



부산국제음악제 초청연주자와 부산시립교향악단 연주회

2월 20일(금) 오후 7시30분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 유리 세갈

[연주곡]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바이올린 협연/마스코 우소다)

베토벤/ 피아노와 합창, 오케스트라를 위한 코랄 환타지 (피아노 협연/제롬 로엔탈)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2월 21일(토) 오후 6시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부산국제음악제 교수와 학생이 함께하는 음악회

회원권 1만원 균일

[연주곡] 모차르트/ 피아노 4중주

슈 만/ 피아노 5중주

멘델스존/ 현악 8중주

모차르트/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듀오 등 연주

• 주최 : 부산국제음악제 추진위원회

• 후원 : 부산광역시

• 음악회 문의 및 전화예약 : 부산아트매니지먼트 747-1536 www.busanarts.com

• 예매처 : 부산은행 전지점, ticketlink+ 티켓링크 1588-7890, 인터파크 1544-1555

• 주관 :

부산아트매니지먼트

• 협찬 :

법무법인 국제 Robert Ames LLC C. BECHSTEIN

(부산문화회관 전 공연을 다 보시는 시리즈 티켓과 단체 예매는 전화로만 하실 수 있습니다.)

로렌스 레써 & 백혜선 베토벤 첼로소나타 전곡연주회



2월 16일(월) 오후 6시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역사적인 첼리스트는 생애 한번 이상은 이 곡을 연주한다!
첼로 음악의 신약성서라고 일컬어지는
베토벤 첼로소나타 전곡 연주, 놓치시면 후회합니다.

이 곡들에 대해 첼리스트는 피아노가 반주한다고
말하고 피아니스트는 첼리스트가 반주한다고
말할 만큼 첼로와 피아노의 대등한 호흡이 있습니다.

연주시작 오후6시부터 10시까지 마라톤 연주!
그 역사적인 감동의 현장을 함께 하십시오

회원권 R석 5만원, S석 4만원

Program 1

헨델 오페라 주제에 의한 12개의 변주곡
첼로소나타 제1번
첼로소나타 제4번
첼로소나타 제5번

Program 2

모차르트 오페라 주제에 의한 12개의 변주곡
첼로소나타 제2번
모차르트 오페라 주제에 의한 7개의 변주곡
첼로소나타 제3번

현존하는 쇼팽 연주의 최고 해석자! 당타이손 피아노 독주회

2월 19일(목) 오후 7시30분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아시안계 최초의 쇼팽 콩쿠르 우승자,
베트남 출신의 거장 피아니스트 당 타이손
부산국제음악제를 위해 드디어 그가 왔다!!

쇼팽 사후 쇼팽 스페셜리스트로서 아르투르 루빈스타인이 있었다면,
루빈스타인의 바톤을 인계 받은 사람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다시 살아난 당 타이손이다.

Program

포레/ 2개의 녹턴
라벨/ 모음곡<거울>
쇼팽/ 바카롤레
쇼팽/ 4개의 마주르카 작품17
쇼팽/ 4개의 마주르카 작품 33
쇼팽/ 스케르조 제2번

회원권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하이든과 슈베르트가 단원으로 있었던
500년 전통의 빈 소년 합창단이 전하는
천상의 소리, 신년의 희망이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세계 최고의 소년 합창단과 함께 여는 2009년!

빈 소년 합창단 신년음악회



칼 오르프 | 오 운명의 여신이어
생상스 | 귀하신 주님 (아베 베룸 코르푸스)
슈베르트 | 밤
요한 슈트라우스 | 트리치 트라치 폴카
황제 왈츠
한국 | 아리랑
오스트리아 민요 | 풀밭에 축복이 외 수곡



우정출연/부산진구어린이합창단 지휘/박 훈 반주/최여진

2009.1.11 SUN 6:00 PM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티켓 | R석 55,000원 S석 44,000원 A석 33,000원

주최 | 부산일보사 Busan In Art 부산인아트

주관 | 예은예술기획 051)632-6904 특별후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롯데 HOTEL BUSAN 예매처 | INTER PARKENT 1544-1555 부산은행 전지점



19



44



58

신년사	10	21세기는 문화의 시대 · 허남식
신년시	12	새해 아침에-기축년의 소망 · 이해웅
커버스토리	14	문화가 있어 더욱 행복한 2009년
반갑습니다	16	부산문화재단 초대 대표이사 강남주
프리뷰	28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32	인자오양(尹朝捺) 문화혁명의 상처를 넘어서다 · 박건해
행복한 오페라여행 <1>	36	오페라가 어렵다고?! · 김홍승
생활속의 판화이야기	38	또 하나의 샤라쿠 단원 김홍도 · 채경혜
우리는 문화 가족	40	희망을 여는 사람들 '볼리아 앙상블'
황운기의 월드뮤직여행	41	대서양의 고도(孤島) '까보 베르드' · 황윤기
그곳에 가면	42	부산지하철 타고 문화 속으로
프로그램 가이드	44	
나의 애청음반	52	1987년 빈필 신년음악회 실황음반 · 이동신
새로나온 책	53	
부산문화회관소식	54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56	
100자 토크	57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테마여행	58	



발행처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608-024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회관길1 (대연 4동 848-4)
 TEL. 051-120(주간), 051-607-6221(야간) FAX. 051-607-6079
 발행인 정우연 편집인 박원철 편집장 백경옥
 발행일 2008년 12월 25일
 인쇄처 한국디자인진흥원

표지설명

2008년 개관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출발을 다짐한 부산문화회관이 2009년 기축년 새로운 20년을 시작한다. 부산문화회관은 새해 수준높은 프로그램과 보다 다양한 문화서비스로 부산시민들과 만날 계획이다.

January 2009
부산문화회관
공연안내

국제회의장

■ 부산음악협회 임시총회



1월 10일(토) 09:00~12:00
 문의 : 부산음악협회(019-567-7379)

■ 영성영어세미나


1월 13일(화) 10:00~17:00
 문의 : 서진민(010-339-62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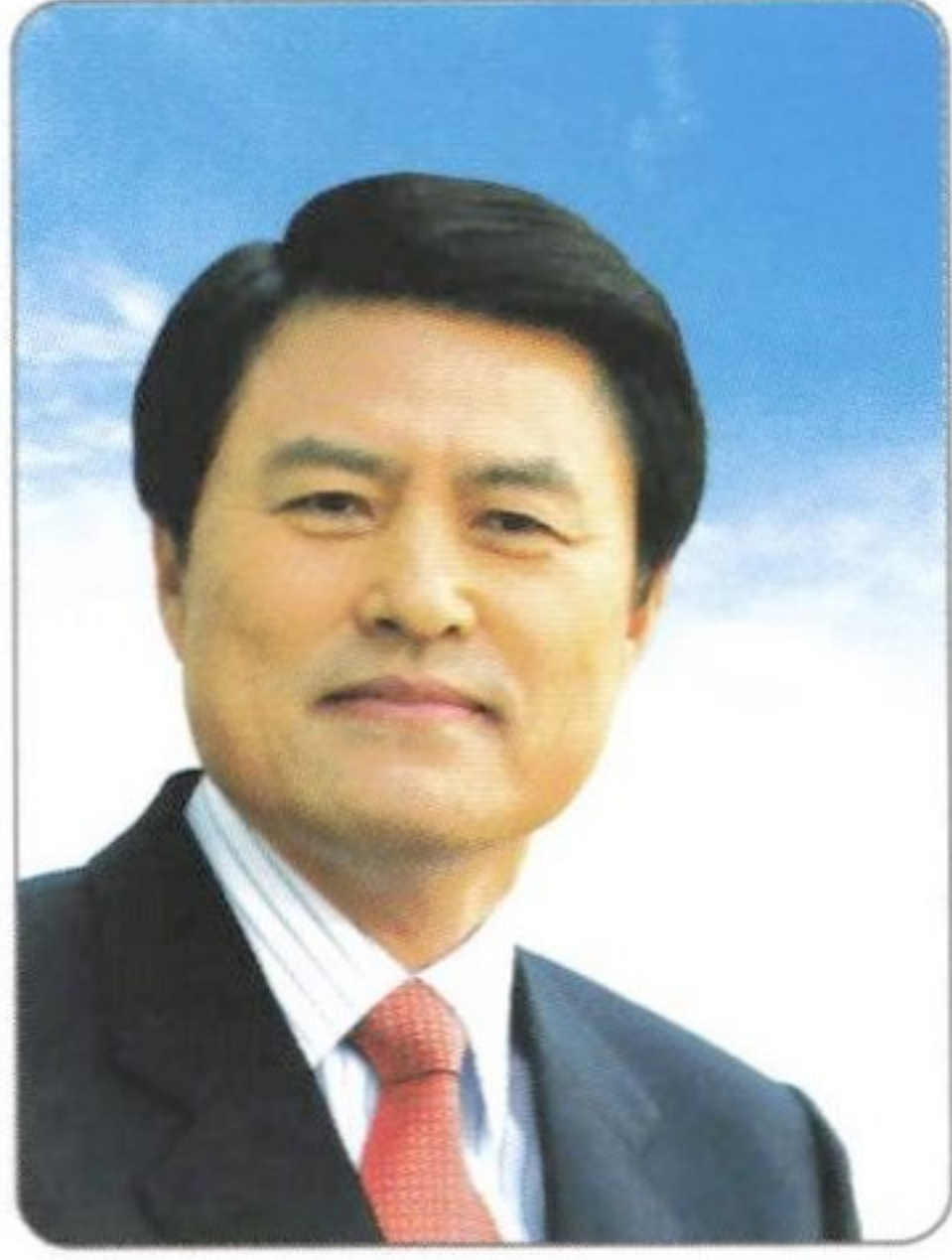
■ 제 2기 시민클래식 교실

- 매주 수요일 14:00
 1월 14(수) 클래식 음악의 황제 교향곡 I
 1월 21(수) 클래식 음악의 황제 교향곡 II
 1월 28(수) 솔로와 오케스트라와의 화려한 만남
 -협주곡의 세계
 2월 4일(수) 순수한 음악으로 본 세상-인상주의
 강사 : 이동진(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문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

Sunday	Monday	Tuesday
12/28	 <p>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 바로크 콘서트</p> <p>2월 22일(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p> <p>입장료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문의 부산문화회관(607-5058)</p>	
4	5	6
<p>11</p> <p>대 빈소년합창단 신년음악회 18:00 5만5천원 · 4만4천원 · 3만3천원 예은예술기획(632-6904, 010-4564-7592)</p> <p>중 뮤지컬 '오 당신이 잠든 사이' 14:00, 17:00 4만원 · 3만원/SM기획(1600-1602)</p>	12	<p>13</p> <p>중 뮤지컬 '오 당신이 잠든 사이' 20:00 4만원 · 3만원/SM기획(1600-1602)</p>
<p>18</p> <p>중 뮤지컬 '오 당신이 잠든 사이' 14:00, 17:00 4만원 · 3만원/SM기획(1600-1602)</p> <p>소 노경희 클래스 연주회 17:00 무료/노경희(010-4599-0423)</p>	19	<p>20</p> <p>대 1월 한낮의 유콘서트 신년음악회 'Happy New Year' 11:00 균일 1만5천원/국제신문(500-5222)</p> <p>중 라이징 월드스타 시리즈 3 '한수진 바이올린 독주회' 19:30 균일 2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p>
25	 <p>2009 부산문화회관 웰빙콘서트 부산시립교향악단 오페라와 11시에 만나요 -벨칸토 오페라 삼총사:로시니, 벨리니, 도니체티</p> <p>2월 12일(목)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p> <p>· 지휘/이동진 · 해설, 진행/장일범</p> <p>입장료 균일 1만원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p>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2/31	1	2	3
7	8	9	10
<p>소 제 2기 시민클래식 교실 14:00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p>	<p>대 제 1093회 MBC 목요일음악회 '신년음악회' 19:30 1만원 · 5천원/(사)문화도시 네트워크(760-1494)</p> <p>중 뮤지컬 '오! 당신이 잠든 사이' 20:00 4만원 · 3만원/SM기획(1600-1602)</p> <p>소 Applied Music Concert 19:30 이다영(010-5789-0077)</p>	<p>대 부산시립교향악단 2009년 신년음악회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p> <p>중 뮤지컬 '오! 당신이 잠든 사이' 20:00 4만원 · 3만원/SM기획(1600-1602)</p>	<p>중 뮤지컬 '오! 당신이 잠든 사이' 16:00, 19:00 4만원 · 3만원/SM기획(1600-1602)</p> <p>소 토요일상설무대 '펠리체 앙상블 연주회'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p>
14	15	16	17
<p>대 박성호의 창작총판 '점(點)-채취' 19:30 4만원 · 2만원 · 1만원/박성호(010-7197-4012)</p> <p>중 뮤지컬 '오! 당신이 잠든 사이' 20:00 4만원 · 3만원/SM기획(1600-1602)</p>	<p>대 신년축하 성가의 밤 19:30 1만원 · 5천원/부산예술기획(635-4728)</p> <p>중 뮤지컬 '오! 당신이 잠든 사이' 20:00 4만원 · 3만원/SM기획(1600-1602)</p> <p>소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2009 우리춤 산책' 19:30 균일 5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6118)</p>	<p>중 뮤지컬 '오! 당신이 잠든 사이' 20:00 4만원 · 3만원/SM기획(1600-1602)</p> <p>소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2009 우리춤 산책' 19:30 균일 5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6118)</p>	<p>대 칸타빌레 콘서트 시즌 3 19:00 5만5천원 · 4만4천원 (주)유니스컴퍼니(053-474-8284)</p> <p>중 뮤지컬 '오! 당신이 잠든 사이' 16:00, 19:00 4만원 · 3만원/SM기획(1600-1602)</p> <p>소 토요일상설무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회'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p>
21	22	23	24
<p>중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2009 신년음악회 '희망 2009, 굿GOOD'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p>	<p>소 청소년을 위한 비트주니어 타악 앙상블 19:00 초대/김정우(010-5633-0864)</p>		
28	29	30	31
			<p>중 토요일상설무대 '부산시립교향악단 청소년을 위한 실내악 앙상블'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p>

 표 공연은 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로 예약하십시오.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공연안내는 <http://www.bsculture.busan.kr>을 Click하세요.



부산광역시장 허 남 식

21세기는 문화의 시대

희망찬 기축년(己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만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세계금융 불안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문화예술계에도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 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산은 문화를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으로 문화예술 전반에 걸쳐 많은 성과를 이루어낸 한 해 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부산은 4백만 시민의 힘을 한데 모아서 미래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기반을 탄탄히 다져왔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또 부산국제연극제, 부산비엔날레, 부산국제합창제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행사로 문화예술도시 부산의 브랜드를 제고하였습니다. 부산영상센터, 부산예술회관, 오페라하우스, 영상후반작업시설, 국립부산국악원 등 문화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창의와 품격을 갖춘 '문화도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양한 문화행사에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부산비엔날레, 부산불꽃축제, 부산바다축제에 역대 최다 관람객을 유치하였고 안정된 창작활동과 기업가치를 증대하기 위한 메세나 사업을 처음 시도하여 좋은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부산문화의 본당인 부산문화회관이 개관 20주년을 맞아 다양한 문화행사를 펼쳤습니다. 매 공연마다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부산문화를 선도하는 부산문화회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창의와 감성이 중시되는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입니다. 문화는 삶의 동력이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경쟁력의 원천입니다.

새해에는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 전문성을 갖춘 부산문화재단이 설립되어 부산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부산 문화예술 중흥'의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하여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이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갖고 '문화도시 부산'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뻗어 나아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뜻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가화만사성 경제'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가족간에 서로 따뜻하게 격려하고 그 속에서 더 큰 행복을 찾으시기를 바라면서, 기축년(己丑年)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09 새해 아침에
부산광역시장 허남석



새해 아침에


-기축년의 소망

이 해 웅 | 시인, 부산교육대학교 명예교수

이 세상 만 가지의 치솟음은
저 태양 하나의 치솟음만 못하나니

마트의 물가도
배달되는 짜장면 한 그릇의 값도
고향 찾아가는 차삿도
우리네 삶 그늘지우는
저 모든 치솟음은
정월 초하루 아침
수많은 금빛 태양의 불화살 아래
무너지고 말리니

삶의 무늬는
빛과 그늘
밝음과 어둠으로 직조되어 있지만
우리네 삶 속 파고든
그늘과 어둠으로 신음하는
찌든 나날들

The background of the page is a vibrant sunset over the sea. Three white swans are captured in flight, their wings spread wide, moving from the upper left towards the right. The sky is a mix of warm orange, yellow, and soft white, with scattered, wispy clouds. In the lower-left corner, the dark silhouette of a lighthouse on a rocky island is visible against the bright horizon. The overall mood is serene and hopeful.

그들과 어둠인
너 고통이여
저 뜨거운 동해바다 일출 앞에
선뜻 한번 나서 보라
너의 앙상한 고집 일시에
무너지고 말리라

하여
새해엔 이 강산 골골마다
푹푹한 사랑
힘차게 넘쳐흘러
저 태양의 불화살 맞은 어둠
다신 일어서지 못하게 하라

부산문화회관 2009년 설계

문화가 있어 더욱 행복한 2009년

2008년 개관 20주년을 맞아 다양한 활동을 펼친 부산문화회관이 2009년 새로운 20년을 연다는 각오로 희망찬 신년을 맞는다.

지난해 부산에서 초연된 오페라 '아이다'를 비롯해 조수미 초청 공연, 루시드 폴 콘서트,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창작뮤지컬 '화성에서 꿈꾸다' '달고나' '제너두', 국립발레단 '지젤' 등 22건의 기획공연을 개최한 부산문화회관은 48,435

명(2008. 12. 10 집계)의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는 부산문화회관 개관이후 최대 규모, 최장기 공연(14회)으로 부산에서 좀처럼 보기 어려운 명품 뮤지컬공연이었다는 평가를 받았고 개관 20주년 기념일에 맞춰 부산문화회관과 솔오페라단이 공동으로 선보인 오페라 '아이다'는 부산시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켰다. 특히 '아이다'는 2008년을 보내며 제 1회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



에서 대상없는 금상을 수상해 부산 문화계에 화제를 모았다. 그 외에도 부산문화회관 개관 20주년을 맞아 씨네파크에서 처음으로 열린 예술단 합동 야외공연 '다이나믹 페스티벌', 화제의 창작뮤지컬 '화성에서 꿈꾸다',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사피나 콘서트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으로 부산시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2009년 부산문화회관은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공연과 만족도를 높여 줄 수 있는 문화 서비스로 행복한 웃음이 끊이지 않는 공연장을 만들기 위해 신년에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부산시립예술단은 시민들과 보다 가까워질 수 있는 공연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예술단 공연은 1월 9일 부산시립교향악단 신년음악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주 일정이 펼쳐진다. 정기연주회, 특별연주회, 순회연주회 등 2009년 한 해 동안 확정된 연주일정은 부산시립교향악단이 28회, 국악관현악단, 무용단, 합창단이 13회, 극단이 25회, 소년소녀합창단이 7회, 청소년교향악단이 6회 연주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연장을 찾지 못하는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공연인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은 예술단 공연을 요청하는 지역, 단체가 있으면 언제든지 공연을 가질 예정이다.

경기불황으로 기획공연은 예년보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2009년 기획공연은 2월 22일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 연주회를 시작으로 부산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연주자, 공연 단체 등을 초청, 수준 높은 명품 공연을 선보인다.

리처드 용재 오닐은 같은 세대의 비올리스트 중 가장 뛰어난 인물 중 한 명으로 일찍부터 국제무대에 두각을 나타냈다. 2006년 미국 클래식 최고의 권위 있는 상인 에이버리 피셔 커리어 그랜트 어워즈를 수상하였고, 프레드 쉐리 스트링 콰르텟의 멤버로 2006 그레미 어워드의 베스트 솔리스트 부문에 노미네이트되었다.

전쟁고아로 미국에 입양된 어머니와 함께 KBS 인간극장에서 처음 소개되어 큰 화제가 된 리처드 용재 오닐은 최근에는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에 카메오로 출연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줄리어드 음악원의 아티스트 이플로마 프로그램에 입학한 최초의 비올리스트이기도 한 리처드 용재 오닐은 지난 7년간 뉴욕에 거주하면서 예술에 대한 그의 업적과 공로를 인정받아 뉴욕시 의회로부터 명예로운 시민상을 수여 받기도 했다.



2월 22일 부산을 찾는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

이번 4집 앨범 '미스테리오소'는 한국 아티스트로는 최초로 세계적인 고음악 레이블인 아르히브로 발매, 크라우스 디터 브란트가 이끄는 알테 무지크 쾰른(AMK)과의 연주로 바로크 음악의 따뜻한 울림과 정통적인 매력을 선사한다.

리처드 용재 오닐에 이어 3월에는 화제의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를 만날 수 있다. 2004년 국내 초연 이후 올해 공연까지 2008년까지 총 10번의 팀이 꾸려진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는 매 공연 전회 기립 박수, 티켓 오픈 7시간 만에 12,000여장의 티켓이 예매되고, 예매 하루 만에 3회 분의 티켓이 매진되는 등 여러 가지 놀라운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웰-메이드(well-made) 작품이다.

당시 '지킬 앤 하이드'는 완성도 높은 작품성과 조승우의 탄탄한 연기력이 시너지 효과를 내며 단숨에 뮤지컬계의 베스트 셀러로 자리매김했다. 2009년 새롭게 만나는 '지킬 앤 하이드'에 뮤지컬 애호가들의 기대가 크다.

그 외 2009년에는 부산문화회관 공연 입장권 판매시스템이 구축된다. 기존 위탁판매 대신 온라인 공연입장권 예매 및 결제, 발권시스템을 구축해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 부산시립예술단 공연홍보와 마케팅 기능을 강화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예술단 공연을 만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메세나 운동과 연계한 공연마케팅 업무, 문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부산문화재단 초대 대표이사 **강 남 주**

부산을 수준높은 문화도시로 재편성

2009년 2월 1일 정식으로 출범하는 부산문화재단 초대 대표이사로 강남주 전 부경대학교 총장이 선임되었다. 기축년 새해 부산문화계를 재편성할 부산문화재단의 대표이사라는 중책을 맡은 강남주 대표이사는 어느 해 보다 바쁜 신년을 맞는다.

“기쁘면서도 더럭 겁이 납니다. 부산문화를 재편성해야 한다는 각오와 중압감이 실감 있게 엄습해 오기 때문입니다. 부산시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좋은 결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남주 대표이사는 부산문화방송과 중앙일보 기사를 거쳐 1978년 4월부터 부경대학교 교수로 학계에 몸담았고 2000년 7월부터 4년간 부경대학교 총장을 지냈다. 2005년부터 조선통신사문화사업회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는 지난 50여년간 시인으로, 교육자로, 또 언론인으로 부산과 부산문화계에 한결같은 열정을 쏟아왔다.

이런 열정과 노력으로 그동안 봉생문화상, 부산시문화상, 일맥문화대상 문화예술상 등 부산문화계의 주요 상을 수상했다. 올해 칠순을 맞은 그는 최근 아홉 번째 시집 ‘낮선 풍경 속으로’를 발간하며 씩씩이 활동하는 열정을 보여 주위를 놀라게 했다.

부산문화재단의 출범은 지방정부가 이끌던 문화정책이 민간 주도로 바뀌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부산문화재단은 문화예술 마인드, 전문가 부족 등으로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한 문화예술 정책과 기획이 전문가의 손에서 독립적으로, 전문적으로 이뤄지게 되리라는 기대로 출범과 함께 문화예술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강남주 대표이사는 부산문화재단 출범으로 하루아침에 부산의 문화가 달라질 수 없는 만큼 서두르지 않고 문화와 예술의 본질을 파악하고 부산시민과 함께 품격 높은 문화를 만들어 나갈 생각이다.

부산문화재단은 출범 첫해인 2009년에는 40여억 원의 예산으로 문예진흥기금 등 각종 지원 사업과 학예진흥원 업무, 메세나 사업 등을 진행하고 오는 2010년부터는 축제 관련 업무와 문화시설의 위탁 관리도 실시할 예정이다. 2018년까지 부산시가 매년 40억 원 씩을 추가 출연하면 앞으로 재정 규모는 총 500억 원으로 확대

될 전망이다.

2008년 출범 10년을 맞은 경기도문화재단을 비롯해 부산보다 앞서 설립된 서울, 인천 등에 비하면 부산문화재단이 예산이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는 크게 개의치 않는다.

“꽃이 있는 정원이 없는 정원보다 훨씬 아름답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 한 자락에 꽃밭을 가꾸면서 살아갈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것은 참 다행한 일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늦은 것은 사실이지만 어찌 이르고 늦은 것이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는 부산 문화를 문화와 예술의 두 축에서 보고 활동을 구상하고 있다. 우선 우리가 간과해 오고 있었던 문화를 그 바탕에서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세계적으로 문화수준이 높은 부산, 문화시민 정신이 매우 모범적인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기초문화 확립에 힘써나갈 계획이다. 예를 들자면 ‘부산은 난폭운전이 없어 편한 도시다’라든지 ‘양보의 미덕을 가진 부산’이라는 수준 높은 도시의 재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또 부산재발견이라든지, 청년문화권 형성을 위한 인큐베이터 문화정책을 펴고 중국 상하이와 일본 후쿠오카 등 아시아의 문화네트워크를 구축해 부산시민과 함께 부산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땀 흘릴 계획이다.

그의 추진력과 열정은 지난 4년간 이끌었던 조선통신사문화사업회의 활동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그는 조선통신사문화사업회 위원장으로 역사 속에 묻힐 수 있었던 조선통신사의 숭고한 정신을 알리기 위해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한·일문화재조명을 위해 힘썼고 조선통신사문화축제를 중요한 한·일 문화교류사업으로 성장시켰다.

평소 시인에게는 정년이 없다고 생각해온 그는 바쁜 일정 중에도 정신적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 계속 시를 써왔다. 뜻대로 행하여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일흔 나이에 청년의 열정을 자랑하는 강남주 대표이사.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됨을 잊지않고 긍정적인 자세를 지키며 항상 노력해온 그를 통해 부산문화의 밝은 미래를 느낄 수 있다.

己丑年

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해동안 부산시립예술단을 아껴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산시립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청소년교향악단, 소년소녀합창단은
새해에도 좋은 무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민들과 교감 나눌 수 있는 다양한 무대 마련

지난해 50여회가 넘는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해 시민들 곁으로 한발 더 다가선 부산시립교향악단은 2009년 역시 시민들과 음악적 교감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연주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해를 보내는 아쉬움과 새해를 맞는 환희를 담은 2008 제야음악회 '가는 해 오는 해' 에서 시민들과 함께 2009년 새해를 맞은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올해 10회의 정기공연과 8회의 특별공연, 6회의 특별기획공연, 순회공연 등을 계획하고 있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은 1월 9일 객원지휘자 서현석이 지휘하고 부산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이지화, 남성성악양상블 '더 필' 이 협연하는 신년음악회로 긴 연주일정을 시작한다. 이번 무대에서는 요한 스트라우스의 폴카 '트리치 트라치' '사냥', 오페레타 '박쥐' 서곡 등 신년음악회의 주요 레퍼토리로 새해를 맞는 희망을 들려준다.

대표적인 브런치 콘서트로 자리잡은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웰빙콘서트' 는 올해 보다 다양하면서도 전문적인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을 찾아간다. 2월(2월 12일)과 6월(6월 9일)에는 음악평론가이자 방송진행자인 장일범의 해설로 벨칸토 오페라와 푸치니 오페라를 감상한다. 또 작곡가 말러 탄생 150주년과 서거 100주년이 되는 2010년과 2011년에 즈음해 4월(4월 29일)과 10월(10월 8일)에는 말러 스페셜리스트인 김문경의 해설로 말러의 음악과 생애를 살펴보는 특별한 시간을 갖는다. 2009년은 멘델스존 탄생 200주년, 헨델 서거 250주년, 하이든 서거 200주년을 맞는 특별한 해로, 이들 작곡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다양한 무대도 준비되어 있다.

그외 지휘자 광승과 유리 세갈, 피아니스트 박종화, 첼리스트 데니스 샤프발로프 등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2009년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호흡을 맞추며, 작곡가 하순봉, 플루티스트 정재은, 피아니스트 황성훈 등이 '부산연주인시리즈' 로 시민들과 만난다.

아시아 클래식음악의 메카로 자리잡은 통영국제음악제 봄시즌 공연에 초청받은 부산시립교향악단은 3월 30일 통영시 민회관에서 지휘자 이동신의 지휘로 공연을 갖는다. 4월 21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2009 교향악축제' 에도 참가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지난해에 이어 4월 23일 성산아트홀에서 열리는 '영호남권 교향악페스티벌' 에 또다시 참가해 부산을 대표하는 교향악단으로서 최고의 연주를 들려줄 예정이다.

이밖에도 지난해 체계적인 강의를 통해 클래식음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기획된 '시민클래식교실' 2기 강좌가 1월 7일부터 매주 수요일 8주간 진행된다. 쉽고 재미있는 강의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지휘자 이동신이 올해도 강사로 나서 '오케스트라 소리의 구성-음향', '클래식음악의 황제 교향곡', '솔로와 오케스트라와의 만남-합주곡', '오페라 탐사' 등 다채로운 주제로 시민들과 만난다.



2008년 10월 동경과 오사카 순회연주를 가진 부산시립교향악단.

희망을 전하는 흥겨운 무대 선사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지난해 제 1회 부산국제민족음악제, 제 6회 부산전국창작국악관현악 축제, 팔빙수 같이 시원한 음악회 등 창단 이래 어느 때 보다 바쁜 연주일정을 소화해냈다.

2008년의 활동을 통해 청중들이 무엇을 원하는 지 피부로 느낀 만큼 박호성지휘자와 전 단원들이 2009년 우리 음악의 매력을 알리고 청중과 보다 가까워지는 해로 만들기 위해 우리음악의 전령사로 나선다.

2009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5회의 정기공연과 6회의 특별공연, 1회의 특별기획, 1회의 순회공연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립부산국악원이 개원해 2009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만큼 2009년 국악애호가들의 음악감상의 폭이 넓어졌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2009년 국립부산국악원과 차별화되는 다양한 레퍼토리와 청중을 위한 서비스를 펼쳐나갈 계획이다.

2009년은 1월 21일 정기연주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주일정을 시작한다. 매년 정악으로 연 신년음악회와 달리 2009년은 어려운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힘든 시기인 만큼 각계각층에 희망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소리굿, 희망굿 등으로 'GOOD' 을 기원하는 신년음악회를 기획했다. 비나리의 명인 이광수, 아쟁산조의 시조인 박종선 명인, 경기굿의 명인인 이호연 명창이 신년음악회를 위해 부산을 찾는다.

2009년은 2008년에 이어 지역문화회관 순회연주회, 서울 순회연주회인 '하이 서울, 다이내믹 부산', 부산전국창작관현악 축제, 팔빙수 같이 시원한 음악회 등 기존 인기 프로그램은 계속 이어 나간다. 지난해 년버벌 퍼포먼스 '점프' 팀과 함께 웃음을 선사한 신춘음악회는 3월 27일 봄의 활력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새로운 무대를 구상하고 있다. 지역문화회관 활성화를 위해 4월 정기연주회는 동래문화회관, 6월 정기연주회는 을숙도문화회관, 11월 특별연주회는 북구문화빙상센터에서 펼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을숙도문화회관에서는 철새 도래지 을숙도의 특성을 살려 다음 세대에 아름다운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는 '환경 생태음악회-상생' 을 계획하고 있다.

2008년 전영록, 최진희 등의 출연진들과 시와 음악, 영상이 있는 무대로 우리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웰빙콘서트는 소극장 무대에서 새로운 스타일의 음악회로 펼쳐질 예정이다.



신명난 창작국악관현악을 들려주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원래 우리 음악이 장터에서도, 사랑방에서도 편하게 즐길 수 있었던 만큼 청중들과 보다 격식없이 자연스럽게 가깝게 만날 수 있는 소극장 무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수석지휘자 박호성은 음악과 이야기, 웃음이 있는 사랑방 같은 편안한 무대를 구상하고 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 18일 송년음악회에서는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 는 '법고창신' 의 정신을 살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정체성을 알리는 뜻 깊은 송년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노래가 끊이지 않는 행복한 세상을 꿈꾼다

노래가 끊이지 않는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부산시립합창단은 2009년 기축년을 맞는 각오가 남다르다. 그도 그럴 것이 2007년 아시아합창단으로 처음으로 바티칸 미사에 참가하며 로마에 입성한 부산시립합창단은 2009년 1월 17일 역사적인 독일 5개 도시 순회 연주 길에 오른다. 2008년 12월 송년음악회, 구 문화회관 순회연주, 포항·광주 순회연주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수석지휘자 김강규와 전 단원들이 독일 연주를 위해 어느 때 보다 많은 땀을 흘리며 연습에 임했다.

이번 독일 연주회는 부산시립합창단이 독일 Philharmonie der Nationen(국내 국립오케스트라와 동일 대우의 국가 인증 오케스트라)와 갖는 2009년 신년음악회로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뮌헨, 슈투트가르트 4개 도시에서 순회연주를 갖는데 베토벤 ‘코랄 환타지’와 교향곡 제9번 ‘합창’ 모두 독일어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공연들이 세계적인 지휘자들의 공연 실황 음반에서도 만날 수 있는 베를린의 콘체르트하우스, 프랑크푸르트의 알테오퍼극장, 슈투트가르트의 리더할레극장, 뮌헨의 필하모니홀 등 세계적인 공연장에서 열리기 때문에 단원들은 물론 한국합창단의 독일 공연에 현지에서도 관심이 높다.

“한국의 합창단이 독일의 국립오케스트라와 함께 신년음악회 순회연주에 참가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부산시립합창단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만큼 모두가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립합창단은 4개 도시 순회연주회에 이어 1월 24일에는 독일에 살고 있는 한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재독함부르크한인회와 터키교민회가 주최하는 ‘2009 설맞이 민속한마당’ 축하공연도 갖는다.

1월 27일 귀국하는 부산시립합창단은 부산 음악애호가들과는 2월 26일 특별연주회로 첫 만남을 갖는다. 이날 무대는 합창과 어울리는 기악곡을 선곡, 악기 고유의 매력을 전해줄 계획이다. 4월에는 오페라 뮤지컬 ‘운동주’를 부산에서 처음으로 선보인다. 운동주 탄생 90주년을 맞아 제작된 오페라 뮤지컬 ‘운동주’는 2007년 초연당시 상업적인 뮤지컬과 오페라의 장점을 살린 한국형 공연 장르로 주목받았다. 김강규 지휘자는 여건이 된다면 작곡가 이용주를 부산으로 초청, 완성도 높은 작품을 제작해 부산문화회관은 물론 금정문화회관, 을숙도문화회관에서도 선보일 계획이다.

매년 레퀴엠으로 호국 보훈의 달의 의미를 되새겨본 6월에는 특별히 2009년 멘델스존 탄생 200주년, 헨델 서거 250주년, 하이든 서거 200주년을 맞아 작곡가를 재조명해보는 무대를 갖고 10월에는 지난해 러시아 지휘자 빠쥬엘 스키와 함께 가진 러시아 합창음악회에 이어 미국의 유명 지휘자를 초청해 미국합창음악들을 들려준다. 그외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7080 합창음악회, 임진모와 함께 하는 팝합창 음악회로 부산시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계획이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2009년은 부산시민들에게 노래가 끊이지 않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2009년 부산시립합창단은 합창단원들의 마음을 담은 아름다운 하모니를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다.



2009년 1월 17일 독일 순회 연주 길에 오르는 부산시립합창단.



어깨춤이 절로 나는 흥겨운 우리 춤사위

2008년 한 해 동안 부산은 물론 국내외에서 우리 춤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 부산시립무용단은 2008년의 활동을 되돌아 보며 2009년 희망찬 신년을 맞는다.

“해마다 1월 1일 해맞이 공연으로 단원들이 차가운 밤바람을 맞으며 야외에서 새해를 맞았어요. 몇 년 만에 편안하게 새해를 맞지만 1월 1일 시민들과 가슴 벅찬 새해 해맞이를 하지않으니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합니다.”

2008년 부산시립무용단은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이 어느 해 보다 많았다. 연주자들과 달리 몸을 많이 움직이는 장르의 특성상 힘든 점이 많지만 단원들이 큰 사고 없이 1년을 잘 마무리 해줘서 고맙다는 수석 안무자 홍기태 씨는 단원 모두가 2009년에도 예년 못지 않는 활동을 다짐하고 있어 무엇보다 기쁘다.

2009년 부산시립무용단은 2회의 정기공연과 4회의 특별공연, 1회의 특별기획공연, 찾아가는 무용, 청소년 특별공연, 외국인 특별공연 등 다양한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홍기태 안무자와 단원들은 현재 토요일상설무대에서 확보한 부산시립무용단 고정 관객들에게 보다 다양한 춤사위를 선사, 우리춤을 사랑하는 진정한 후원자로 만든다는 목표로 2009년 신년에도 늦은 시간까지 연습실을 지키고 있다.

부산시립무용단은 첫 무대로 1월 15일과 16일 바쁜 공연 일정 틈틈이 전국 각지에서 우리 춤 전승에 열정을 쏟아온 단원들이 그동안의 기량을 펼쳐 보이는 ‘우리춤 산책’을 선보인다. ‘우리춤 산책’은 중요무형문화재로 전승되고 있는 전국의 전통춤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 무용애호가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는 기획프로그램이다. 5월과 11월에 갖는 정기공연에서는 창작 대작을 선보일 예정이다. 5월 정기공연에서는 국모 ‘명성황후’의 일대기를 춤으로 살려내기 위해 조주현 씨가 현재 대본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매년 여름 온가족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마당춤판에서는 고전 ‘별주부전’이 마당춤판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올해는 부산문화회관 야외무대 외에도 동래문화회관 야외공연장에서도 여름마당춤판을 갖는다. 그 외에도 12월 청소년들과 장애우를 위한 송년무대, 찾아가는 공연으로 우리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눌 계획이다.

특히 찾아가는 공연은 공연 요청이 많아 어느 해 보다 외부 활동이 많아질 전망이다. 실제로 2006년에는 12회, 2007년에는 14회였던 찾아가는 공연은 2008년에는 22회를 가졌다. 올해는 2월 부산의 복지관을 찾아가는 복지관 위문 공연을 시작으로 부산 전역에서 흥겨운 우리 춤사위를 선보인다.



해외에서 우리문화 사절단으로 인기가 높은 부산시립무용단.(사진은 백두대간)

지난해 조선통신사 문화사업회 주최로 동경에서 열린 ‘한·일 친선의 밤’, 한국국제교류단에서 주최한 쿤밍, 난닝의 한·중 우호 주간에 참가해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 부산시립무용단은 2009년에도 세계 무대에서 우리 문화 사절단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환희와 감동이 있는 무대 위 새로운 세상

2008년 4월 채윤일 수석연출자를 영입, 부산시립예술단 중 가장 큰 변화를 맞았던 부산시립극단은 2009년 부산 연극애호가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수준높은 작품 구상에 열심이다.

부산시립극단은 채윤일 연출자의 새로운 운영 체제 속에서 단원들과의 결속을 다지고 부산의 연극애호가들에게 한층 가까이 다가간다는 계획으로 2009년 부산시립극단 활동 계획을 세우고 있다.

채윤일 연출자는 지난해 취임 후 첫 정기공연 작품으로 연극 속의 연극이라는 새로운 형식의 연극인 '불가불가'를 연출, 부산연극계에 화제를 모았다. 새해에도 기존 부산시립극단이 선보였던 작품과는 다른 화제작으로 부산 연극애호가들과 만날 계획이다.

“지난해는 10명의 단원으로 작품 선택에 제약이 많았지만 처음으로 비상임 체제가 도입되어 부산시립극단이 소화할 작품의 폭이 넓어졌고 젊고 새로운 가족들의 영향으로 극단이 한층 젊어진 것 같습니다.”

실제 지난해 단원이 보강되면서 정기공연을 준비하고 있는 팀 외에 비상임 단원들이 찾아가는 공연을 위해 차범석 작 ‘위자료’를 준비해 동래문화회관에서 공연을 가졌다. ‘위자료’는 지난해 부산시립극단 새로운 레퍼토리로 토요일상설무대에서도 선보여 인기를 모았다.

채윤일 연출가는 2009년에는 부산시립극단의 위상을 알릴 수 있는 화제작들을 구상하고 있다. 채윤일 연출가는 그 첫 무대로 4월, 1976년 극단 자유에서 선보인 ‘무엇이 될꼬하니(가제)’를 선택했다. 박우춘 원작, 김정옥 연출로 무대에 올려진 ‘무엇이 될꼬하니’는 당시 광대들의 눈에 비친 우리 사회의 모습을 걸죽한 전라도 소리로 풀어낸 화제작이다. 이번 부산 공연에서는 채윤일 연출가와 이윤택 씨가 부산의 전통예술인 동래야류를 접목해 풀어낼 계획이다. 부산시립극단은 동래야류를 소화하기 위해 전지훈련도 계획하고 있다. 야외무대에서도 공연이 가능한 ‘무엇이 될꼬하니’는 우리 연희의 장점을 잘 살려 유럽무대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6월에는 이오네스코 탄생 100주년을 맞아 공모를 거쳐 30~40대 젊은 연출가 3명을 선정해 ‘대머리 여가수’ ‘끔찍한 사창가’ ‘수업’ 등 이오네스코 부조리극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획공연을 계획하고 있다. 부조리극은 구성이나 성격 묘사가 불합리하고 기이하여 전통적인 기법을 거부하며 인간 실존의 환상과 몽상적 세계를 묘사하고 있는 독특한 연극 장르이다. 부산시립극단 외에도 2008년 순회 교류 공연을 가진 순천시립극단, 밀양연극촌 등 다른 극단들과 함께 이오네스코 작품을 조명해본다.

그리고 10월에는 오랜만에 이윤택 연출로 ‘한 마리 호랑나비가 바다를 건넜다’를 선보일 계획이다. 2009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무대 위 새로운 세상 이야기를 어떤 형식으로 풀어낼지 연극애호가들의 기대가 크다.



연극속의 연극 형식으로 화제를 모은 부산시립극단 '불가불가'.

거장을 꿈꾸는 준비된 연주자들

“2008년 한 해 동안 청소년교향악단 단원으로, 학생으로 바쁜 연주 일정을 잘 소화해준 청소년교향악단 단원들이 정말 고맙습니다.”

2006년 8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과 인연을 맺은 수석지휘자 이동신은 부산에서 세 번째 신년을 맞으며 어느 해 보다 가슴이 벅차 오른다.

2007년 12월 가진 대만 초청연주회를 통해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의 위상을 높였고 청소년교향악단 교류 연주회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며 짧은 시간에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단원들의 연주 수준이 높아지고 음악적으로 보다 성숙해져 무엇보다 기쁘다. 부임 당시 50여명이었던 청소년교향악단 단원 수가 70명으로 증가한 것도 3년 전보다 큰 변화이다.

이동신 지휘자는 청소년교향악단을 학예회 수준으로 폄하하는 일부 청중들이 있어 안타까울 때가 있다. 나이가 어릴 뿐이지 그들의 음악적 열정은 성인연주자들 못지않다는 것이 그의 말이다.

실제로 2008년 한해 동안 국내외 유명 연주자들과 협연기회를 통해 음악적 완성도를 높인 청소년교향악단은 다양한 레퍼토리로 클래식 음악에 입문하는 청소년, 일반 청중들에게 크게 호평을 받았다. 이동신 지휘자는 2008년 특별히 미국과 프랑스, 러시아 음악을 레퍼토리로 선정해 청소년들에게 들려주었다. 또 12월 23일 가진 송년음악회에서는 인디애나음대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에드워드 아우어와 문정화 부부, 부산시립교향악단의 펠리체 앙상블과 함께 연주, 박수를 받았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2009년 3회의 정기공연과 3회의 특별연주회를 계획하고 있다. 올해는 2008년에 이어 한 나라의 작곡가들을 선정, 그 나라의 민족성과 음악적 특성을 알아보는 세계음악기행이 계속 이어진다. 4월 16일 첫 연주회에서는 드뷔시, 라벨과 같은 프랑스 인상주의 음악을, 5월에는 브루흐, 프랑크의 곡을 들으며 독일낭만 음악여행을 떠난다. 부산시립교향악단 비올라 수석 김가영이 협연자로 청소년교향악단과 연주한다. 또 9월에는 러시아, 11월에는 스페인 음악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지휘자 개인적으로 스페니쉬 음악을 좋아해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연주에서는 매년 스페니쉬 음악이 빠지지 않았다. 2009년 무대에서는 피아졸라와 파야, 로드리고 등의 음악으로 열정적인 무대를 열어줄 계획이다.

항상 단원들에게 “연주자가 즐겁고 연주자가 즐길 수 있는 음악이어야 청중도 즐거워진다”고 강조하는 이동신 지휘자는



2008년 미국, 프랑스, 러시아 음악을 들려준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앞으로도 단원들이 즐겁게 음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줄 계획이다. 또 교향악단 연주를 자주 찾지 못하는 학생과 초심자들을 위해 편안한 레퍼토리를 우선 선정하고 청중들은 물론 단원들도 함께 즐거워 할 수 있는 숨은 명곡들을 찾아내 음악 이해의 폭을 넓혀 주고 싶다.

2009년 순회연주회 계획은 아직 미정이지만 청소년교향악단의 연주를 희망하는 청중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주할 준비가 되어있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분명 미래가 촉망되는 준비된 연주자들이다.

문화사절단으로서의 역할 기대

창단 35주년을 맞아 2008년 한 해 분주한 일정을 보냈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올해로 취임 1년을 맞는 수석지휘자 전상철씨와 의욕적인 2009년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2009년 올해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대외적으로 알려내면서 내부적으로는 단원들의 역량강화를 통해 합창단의 내실을 다지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을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도약의 해로 삼은 전상철 수석지휘자는 올 한해 3회의 정기연주회와 4회의 특별연주회, 해외공연을 계획하고 있다.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해외 초청공연으로 2009년 첫 공식일정을 시작한다. 1월 10일부터 나흘간 중국 정주시에서 열리는 ‘한·중 문화교류음악회’에 초청받은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1월 11일과 12일 정주시와 인근 여주시에서 초청 무대를 갖는다. 특히 올해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사절단으로서의 역할도 기대되는데, 중국 초청공연에 이어 5월에는 독일 자브리켄시가 주최하는 ‘자를란트 국제 뮤직페스티벌’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년소녀합창단으로 초청받아 국립합창단, 울산시립합창단과 함께 무대에 선다.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2009년 첫 정기연주회는 3월 21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신춘음악회로 마련되는 제 125회 정기연주회 ‘꽃들이 노래하는 봄’은 꽃을 소재로 한 다양한 봄노래와 소프라노 장은영, 슈트라우스의 왈츠곡으로 추는 정통 왈츠팀의 공연과 우리 전통무용 등 2009년 새 봄의 설렘을 노래와 춤으로 들려준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는 80년 한국동요사를 정리하는 특별한 무대를 갖는다. 5월 23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지는 제 125회 정기연주회 ‘잊혀져 가는 우리 동요’에서는 시대별로 정리된 우리동요를 민족시가연구소 이사장으로 있는 시인 김상훈 선생의 해설로 들려준다. 또, 여름방학기간인 8월 17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는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을 위해 교과서에 수록된 노래들을 중심으로 들려주는 청소년 해설음악회 ‘합창으로 보는 교과서음악회’, 9월 26일 제 126회 정기연주회에서는 전 수석지휘자 배정행씨를 초청, ‘객원지휘자 배정행과 함께하는 음악여행’을 떠난다.

12월 22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송년음악회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2009년 가장 역점을 두는 공연으로, 헨델의 ‘메시아’를 번역본이 아닌 영어 원곡으로 들려준다. 성인합창단을 포함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원곡 무대로, 부산시립교향악단이 함께 무대에 선다. 보다 완벽한 무대를 선사하기 위해 1월부터 단원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영어수업도 가진다.

이밖에도 타시도와의 교류음악회와 다양한 청중과 직접 만나는 찾아가는 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로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단원들의 실력향상을 위해 1월 19일~2월 2일 동계 캠프를 갖는다.



2008년 창단 35주년을 맞아 다양한 무대를 선보인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2009년도 부산시립예술단 공연계획

장소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대극장		▶ 교향 1/9(금) 446회 정기 '신년음악회'	▶ 교향 2/20(금) 부산국제음악제 초청 연주자들과 함께 하는 부산국제음악제	▶ 교향 3/13(금) 신춘음악회 ▶ 교향 3/19(목) 447회 정기 ▶ 국악 3/27(금) 145회 정기 신춘음악회	▶ 극단 4/2(목)-4(토) 34회 정기 ▶ 교향 4/17(금) 448회 정기	▶ 합창 5/15(금) 7080합창음악 ▶ 무용단 5/20(수)-5/21(목) 60회 정기 ▶ 교향 5/22(금) 449회 정기 ▶ 소년소녀 5/23(토) 125회 정기 ▶ 교향 5/28(목) 특별
					☆ 부산국제연극제 4/26(일)-5/3(일)	☆ 부산국제연극제 5/6(수)-5/10(일)
중극장		▶ 국악 1/21(수) 144회 정기 신년음악회 ▶ 토요일상설무대 1/31(토)	▶ 외국인을 위한 공연 2/6(금) ▶ 교향 2/12(목) 11:00 웰빙콘서트 ▶ 외국인을 위한 공연 2/22(일) ▶ 합창 2/26(목) 특별	▶ 외국인을 위한 공연 3/6(금) ▶ 소년소녀 3/21(토) 124회 정기 ▶ 외국인을 위한 공연 3/22(일)	▶ 청소년교향 4/16(목) 31회 정기 ▶ 합창 4/28(화) 129회 정기 ▶ 교향 4/29(수) 11:00 웰빙콘서트	▶ 청소년교향 5/27(수) 32회 정기
				☆ 부산연극제 3/26(목)-4/13(월)	☆ 부산국제연극제 4/30(목)-5/10(일)	
소극장		▶ 시민클래식교실 1/7(수) ▶ 시민무용교실 강습발표회 1/9(금) ▶ 토요일상설무대 1/10(토) ▶ 무용 1/15(목)-16(금) 우리춤 산책 ▶ 토요일상설무대 1/17(토)	▶ 외국인을 위한 공연 2/6(금) ▶ 토요일상설무대 2/7(토) ▶ 토요일상설무대 2/14(토) ▶ 토요일상설무대 2/21(토) ▶ 외국인을 위한 공연 2/22(일) ▶ 토요일상설무대 2/28(토)	▶ 외국인을 위한 공연 3/6(금) ▶ 토요일상설무대 3/7(토) ▶ 토요일상설무대 3/14(토) ▶ 토요일상설무대 3/21(토) ▶ 외국인을 위한 공연 3/22(일)	▶ 토요일상설무대 4/18(토) ▶ 토요일상설무대 4/25(토)	▶ 토요일상설무대 5/16(토) ▶ 토요일상설무대 5/23(토) ▶ 국악 5/29(금) 특별 ▶ 토요일상설무대 5/30(토)
				☆ 부산연극제 3/26(목)-4/13(월)	☆ 부산국제연극제 4/28(화)-5/9(토)	
국제회의장		▶ 시민무용교실 1/5(월)-9(금) ▶ 시민클래식교실 1/14(수), 1/21(수), 1/28(수)	▶ 시민클래식교실 2/4(수), 2/11(수), 2/18(수), 2/25(수)			
지역(區)문화회관				▶ 외국인을 위한 공연 3/28(토) 동래문화회관	▶ 합창 4/14(화) 금정문화회관 ▶ 합창 4/16(목) 을숙도문화회관 ▶ 국악 4/17(금) 146회 정기 동래문화회관	▶ 외국인을 위한 공연 5/5(화) 동래문화회관 ▶ 극단 5/22(금)-23(토) 동래문화회관
순회공연				▶ 교향 3/30(월) 통영국제음악제	▶ 교향 4/21(화) 교향악축제 4/23(목) 영호남권 교향악페스티벌	▶ 국악 5/22(금) 국립국악원 제5회 Seoul Dynamic Bus

※이 공연 일정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p>합창 6/18(목) 130회 정기 교향 6/26(금) 450회 정기</p> <p>부산음악콩쿠르 6/22(월)-6/26(금)</p>	<p>▶ 교향 7/9(목) 451회 정기 ▶ 교향 7/16(목) 부산음악콩쿠르 입상자 축하연주회 ▶ 무용 7/23(목)-7/24(금) 여름마당춤판 (우천시 대극장)</p> <p>☆ 부산무용제 7/8(수)-7/13(월)</p>	<p>▶ 소년소녀 8/17(월) 특별 ▶ 교향 8/18(화) 클래식은 내친구 ▶ 국악 8/20(목) 팔빙수같이 시원한 콘서트 ▶ 합창 8/21(금) 3개시도 합동</p>	<p>▶ 교향 9/11(금) 452회 정기 ▶ 교향 9/18(금) 청소년 협주곡의 밤</p>	<p>▶ 교향 10/16(금) 특별 ▶ 합창 10/22(목) 131회 정기 ▶ 교향 10/23(금) 453회 정기 ▶ 합창 10/30(금)-31(토) 부산합창제</p>	<p>▶ 무용단 11/5(목)-11/6(금) 61회 정기 ▶ 교향 11/27(금) 454회 정기</p> <p>☆ 부산국제합창제 11/12(목)-11/15(일)</p>	<p>▶ 무용 12/15(화) 청소년 특별 ▶ 무용 12/16(수) 11:00 장애우 특별 ▶ 교향 12/16(수) 455회 정기 ▶ 국악 12/18(금) 149회 정기 ▶ 소년소녀 12/22(화) 송년음악회 ▶ 합창 12/23(수) 132회 정기 ▶ 교향 12/31(목) 제야음악회</p>
<p>교향 6/9(목) 11:00 웰빙콘서트</p>	<p>▶ 청소년교향 7/10(금)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 합창 7/18(토) 임진모와 함께하는 팝합창 ▶ 시민무용교실 강습발표회 7/31(금)</p>	<p>▶ 무용 8/20(목) 한여름 밤의 춤 작품전</p>	<p>▶ 합창 9/15(화) 소그룹 특별 ▶ 국악 9/22(화)-25(금) 부산전국창작국악관현악 축제 ▶ 청소년교향 9/24(목) 33회 정기 ▶ 소년소녀 9/26(토) 126회 정기</p>	<p>▶ 교향 10/8(목) 11:00 웰빙콘서트 ▶ 극단 10/29(목)-10/31(토) 36회 정기</p>	<p>▶ 청소년교향 11/5(목) 특별 ▶ 소년소녀 11/7(토) 특별 ▶ 합창 11/17(화) 창작합창연주회 ▶ 국악 11/19(목) 148회 정기 ▶ 극단 11/27(금)-11/28(토) 국·공립극단 교류공연</p>	<p>▶ 극단 12/2(수)-12/5(토) 특별 ▶ 청소년교향 12/18(금) 송년음악회</p>
<p>극단 6/4(목)-6/6(토) 35회 정기 극단 6/11(목)-6/12(금) 특별 6/18(목)-6/19(금) 특별 토요상설무대 6/13(토) 토요상설무대 6/20(토) 토요상설무대 6/27(토)</p>	<p>▶ 시민연극교실 7/27(월)-8/1(토)</p>			<p>▶ 국악 10/30(금) 특별</p>		
	<p>▶ 시민무용교실 강습 7/27(월)-31(금)</p>		<p>▶ 문화대학</p>	<p>▶ 문화대학</p>		
<p>국악 6/25(목) 147회 정기 을숙도문화회관</p>	<p>▶ 극단 7/10(금) 북구문화빙상센터 ▶ 무용 7/25(토) 동래문화회관 여름마당춤판 (우천시 대극장)</p>	<p>▶ 교향 8/28(금) 해운대문화회관 ▶ 소년소녀 8/21(금) 을숙도문화회관</p>		<p>▶ 국악 10/22(목) 청소년 협연의 밤 금정문화회관</p>	<p>▶ 국악 11/6(금) 19:30 북구문화빙상센터 ▶ 합창 11/24(화) 11:00 해운대문화회관</p>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46회 정기연주회

2009 신년음악회

- 2009년 1월 9일 금요일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서현석

이지화



더 필

2009년 한해를 의미 있게 시작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2009년 신년음악회가 1월 9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매년 전석 매진 행진을 기록하고 있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신년음악회 2009년 무대는 지휘자 서현석이 객원지휘하고 부산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이지화, 남성성악 앙상블 더 필(The Feel)이 출연, 신년을 맞는 환희와 기쁨을 음악으로 들려준다.

객원지휘자 서현석은 서울대학교에서 트럼펫을 전공, 재학 당시 문화공보부 신인 예술상 음악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작곡을 전공한 서현석은 독일로 유학, Aachen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귀국 후 국립교향악단, KBS교향악단의 트럼펫 수석주자로 활동했으며 서울시향, 부산시향, 제주시향, 대구시향, 코리안심포니, 경북도립교향악단, 진주시향 등을 지휘하기도 했다.

1998년부터 예술의전당 교향악축제에 초청되어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는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를 창단, 현재 상임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서현석은 한국음악상, 한국음악평론가협회 음악대상, 대한민국 문화화관훈장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지휘과 교수를 역임했다.

바이올리니스트 이지화는 부산예고 재학 중 러시아로 유학(1995),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림스키-코르사코프)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했다. 2002년 이탈리아 IBLA Grand Prize 콩쿠르에 우승한 이지화는 영국(뉴캐슬), 미국, 뉴욕(카네기 홀), 알칸소 등 초청 연주회를 비롯해 모스크바 심포니 오케스트라, 상트페테르부르크 카펠라 심포니 오케스트라,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 음악원 심포니 오케스트라, 부산시립교향악단 등과 협연 무대를 가져왔다. '뉴 클래식'을 표방하는 남성 성악앙상블 '더 필(The Feel)'은 이탈리아 유학과 테너 양승엽, 김철수, 바리톤 고영호와 오랜 시간 전문 합창단원, 합창지휘자로 활동해 온 바리톤 김창돈으로 결성된 클래식 그룹이다. 뉴 클래식이라는 팀컬러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전이라는 울타리를 조금 벗어나 많은 대중과 더 가까이 호흡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클래식 음악을 지향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코플랜드 '보통사람을 위한 팡파레'를 시작으로 신년음악회 주요 레퍼토리 J.Strauss의 폴카 '트리치 트라치', 폴카 '사냥', 오페레타 '박쥐' 서곡과 함께 번스타인 '캔디드' 서곡, 우종갑 관현악을 위한 환상곡 '오호타령', 사라사테의 '찌고이네르바이젠',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제 4번 등을 들려준다.

입장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은 좌석을 미리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빈 소년합창단 신년음악회

- 1월 11일 일요일 오후 6:00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매년 1월이면 찾아오는 '천사들의 목소리' 빈 소년합창단이 올해도 1월 11일 신년음악회로 부산을 찾는다.

세계적인 작곡가 슈베르트와 하이든이 단원으로 활동하며, 베토벤이 직접 반주를 하기도 한 500년 전통의 빈소년합창단은 바그너, 리스트, 요한 슈트라우스 등이 자신의 곡을 헌정하기도 한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소년합창단이다.

현재 10살에서부터 14살 사이 소년 100여명으로 구성된 빈 소년합창단은 모차르트, 슈베르트, 하이든, 브룩너 등 4개의 투어합창단으로 나뉘어 매년 세계를 무대로 300여회가 넘는 콘서트에 출연하고 있다. 빈 소년합창단은 1978년 세종문화회관 개관 기념공연으로 첫 내한공연을 가진 이래 그동안 총 12차례 내한공연을 가졌고, 그 때마다 매진사례를 기록하면서 변함없는 사랑을 받아왔다. 이번 공연에는 슈베르트 팀이 내한한다.

다양한 레퍼토리를 자랑하는 빈 소년합창단은 중세부터 동시대 및 실험음악까지 모든 장르와 시대를 아우르는데, 특히 요한 스트라우스의 왈츠와 폴카, 각국의 전통민요, 미사곡 등은 전 세계 청중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칼 오르프의 '운명의 여신', 멘델스존 '내 영혼이여 주를 찬양하라', 생상스 '귀하신 주님' 등 13세기 그레고리 성가를 들려주는 1부 무대에 이어 2부에서는 요한 스트라우스의 '트리치 트라치 폴카',

'황제 왈츠' 등 스트라우스의 폴카와 왈츠, 오스트리아 민요 '폴밭에 축복' '아름다운 호수가 있었네', 핀란드 민요 '파돌리기 송', 우즈베키스탄 민요 '비 노래', 그리고 우리민요 '아리랑' 등 각국의 전통민요로 세계음악 여행을 떠난다.



입장료 R석 55,000원 · S석 44,000원 · A석 33,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예은예술기획(632-6904)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2009 우리춤 산책

- 2009년 1월 15일-16일 목-금요일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태평무

우리 문화의 우수성이 담긴 우리 춤의 아름다움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우리춤 산책' 2009 무대가 1월 15일과 16일 이틀간 부산문화회관 소극장에서 펼쳐진다.

평소 실제 강습을 통해 우리춤의 기량을 갈고 닦아온 부산시립무용단원들의 빼어난 춤을 선보일 이번 무대에서는 승무, 살풀이춤, 태평무 등의 중요무형문화재 뿐 아니라 삼고무, 설장고춤, 산조춤 등 다채로운 우리 춤을 한자리에서 공연, 한국 춤의 정수를 골고루 맛볼 수 있다.

첫날 무대는 악귀를 물리치고 복을 바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중요무형문화재 제39호 처용무, 살(액)을 푼다는 뜻이 담겨 있는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 도살풀이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통곡하는 중요무형문화재 제7호 고성오광대 중 제1과장 '문동북춤', 양반들이 일상생활 속에서의 멋과 여유로움을 즐기며 추었던 부산시지정무형문화재 제14호 동래한량무, 힘과 신명이 넘치는 춤사위로 우리나라 민속춤의 정수로 꼽히는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이매방류 승무와 한갑득 류 거문고 산조를 반주음악으로 사용한 '산조춤'을 선보인다.

둘째날은 역동적인 북가락과 함께 어우러지는 매혹적인 춤사위인 '삼고무', 안심입명의 종교적 소원에서 비롯된 민속무용인 '도살풀이춤', 나라의 평안과 태평성대를 기리는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호남 지방예술의 계보를 잇는 '입춤', 한국 전통춤의 백미로 일컬어지는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 '이매방류 살풀이춤', 호남농악의 우도굿 중 개인놀이에서 발전된 '설장고춤'을 선보인다. 같은 춤이라도 춤을 추는 사람에 따라 그 신명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춤을 비교 감상해 볼 수도 있다.

■ 첫째날

처용무(춤/최의옥), 도살풀이춤(춤/김동숙), 고성오광대 中 문동북춤(춤/허태성), 동래한량무(춤/김기원, 박상용), 산조춤(춤/윤은하), 승무(춤/김진영)

■ 둘째날

삼고무(춤/서정숙, 정진희), 도살풀이춤(출연/김주령), 강선영류 태평무(춤/서현미), 입춤(춤/김주연), 살풀이춤(출연/오숙례), 설장고춤(춤/이현주A, 이현주B)

입장료 균일 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은 좌석을 미리 예약해 주십시오.)

문의 부산시립무용단(607-6118),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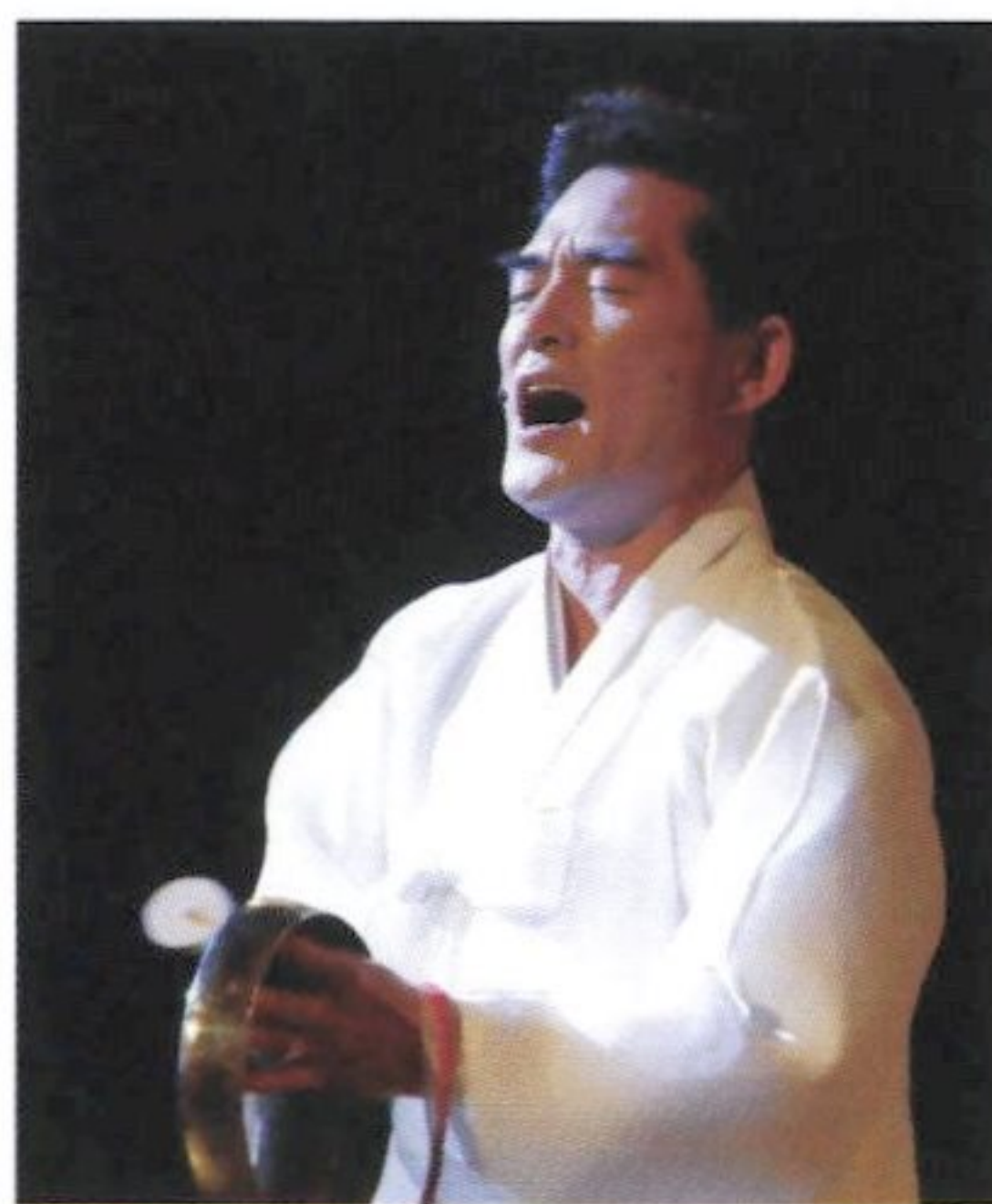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44회 정기연주회

2009 신년음악회 '희망 2009, 굿 Good'

- 1월 21일 수요일 오후 7:30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박호성



이광수



박종선



이호연

2009년 기축년 새해 희망찬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희망굿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2009 신년음악회 '희망 2009, 굿 Good'이 1월 21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무대는 수석지휘

자 박호성이 지휘하고 이광수 명인과 민족음악원, 아쟁연주자 박종선, 경기민요 국악인 이호연이 협연한다.

2009년 신년음악회 첫 무대는 2009년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박범훈 곡 굿을 위한 창작관현악 '신내림'으로 신명 넘치는 굿판을 펼친다. 비나리의 최고 경지에 이르렀다고 평가받는 이광수 명인의 2009년 축원 덕담을 위한 '비나리'는 사물의 가락 위에 액을 풀고 복을 비는 축원과 고사덕담의 내용을 담은 노래로 새해 모든 이들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는 곡이다. 이광수 명인은 김용배, 최종실, 김덕수와 더불어 사물놀이를 창단했으며, 현재 민족음악원 이사장, 대불대학교 전통연희학과 교수로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민족음악원 단원인 이영광(뽕과리), 손경서(장구), 권지훈(징), 함주명(북)과 함께 비나리와 사물놀이 공연을 펼친다.

이어서는 박종선류 산조를 위한 협주곡 '금당'을 박종선 명인이 직접 출연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호흡을 맞춘다. 한일섭 선생으로부터 아쟁과 태평소를 사사받은 박종선 명인은 국립국악원 민속연주단 예술감독, 국립국악원 지도위원, 국립중악극장 국립창극단 음악감독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양대학교에서 후학을 지도하고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 57호 경기민요 전수조교로 있는 이호연 명창의 소리 굿 무대에서는 새해를 맞아 세상살이를 주제로 한 경기민요 한오백년, 청춘가, 태평가와 힘찬 2009년을 기원하는 흥겨운 뱃노래를 들려준다.

마지막 무대는 박범훈 곡 사물놀이를 위한 협주곡 '신모듬'을 들려준다. '신난다, 신명난다, 신바람난다'는 뜻의 신모듬은 강렬한 사물놀이와 관현악의 신명이 더해져 미래지향적인 열정과 기상을 표현한 곡으로, 이번 무대에서는 최고의 뽕과리 연주자인 이광수 명인과 민족음악원의 사물놀이 협연으로 2009년 한 해 관객들의 번영과 발전을 기원한다.

입장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좌석을 미리 예약해 주십시오.)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인터뷰 - 중국 현대 미술의 태풍의 눈에 선 예술가



인자오양(尹朝捺)

문화혁명의 상처를 넘어서다

박 건 해 | 중국 통신원

인자오양은 중국 현대 미술에서 1970년대 출생 작가중 대표적인 인물로 <모택동>, <천안문> 시리즈 등으로 문화혁명 이후의 상처의 정서를 강렬하게 표현했다.

2008년 10월 북경 금일 미술관에서 인자오양 10년 회고전이 열렸는데 그의 청춘시대를 거쳐 모택동과 천안문 시리즈로 문화혁명을 겪은 후 중국 사회의 진통을 표현한 대표작을 비롯한 내면 세계로의 통찰로 이어지는 최근의 작품까지 총망라한 대규모 전시였다.

복합적인 원인으로 문화혁명 후의 각 시대별 예술가의 작품속에는 공통적으로 일종의 상처입은 청춘의 정서를 드러낸다. 상처의 미술이 새로운 시대로, 다시 1970년대 전후에 도착할 때까지 시대마다 다른 정신의 특성을 지닌다.

상처미술의 고통스런 청춘의 기억과 새로운 시대에 따른 입장은 모두 다르다. 1970년대 전후 출생의 시대는 더욱 모호함을 가지며 또한 추측하기 힘든 심리적인 특징도 가지는데 인자오양의 <멀어진 청춘> 시리즈는 가장 심도있게 이 시대의 몽롱함과 아스라함을 드러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강렬하게 뼈를 찌르는 듯한 청춘의 아픔을 표현한 그는 초기 작품부터 복잡한 내면 체험에 강렬한 관심을 보여왔다. 학부시절의 <나비>, <광상곡>에서 1997년의 <환영가>, <얼어붙은 강> 등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신비하며 몽환적인 영상을 통해 내면의 긴장과 세계에 대한 허망함을 나타냈다.

1998년에 제작된 <멀어진 청춘> 시리즈 중 인물이 망연하게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 신체에 무너진 빛과 그림자의 표현, 허공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구름과 창백하고 퇴색된 색채효과는 실망하고 낙담한 인물의 망연하고 투박하고 거친 모습, 이시대 젊은이들의 갈망과 더불어 그것을 억지로 거부하



'모택동' '천안문' 시리즈 등으로 문화혁명 이후 상처를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는 '인자오양'

기도 하는 복잡한 심리상태를 그린 것이다.

1999년에는 <멀어진 청춘> 시리즈와 함께 남녀의 애정에 관한 <실락원> 시리즈 또한 제작되었다. <멀어진 청춘>에서 표현된 청춘의 이상과 격렬함, 소실된 후의 망연한 정서가 남녀의 애정을 그린 <실락원> 시리즈에서도 전개된다. 천진난만한 연애가 끝난 후의 아픔과 추락, 사적인 공간을 엿보는 듯한 설정에서 공포스러움과 강렬한 충격을 느끼게 한다.

<신화> 시리즈는 자신의 운명에 의해 영원히 멈출 수 없는 투쟁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다. <신화> 시리즈는 그의 많은 내면의 경험을 통해 운명을 깨닫게 되고 강한 운명 앞에서의 비장한 투쟁을 표현한 내용으로 청춘의 상처를 초월하고 더욱 강해진 자아의 식과 인격의 역량을 드러냈다고 평가된다.

2001년 부터는 거의 동시에 <유토피아>와 <천안문> 시리즈를 시작한다. 그에게 있어서 정치 역사 주제는 사실상 내면 깊숙한 곳의 영웅주의에 관한 잠재의식으로 뒤엉킨 자아를 분석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유토피아>, <천안문> 시리즈를 통해 현실상황에 관한 충격과 내면 심층에서의 아픔이 진정 외부세계로 문을 활짝 열게 되었다.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도 인격을 분열시키고 충격을 주었던 시대의 진실과 침잠되어 아파하는 모습, 정신적인 환상을 표현해 낸 것이다.

과거 십년동안 인자오양의 작품은 큰 변화를 겪어왔다. <사라진 청춘>으로부터 시작된 청춘에서 체험된 극렬한 고통의 표현, <실락원>에 이르러서의 감정상의 곤경과 냉소, 또 <신화>에서는 개인의 운명과 충만한 영웅의 기개와 투쟁, 다시 <유토피아>와 <천안문>, <모택동>등의 시리즈에 도달해서는 자신의 내면을 둘러싼 이상주의와 영웅 잠재의식, 충만하고 격정의 시대에 대한 신화를 고통스러워하는 자신을 거슬러 올라가 깊고 냉소적인 사고와 통찰력으로 보여준 것이다.

특이하고 변화 무상한 상상, 격렬하면서도 깊고 진지한 감정, 비장하고 고통스러운 아픔의 체험에서 제작된 그의 시리즈들은 방대하면서도 완전한 체계를 갖추었다. 이러한 작품들은 작가의 민감성, 복잡한 내면의 변화, 종종 모순적인 정서의 체험으로부터 심도 있게 표현 되었으며 충만한 청춘시대의 민감한 소년에서부터 시작되어 냉철한 이지적 사고로 이루어진 것이다.

■ 당신의 작품을 처음으로 접하는 한국 관중을 위해서 소개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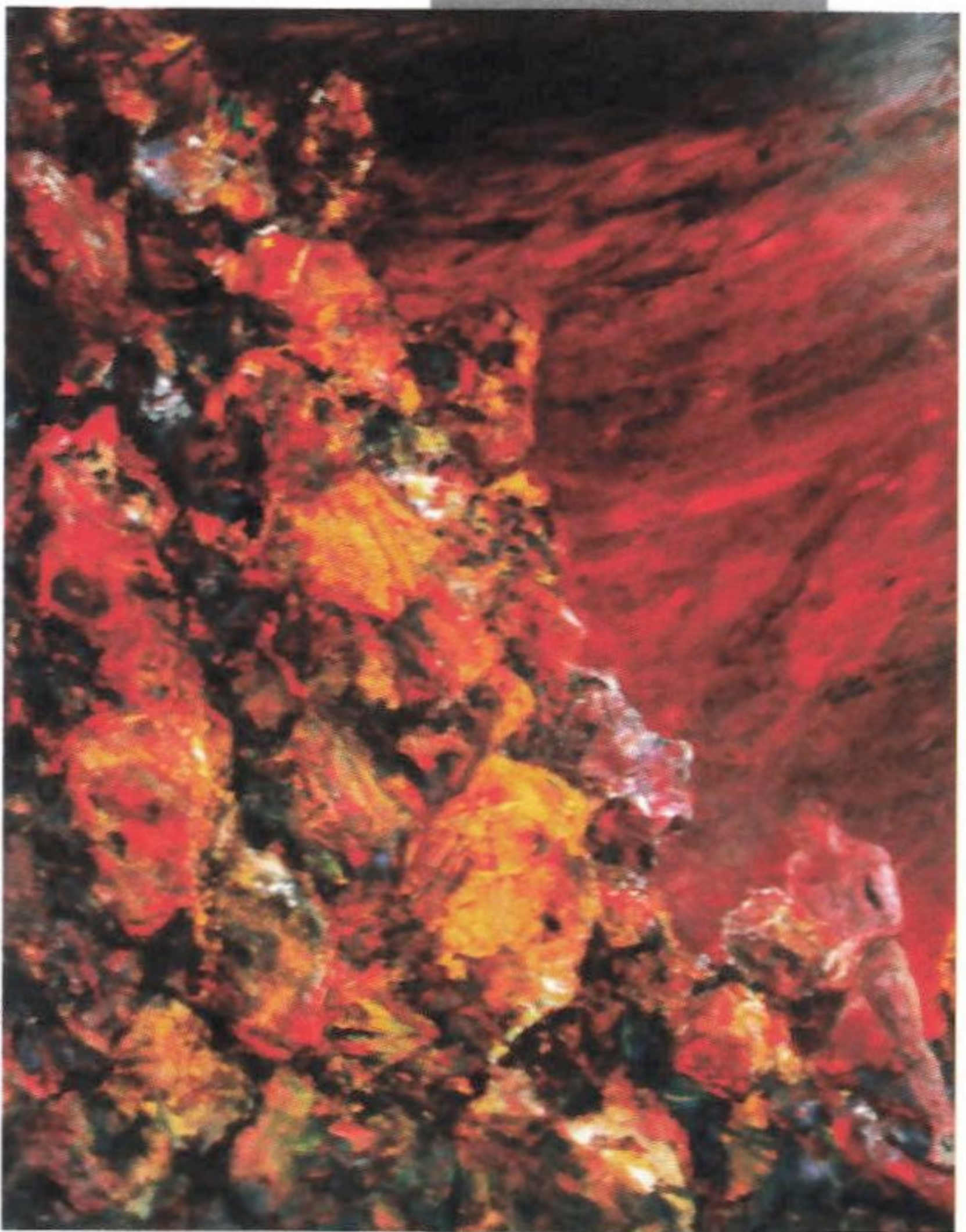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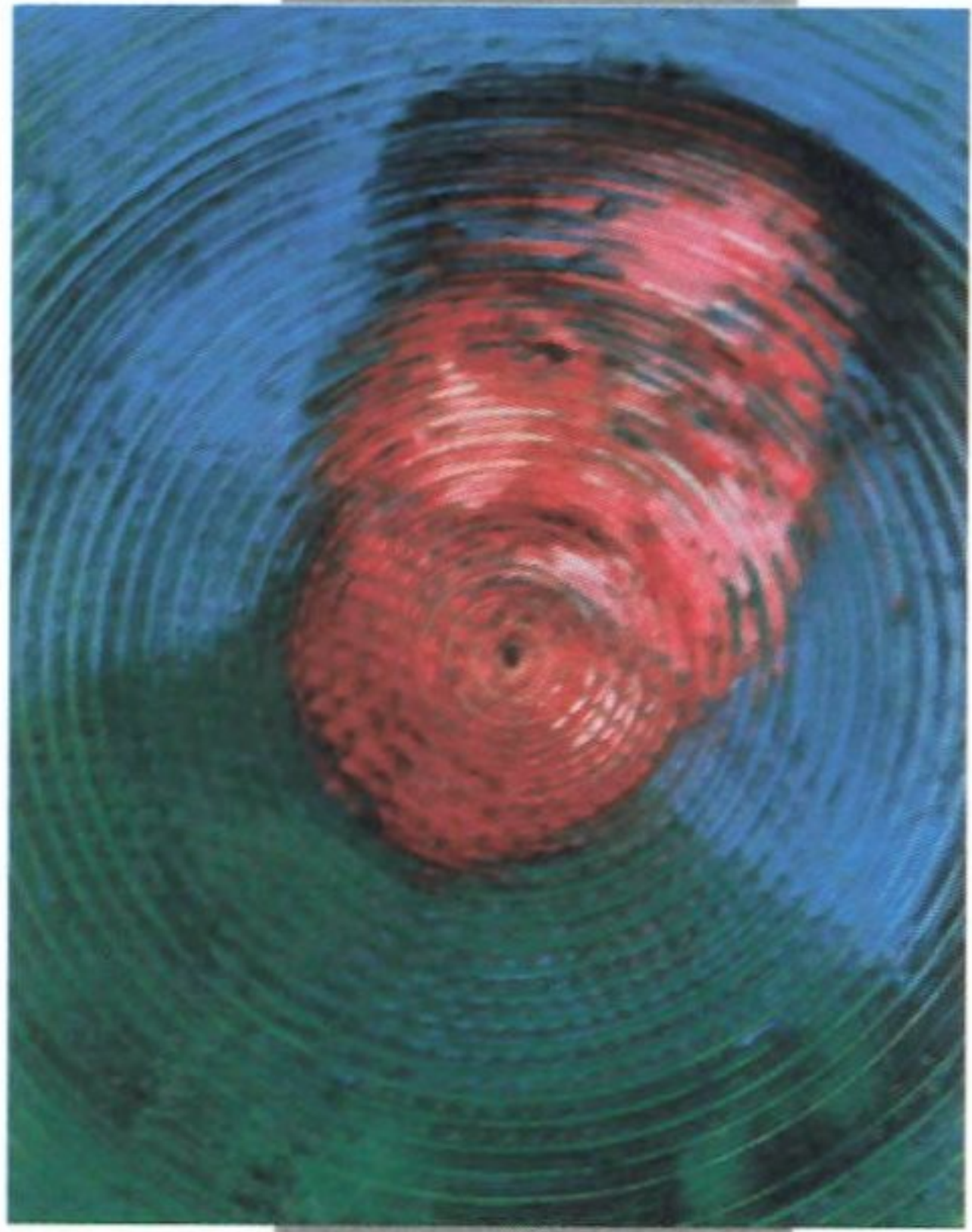
2003년 처음으로 사립미술관이 기획한 전시에 참가했다. 초기 시리즈 작품이었고 잡지에 발표했다. 2009년 한국의 H갤러리에서 전시 할 계획이 있는데 예전과 다른 인물과 관계된 전시다. 초상화와 조소작품이다.

■ 예전의 <천안문>, <모택동> 시리즈 제작에서 최근은 불상, 불교를 표현한 작품으로 전환하게 된 계기는?

이것은 아주 단순한 문제이다. 초기에는 개인과 연관있는 생존에 관한 체험, 경험을 표현했고 천천히 몇년전부터 새로운 시리즈를 생각하게 되었는데 공공의 공간에 관한 체험, 경험을 표현하고자 하는데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중국에 있어서 천안문과 모택



인자오양의 작업실



인자오양의 작품들

동은 매우 중요한 배경이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배경을 마주해야 한다. 현재 천안문, 모택동 시리즈는 내 스스로도 충분히 표현했다고 생각한다. 작년부터 이 주제는 모호하게 변화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작업을 통해 다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개인의 체험과 나의 연령도 많아졌고 20,30대 처음 나왔을 때와는 달라졌다.

■ 나선형의 기법을 얼마전부터 활용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한 이유인데 이러한 기법은 강렬한 아름다움을 지니며 붓으로 표현되는 것과는 다른 느낌을 가진다. 그러나 이것은 전통과 연관성이 큰 표면이고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나의 어떤 정서에 감응해서 표현되는 것이다. 중국의 표현 기법과 회화언어 상에도 새로운 출현들이 필요하며 이것은 작품수량과 상관없이 나의 그러한 필요성에 의해 노력하는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 앞으로 작품의 변화에 관해서의 계획은?

미래에 관해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미래의 예측은 종종 상상에 이르곤한다. 오늘을 잘 살면 미래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강을 건너기 전에는 강안에 돌이 있는 줄 모른다. 그러나 강에 들어선 순간 돌을 밟고 평정하게 건널 수 있을 것이다.

■ 당신의 위치는 매우 독특한 듯하다. 사대천황(장샤오강, 위엔민준, 팡리진, 왕광이를 지칭)같은 정치파에 속하지 않고 1980년 이후 출생한 젊은 작가들의 정치와 완전하게 무관하게 개인기호, 감성에 의한 작업도 아닌 듯하다. 이런 작업에 관한 견해는?

나의 위치는 특수하다고 생각한다. 사대천황은 중국 당대예술에 공헌했다고 생각한다. 우리 연령에 도착해서 그들을 기초로 다시 앞으로 나갔다. 젊은 작가들에 관한 견해에 대해서는 나는 연령에 따른 분류에 그다지 동의하지 않는다. 1960, 70년대식은 손쉬운 분류인 것이다. 1950, 60년대라고 새로운 경향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지 않는다. 그들은 종종 더욱 성숙미와 새로운 스타일을 선보인다. 젊은 예술가라고 성숙하지 못하다는 편견 또한 없다. 따라서 새로운 스타일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신구는 상대적이다. 오늘 새로운 것이 내일은 오래된 것이다. 나는 좋은 예술과 그렇지 못한 예술 두가지로 분류된다고 생각한다. 이 시대의 진정한 체험을 반영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며 각 시대는 특징과 개성이 있다. 그것이 이 시대 예술가의 책임이고 직접적으로 그것을 표현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나는 작업하며 어떤 개념이나 어떤 이상을 위함이 아니다. 그러할 때 개성있는 예술이 나오고 유행하는 어떤 것과는 다르다.

■ 중국 사회주의 국가가 예술가에게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허가 하는가? 아니면 제한이 있는지?

완전한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미국 또한 가장 자유롭다 하지만 마찬가지다. 중국은 비록 사회주의 국가지만 국민들의 이해는 다르다. 이러한 안목으로 중국 예술가들을 볼 때 이미 어떤 시대보다 자유롭다고 느끼며 최소한 나의 작업중 제한을 받아보지 않았다. 정부의 간섭은 없었다는 것이다. 전시에 관한 약간의 제한은 있으나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새로운 조소 시리즈는 어떻게 발상된 것인지?

스케치를 먼저하고 돌을 이용해 만들어 낸 것이다. 이 시대에 관한 개인의 일종의 체험, 경험이며

현대인을 표현한 것이다.

■ 초기 작품에서 프란시스 베이컨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

그렇다. 학생시절부터 직업화가로 성숙되는 과정 중 어떤 작용을 했다. 그의 작품 속에서는 일종의 정서를 느낄 수 있다. 이 정서는 회화 언어로 전달될 때 어떤 힘을 가진다. 그가 내게 준 것은 전통적인 방식과 기법으로 어떻게 현대인의 정서와 감정을 표현 전달하는가 하는 점이다.

■ 10년 회고전 전시 후 어떤 소감인지?

이 전시는 지난 10년에 관한 작은 정리며 결론이다. 이 전시를 통해 지난 십년간 나의 작업들을 돌아보게 되었다. 나는 기본적으로 솔직한 얘기를 해왔다. 또 10년이란 많은 시간동안 사람들을 격동하게 하는 작업을 해왔다. 10년 후 봐도 여전히 그러한 감정을 느낀다. 나에게 심장의 고동을 느끼게 한다.

■ 지금 작업에서도 여전히 격렬한 감정으로 작업하는지 아니면 또다른 감정으로 임하는지?

당연히 다른 감정으로 작품을 대한다. 사람이 한가지 감정에 머물러 있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때로는 '평정'도 사람에게 깊은 충격을 준다. 안정, 평정, 격동은 대립한다. 나는 지금 평형을 얻었다.

■ 몇해동안 중국 세계미술 광풍이 불었다. 가격도 비약적으로 상승하고 이례없는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과도한 열기속에서 어떻게 예술가 본연의 자세를 지켜내는가?

외부의 현상에 과도하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 사랑, 내면의 평정함과 격동이다. 나는 작업에 대한 책임감을 중요하게 여긴다. 예술가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일의 감동을 진심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 세계적으로 미술이 이렇게 주목받고 중국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은 좋은 기회라 생각한다. 중국 예술가들의 활약을 희망한다. 중국 미술중심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지?

나는 그렇게 될 것이라는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내가 강조하는 이상주의는 매일 성실하고 진지하게 하루를 마주할 때 발생하는 새로움이다.

■ 인생의 신념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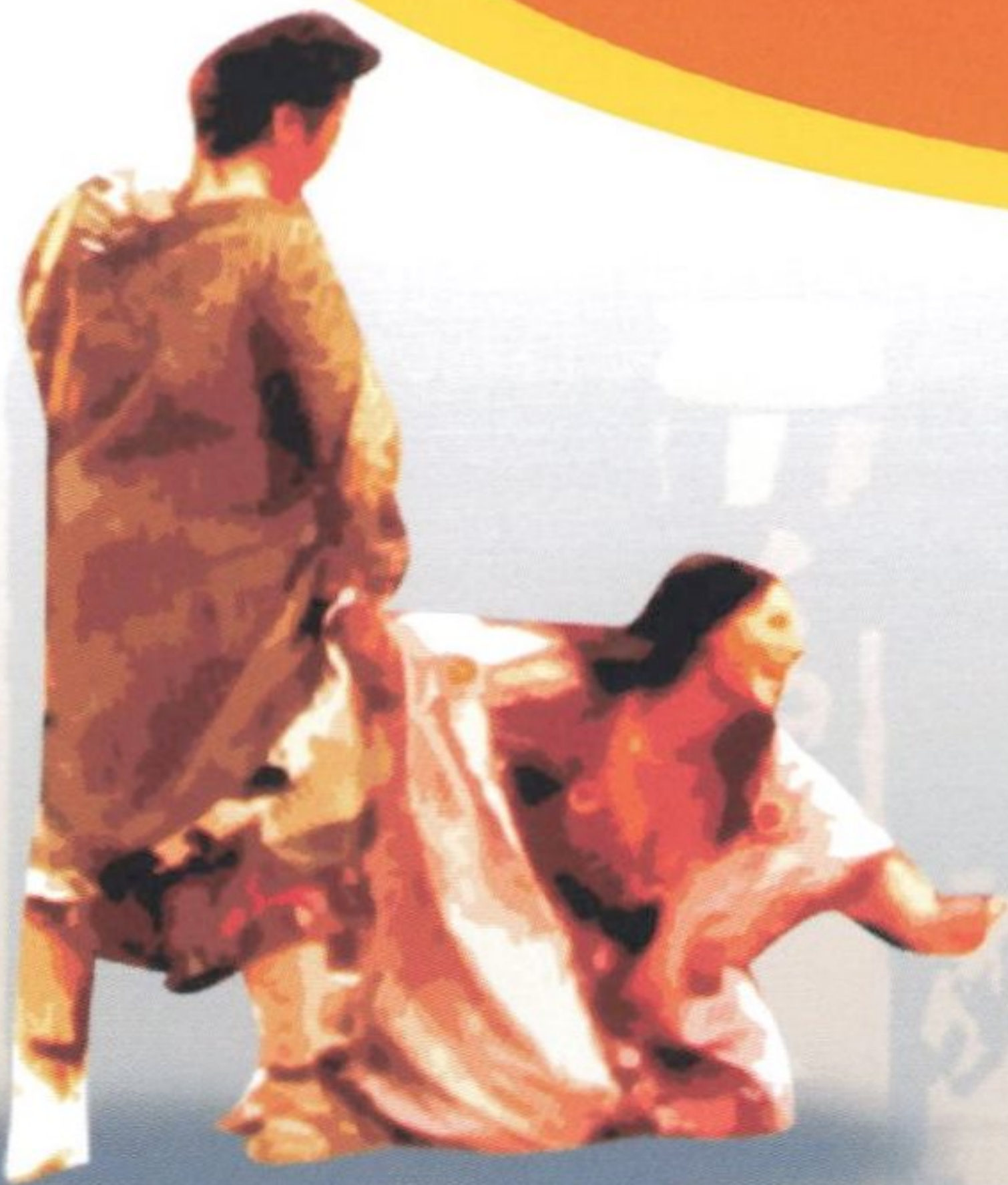
진지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 친구, 날씨, 작업, 심지어 사소한 일까지도 이것은 내가 대하는 모든 일들에 관한 태도다.



인자오양의 조소 작품들



오페라가 어렵다고?!



오페라가 어렵게요~



김 홍 승 | 대구오페라하우스 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오페라과 교수

‘Opera’를 보러 공연장에 온 당신. 객석에 앉아서 O자만 봐도 ‘그런 건 너무 지루해...’라고 하는 당신, 혹시 요약된 줄거리를 한번이라도 읽고 공연을 본 적이 있는지를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자!

필자가 생각해도 오페라는 어렵다. 오페라 뿐 아니라 서양 고전 음악, 통상적으로 말하는 ‘클래식’이라는 것의 발전을 들여다보면 상류사회의 귀족들이 자신들이 즐기기 위한 곡을 만들거나 혹은 전속 음악가에게 ‘만들어라!’ 했고, 그 음악은 다른 귀족들에게 과시용으로 쓰여 졌으니 얼마나 어렵게 만들어졌겠는가... 그리고 많은 오페라들이 현실적이지 못하거나 대중적이지 못하며, ‘우리말이 아니다’라는 생각 또한 오페라가 어렵다는 말을 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오페라 애호가들은 말한다. 오페라는 ‘아는 만큼 보인다’. 거짓말 같다고? 정말이다. 서양 고전 귀족들보다 현재에 살고 있는 우리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오페라는 대중을 위한 오락으로 부상하였다. 현실적이지 못하고 대중적이지 못하다? 그런 지루한 오페라들은 벌써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졌고 지금까지 이어져오지 않고 있다. 우리말이 아니다? 오페라는 대사를 듣고 이해해야만이 극진행이 이해되는 연극이나 영화가 아니다. 오페라엔 음악이 있고 음악은 만국 공통어라 불리지 않는가. 물론 대사를 하나도 모르고도 알 수 있다는 말은 아니

다. 이를 위해 극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자막을 보내주고 팸플릿 안에는 줄거리 혹은 대사가 쓰여져 있다. 한번만 줄거리를 읽고 보면 정말 새로운 느낌의 오페라가 될 것이다.

자! 오페라로 가는 길 첫 번째,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으니 ‘오페라’에 대해 찬찬히 알아보도록 하자.

| 오페라란? |

어떤 긴 이야기를 문학(가사)+음악(곡)+연극(연출)+무용+미술(무대디자인) 등을 총 망라하여 표현한 종합예술이다.

이탈리아에서 발생하여 400여 년에 이르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서양음악의 대표적인 장르중 하나이다. 오페라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첫째, 16세기 말에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음악극의 흐름을 따라야한다. 그러므로 그 이전에 유럽에 있었던 종교적인 음악극은 오페라가 아니다. 또 이 흐름에 속하지 않는 음악극, 창극 같은 것도 오페라가 아니다. 둘째, 대체로 그 작품 전체가 작곡되어 있어야 한다. 즉 모든 대사가 노래로 표현되어야 한다.

| 오페라의 역사 |

◆ 오페라의 기원과 탄생

오페라는 르네상스 말인 1597년에 이탈리아 피렌체의 바르디 백작 저택에서 탄생했다. 바르디 백작 저택에 모인 사람들

은 고대 그리스극의 부활을 목표로 그리스 신화에서 취재한 새로운 음악극 '다프네(Dafne)' (1597)를 만들어서 공연하였다. 이것이 오페라의 효시로 독창을 주로하고 악기 반주가 따르는 단성음악적인 작품인데 악보는 남아 있지 않다. 그러면 현존하는 오래된 오페라는 무언가하니 그 것은 1600년에 상연된 '에우리디체(Euridice)' (대본 G.Caccini, 작곡 J.Peri & O.Rinuccini)(1601)이다. 이 두 오페라가 성공을 거두자 비슷한 작품들이 잇달아 발표되면서 피렌체로부터 이탈리아 전역에 보급되어 오늘날 오페라의 기원이 되었으며 이후엔 베네치아에 보급되어 번창하여 베네치아 악파의 최초의 오페라 작곡가 몬테베르디(C.Monteverdi)가 오페라의 극적 성격을 높였다.

◆ 17세기 오페라

이탈리아의 오페라는 로마, 베네치아, 나폴리 오페라로 발전하였고 후기부터는 유럽 각국으로 전파되었다. 베네치아에는 유럽 최초 공공 오페라극장(1637)이 세워졌다. 프랑스에서는 뤼리(J.Baptist Lully), 라모(J.philippe Rameau) 등이 오페라의 프랑스 양식을 확립하였고 영국에서는 퍼셀(H.Purcell)이 오페라를 작곡하였다. 독일의 여러 궁정에서는 이탈리아 오페라가 크게 유행하고 자국 악극단을 지지하여, 본국 작곡가들이 독일어로 쓴 오페라를 공연하였다. 이 시기의 독일 오페라의 대본들은 대부분 베네치아 시인들의 시를 번역하거나 모방한 것이었다.

◆ 18세기 오페라

18세기는 계몽주의¹⁾가 연극을 규정하게 되는 자유사상가의 세기며 혼돈된 상황을 밖으로 끌어내면서 스스로를 묶어 버리는 합리주의의 세기이다. 나폴리에서 번창하였으며 스카를라티(A.Scarlatti), 페르골레시(G.B.Pergolesi)와 같은 뛰어난 작곡가가 나타났고 페르골레시의 Intermezzo²⁾ '마님이 된 하녀(La serva padrona)' (1732)는 오페라부파(Opera buffa)³⁾의 걸작이었다. 오페라는 로마에서도 번창하였으나 교회에 의해 세속적 오페라는 압박 받았으며 이 시기의 오페라는 벨칸토(Bel canto)⁴⁾ 창법이 발달하여 그 후 점차 명가수의 기교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으로 기울어져갔다.

◆ 19세기 오페라

문화적,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오페라는 프랑스 대혁명 사상을 반영하게 되고 국민적의식의 각성에 기여하였다. 나폴레옹의 원정으로 이탈리아 오페라는 유럽 오페라의 한 부분이 되고 각 나라의 오페라와 교류를 통해 더욱 풍성해졌다. 19세기에 이르자 오페라에도 색채가 짙어졌다. 이탈리아에서는 로시니(G.A.Rossini), 도니제티(G.Donizetti), 벨리니(V.Bellini)의 3대 거성이 이탈리아 오페라 양식을 완성했다. 프랑스에서는 Grand Opera⁵⁾양식이 성행하여 마이어베어(G.Meyerbeer)가 활약했으며 오페라코미크(Opera comique)도 출현하였다. 19세기 중반엔 독일엔 바그너(W.R.Wagner)가, 이탈리아엔 베르디(G.Verdi)가 오페라를 무대예술로 향상시켰다. 바그너는 종합예술작품으로서의 악극을 대성하였다. 대표작은 '탄호이저' '트리스탄과 이졸데' 등이 있고 베르디는 '리골레토' '아이다' 등 많은 걸작을 남겼다. 19세기 말의 이탈리아에는 베리سم(Verismo)⁶⁾의 경향이 나타나서 마스카니(P.Mascani), 푸치니(G.Puccini) 등이 오페라를 작곡하였다.

◆ 20세기 오페라

오페라는 러시아, 미국, 영국 등 여러 국가로 퍼져나갔고, 러시아에 프로코피에프(S.S.Prokofiev)나 쇼스타코비치(D.D.Shostakovich)가 있고 영국에는 브리튼(E.B.Britten)이 현대의 우수한 오페라 작가로 주목되고 있다. 미국에는 많은 오페라가 나왔으나 메노티(G.C.Menotti)가 무대효과가 높은 오페라를 많이 썼다. 또한 현대에는 종래의 미국취미나 국민악파와는 다른 뜻에서 국민적 특색을 가진 작품이 세계 각국에서 쓰여지게 됐다.

1)계몽주의: 18세기 유럽에서 일어난 정신사상. 이성(理性)이 권위의 주요한 요소이자 기본이라고 지지되었음.

2)Intermezzo: 막과 막사이의 짧은 희극. 나중엔 인기를 끌어 점차 극적구성으로 연결되게 되고 이후 이것들을 연결해 공연을 하게 됨.

3)Opera buffa: 이탈리아 희극 오페라를 의미 함.

4)Bel canto 창법: 18세기에 확립된 이탈리아의 가창기법. '아름다운 노래' 라는 뜻이며 이는 극적인 표현이나 낭만적인 서정보다도 아름다운 소리, 부드러운 가락, 훌륭한 연주효과 등에 중점을 둠.

5)Grand Opera: '대형 오페라' 로서 19세기 프랑스적 특징이 담긴 양식으로 서사적이고 역사적인 성질의 비극을 테마로 함.

6)Verismo: 글자 그대로 사실주의를 뜻함. 매일 일상적인 상황 속에 있는 인간이 원초적인 감정의 충동으로 격렬한 행동을 하게 되는 내용의 대본을 선택하는 것.

대동명의 사극 과 단원(檀園) 김홍도

채 경 혜 | 한국판화예술연구원 대표

강한 필력으로 서민들의 삶을 담았던 단원과 여성적인 섬세함과 풍자적인 묘사로 새로운 화풍의 세계를 열었던 혜원!!! 재미있는 것은 드라마 상에서 극과 극을 이루는 이 두 사람이 어진화사를 결정하는 과정을 빌어 극명하게 다른 작품을 그려 보이고, 당대 선배화원들의 평가와 본인들의 작품설명을 통해 일반대중들에게 알기 쉽게 비교분석해 보인다는 점이다.

그들의 실제 삶은 어떠했을까? 실제 두 사람이 교류한 흔적은 역사적으로 찾아볼 수 없다. 모두 화원가문 출신으로 천부적인 소질을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김홍도는 정조의 총애를 받았던 반면 신윤복은 당대 실력을 인정받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속화(俗畵)를 즐겨 그려 도화서를 쫓겨났다는 이야기만 전해질 뿐 역사적 기록도 찾아보기 힘들다.

김홍도는 1745년 김해 김씨 김진창의 증손으로 양반가에서 태어났다. 외가가 대대로 화원을 배출한 미술가 집안이었기에 어려서부터 그림에 뛰어났으며, 일곱 살에 도화서 김응환의 제자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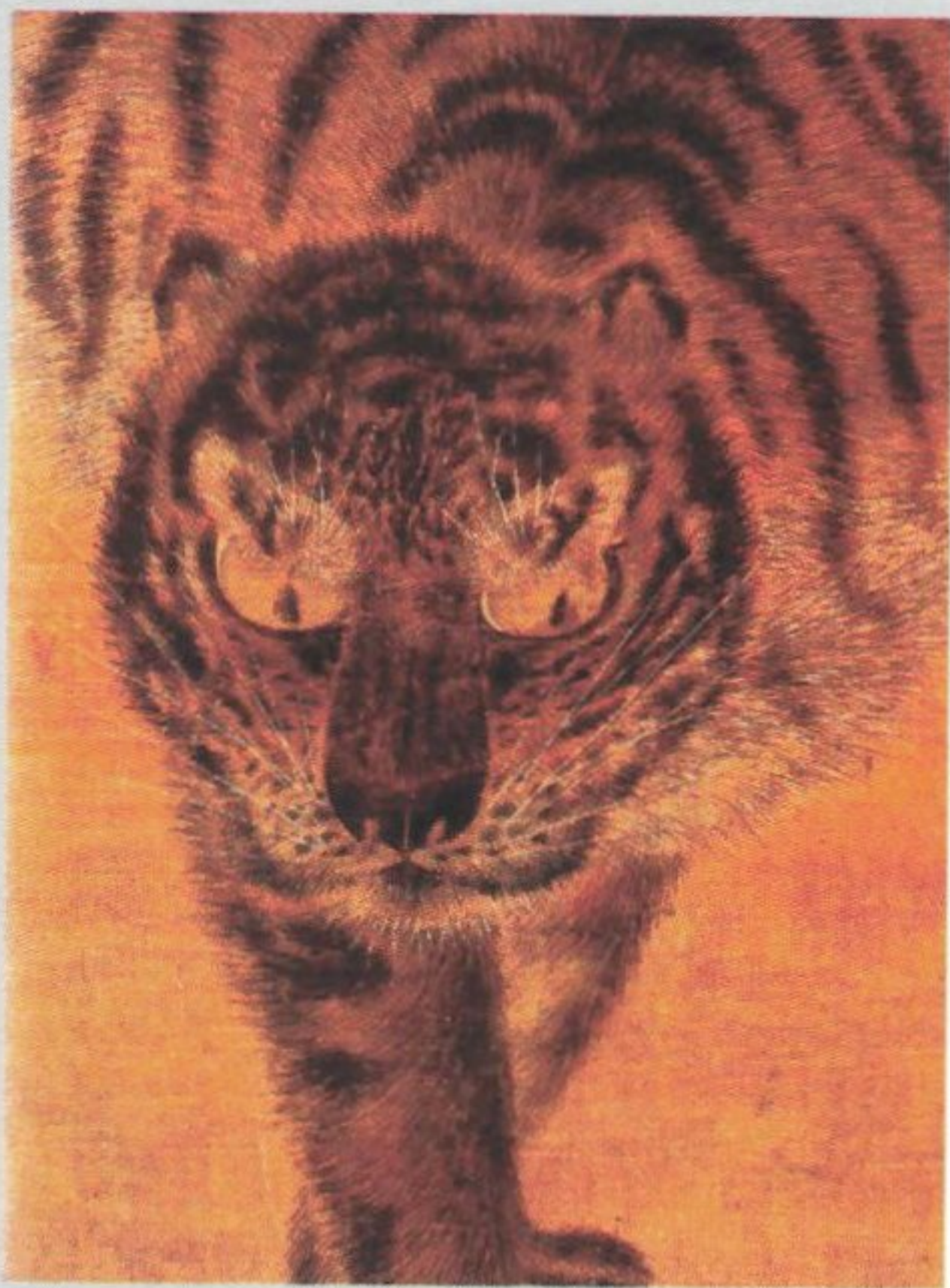
강세황(姜世晃)의 천거로 도화서 화원이 된 뒤 1781년(정조 5년)에 어진화사(御眞畵師)로 정조를 그려 도화서 최고의 영예인 어용화사가 되었다. 1790년 수원 용주사(龍珠寺) 대웅전에 <삼세여래후불탱화(三世如來後佛幀畵)>를 그렸고, 1794년 중인의 신분으로서는 최고 벼슬직인 정6품 연풍현감(延豐縣監)이 되었다. 그리고 이듬해 왕명으로 용주사의 <부모은중경(父母恩重經)>삼화를, 1797년 <오륜행실도(五倫行實圖)>의 삼화를 그렸다. 산수화, 인물화, 신선화(神仙畵), 불화(佛畵), 풍속화에 모두 능하였고, 특히 산수화와 풍속

최근 난데없이 '바람의 화원' '미인도' 등으로 드라마와 영화를 조선시대 화가들이 점령했다.

김홍도와 신윤복은 역사적으로 동시대를 살다간 당대 최고의 풍속화가로 쌍벽을 이루는 인물들이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풍속화는 소재의 선택, 구성, 인물의 표현방법 등에서 현저히 다른 경향을 보여준다. 단원(檀園) 김홍도가 <씨름><서당> 등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소탈하고 익살맞은 서민생활의 한 단면을 주로 다루었다면, 13세 어린 혜원(蕙園) 신윤복은 <미인도> <월야밀회(月夜密會)> 등 남녀 간의 춘정을 그림으로 표현하는데 일가견이 있는 인물이다.

허준, 상도, 대장금 등의 사극 속에 의학, 상업, 음식 등 특정소재를 부각시켜 성공적인 시청률을 끌어 올리면서 유발된 또 다른 신선한 소재의 필요성이 도화서나 화가라는 설정을 가능하게 했을 것이다. 더구나 김홍도와 신윤복은 우리가 자라면서 교과서를 통해 그 이름과 그림이 익숙한 조선시대 화가들 중 가장 대중적인 인물들이다.



김홍도 <송하맹호도 부분>
견본수묵담채, 90.4× 43.8cm
호암미술관 소장



김홍도 <군선도 부분, 1776>
지본수묵담채, 132.8× 575.8cm
호암미술관 소장

화에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며 정조의 총애를 받았던 명실상부한 조선 최고의 화원이었다.

그의 그림은 정밀함에서 출발하여 시원스럽고 힘이 넘친다. 그리기에 쫓기기보다는 특징적인 모습, 더러는 가장 못난 부분이나 모습까지도 그대로 표현하여 사실성 중시란 기초를 항상 잃지 않았으며, 사생을 통한 사실묘사는 시대를 극복하는 그만의 창작세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그의 화풍은 조선시대 판화에도 영향을 미쳐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했는데, 특히 <원행을묘정리의궤(園行乙卯整理儀軌)>,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 등은 그 정밀함과 다양함에 있어 조선판화의 백미라 할 수 있다.

성품 또한 <군선도(群仙圖)>를 그린 것처럼 호방하고 신선과 같은 풍류를 즐기며 살았다고 전해진다.

조희룡이 쓴 <호산외사(壺山外史)>에 따르면 김홍도는 말년에 너무 가난해 조석으로 끼니조차 잇기 어려웠지만 시장에서 본 매화를 사고 싶어 그림을 3000냥에 팔아 2000냥으로 매화를 사고, 나머지 돈으로 지인을 초대해 술잔치를 벌였다 한다.

이러한 김홍도의 작품세계와 성품은 여러 가지 가설을 가져왔다.

김홍도는 서양에서 들어온 새로운 사조를 받아들여 과감히 새로운 기법을 시도하였는데, 용주사의 <삼세여래후불탱화>에서 볼 수 있듯이 색채의 농담(濃淡)과 명암으로 깊고 얇음과 원근감을 나타내는 혼염기법(暈染技法)을 썼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와 함께 세계 3대 초상화가로 불리는 일본의 천재 화가, 샤라쿠와 동일인물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본화단의 신으로까지 추앙받고 있는 도슈사이 샤라쿠(東洲齋寫樂)는 1794년(간세이<寬政>6년) 5월, 혜성처럼 등장했다 사라진 일본을 대표하는 우키요에 판화가다. 아름다운 배우의 모습보다 우스꽝스럽고 엽기적인 과장된 야쿠샤에(役者繪: 요즘의 브로마이드)를 그렸던 인물로 1794년에 등단해 10개월간에

140여 편의 초상화를 제작한 뒤 돌연 종적을 감췄다. 그가 누구인지, 누구에게 그림을 배웠는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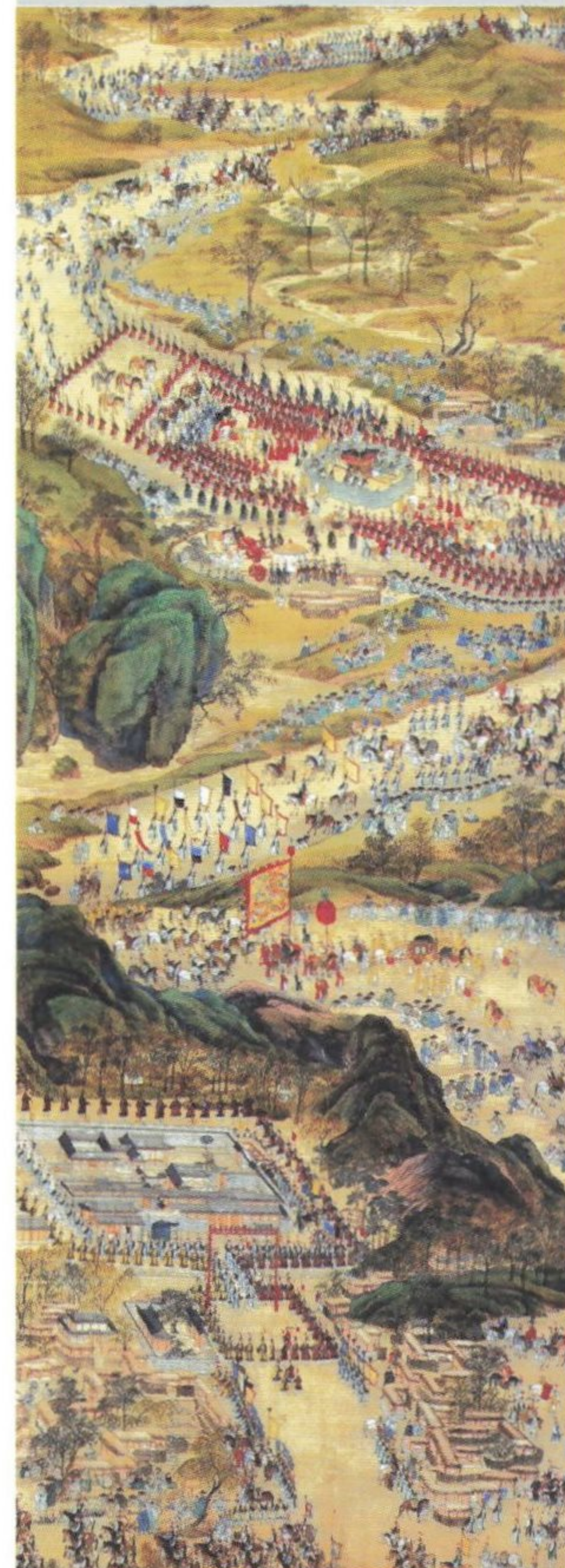
더구나 샤라쿠의 그림에는 일본인이 만들어낼 수 없는 독특한 화풍이 접목되어 있는데 이것은 김홍도 정도의 화가만이 이를 수 있는 독특한 세계라는 것이다.

샤라쿠가 김홍도였을 가능성은 여러 가지 사실로 이야기된다. 샤라쿠의 그림에 나타난 선이 김홍도의 필선과 아주 유사하며, 샤라쿠가 일본에 등단했다는 그 시기에 김홍도는 연풍현감이 된 후 행방이 묘연했으며, 더구나 실제로 그 시기에는 단원의 작품이 없다는 점... 그리고 1764년 이후 30년간 조선통신사의 왕래가 없어 일본상황이 궁금했던 정조는 화약을 비롯한 일본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을 것이라는 시대적 상황과, 1789년에 부산에서 병으로 사망한 스승 김응환을 대신해서 김홍도가 혼자 일본 대마도에 들어가 일본 지도를 모사해와 정조에게 바쳤던 스파이 전력 등의 사실이다.

1996년 9월 16일 일본 아사히TV에서 <또 하나의 샤라쿠>라는 15분 분량의 기획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다. 도슈사이 샤라쿠가 바로 김홍도라는 일부 주장을 한국과 일본을 넘나들며 심층 취재한 것으로, 방송 후 단원 김홍도는 일본인들 사이에 뜨거운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일부학자들은 같은 시기에 조선에서 '증발' 한 김홍도와 일본에 갑자기 등장한 샤라쿠라는 화가를 같은 인물로 추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정조가 김홍도에게 일본의 지형과 군비시설을 살피고 오라고 대마도로 보냈다는 <초등산수습방첩(初登山手習方帖)>의 기록을 들었다.

현재에도 김홍도와 샤라쿠가 동일인물인가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계속되고 있고, 한국과 일본에서 소설, 영화 등의 흥미로운 소재로 선택되고 있다.

사실과는 상관없이 김홍도의 천재성은 국가나 시대를 넘어 무한히 증폭되고 있다.



김홍도<환어행렬도,1795>
견본채색,156.5×65.3cm
호암미술관 소장



도슈사이 샤라쿠(東洲齋寫樂)
<이치가와 에비조가 분한
다케무라 사다노산>

희망을 여는 사람들 볼리아 앙상블

아름다운 음악으로 따뜻한 이웃사랑을 전하는 볼리아 앙상블. 이태리어로 '희망'을 뜻하는 '볼리아' 앙상블은 사회복지단체 '희망을 여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음악자원봉사단이다.

지난 2003년 결성된 볼리아 앙상블은 2003년 1월 장애인시설인 한마음학원을 시작으로 그동안 아동시설, 모자시설, 장애인시설 등 우리사회의 그늘진 곳을 찾아 정기적으로 음악회를 열어오고 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마리아 모자원과 평화의 집, 애아원, 사랑샘 등 6곳에서 사랑의 음악회를 갖는 등 현재까지 총 42차례 공연을 가져왔다.

현재 볼리아 앙상블은 단원 70여명이 이웃사랑을 펼치고 있다.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인 이장호(바이올린), 류재환(비올라)을 비롯해 신성진, 곽승웅(클래식기타), 강희조(플루트), 정금희, 문재경(피아노), 김성엽(테너), 이주영(바리톤), 박은숙(오카리나) 등 전문연주자를 비롯해 대부분 단원들이 음악을 공부한 전공자들이다. 단원들 전체가 모이면 오케스트라 연주도 가능할 만큼 그 전공분야도 단원수 만큼 다양하다. 자신의 연주실력을 이웃에게 들려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라면 볼리아 앙상블의 문은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있다.

“물질적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소외된 우리 이웃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을 여는 사람들'의 사무처장으로 있는 정경호 씨는 그런만큼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아동, 청소년들에게 수준높은 문화적 체험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음악을 통한 정서함양에 큰 의의를 두고 있다.



레크레이션 관련 일을 하고 있는 문정운 씨는 2004년부터 볼리아 앙상블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인의 권유로 볼리아 앙상블과 인연을 맺은 그는 색소폰 전공자이지만 지금은 공연을 이끌어가는 사회자로 큰 활약을 펼치고 있다.

“그 곡에 얽힌 재미나는 이야기나 혹은 CF나 개그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음악을 상기시키는 등 다양한 해설로 관객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도록 공연 전 사전준비를 철저히 한다”는 문정운 씨.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음악회이지만 자신의 이런 노력에 관객들이 즐거워할 때 뿌듯함을 느낀다는

그는 볼리아 앙상블 연주가 있는 매월 목요일은 미리 자신의 개인 일정을 빼놓을 정도로 열성단원이다.

현재 방과 후 수업을 통해 아이들에게 플루트를 가르치고 있는 단원 강희조 씨는 2회 연주회 때부터 참석하고 있는 초창기 멤버이다. 초등학생을 둔 엄마로, 평소에도 아이들의 교육에 관심이 많은 그는 자칫 비뚤어질 수 있는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음악이야말로 정서적 안정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한다.

“새로 들어오는 단원들에게 4년에 한번씩 모이는 올림픽 선수단만큼은 되지 말자는 농담을 하곤 한다”는 강희조 씨. ‘1년에 한 번이라도 소외된 계층을 돌아볼 수 있는 연주자들이 더욱 많아졌으면 한다’는 그는 음악인들의 이웃사랑 실천무대로 볼리아 앙상블이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문의/희망을 여는 사람들 (554-0833, www.himang.or.kr)

까보 베르드(Cabo Verde) I

대서양의 고도(孤島)

‘까보 베르드(Cabo Verde)’



황 윤 기 | 음악 칼럼니스트 · 국악방송 '황윤기의 세계음악여행' DJ

독특한 정서를 담고 음악 애호가들의 가슴을 울리는 세계 여러 지역의 음악들 중에는 역사를 통해 그 정서의 근원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스페인에게 잉카 문명의 주권을 빼앗긴 인디오들의 서글픈 한이 서린 안데스 음악이나 무어인들의 지배를 받았던 포르투갈의 음악 파두가 그렇다.

특히 포르투갈이 식민지로 지배했던 나라들은 역사의 아픔을 겪으며 생성된 한의 정서라기보다는 포르투갈과 비슷한 정서적인 면이 그들의 음악 속에 자리하고 있다. 모잠비크, 앙골라, 기니비사우 등 포르투갈이 식민지로 삼았던 아프리카 국가들을 보면, 흔히 다양한 타악기에 의해 만들어지는 리듬이 아프리카 특유의 색채를 드러내거나 울동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합창을 들려주는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의 음악과는 달리 선율적인 면이 다분히 두드러진다.

섬나라인 까보 베르드 역시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나라로 파두처럼 바다를 숙명으로 여기며 살아 온 사람들의 아련한 정서가 그 음악 속에 담겨 있으며, 지금은 월드 뮤직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세계의 사랑을 받고 있는 '모르나(Morna)'라는 그들만의 매력적인 음악을 지니고 있다.

영어로는 '케이프 베르데(Cape Verde)'라는 명칭으로 사용되는 까보 베르드는 서 아프리카 대륙의 세네갈 해안에서 500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대서양 한 가운데에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이다. 15세기경 포르투갈 사람들이 발견한 이후로 1975년까지 포르투갈의 식민 지배 아래에 있었다. 한 때 아프리카 대륙과 아메리카 대륙 사이를 오가는 노예선의 정박지로 번영을 누리던 시절도 있었지만, 19세기 중반에 들어 노예무역이 쇠퇴하면서 까보 베르드는 점차 황량한 섬으로 변해갔다.

또한 부족한 자원과 황폐한 자연환경 때문에 주기적으로 닥치는 가뭄과 기근은 많은 까보 베르드 사람들을 다른 나라로 떠나게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은 조국에 남아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은 나라이기도 하다. 고향에 남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역시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나라인 덕에

바다와 함께 살아 갈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까보 베르드 고유의 음악 '모르나'에는 이처럼 바다와 떼어놓을 수 없는 까보 베르드 사람들의 삶과 정서가 담겨 있다.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숙명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떠난 사람들과 남아 있는 사람들이 안고 살아가야 하는 그리움,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섬나라 사람들이 겪어야만 했던 가난의 슬픔이 진하게 녹아 있다.

이러한 까보 베르드 사람들이 지닌 한의 정서를 '소다드(Sodade)'라고 하는데, 이는 까보 베르드를 식민 지배했던 포르투갈의 음악 파두에 담겨 있는 '사우다드(Saudade)'라는 정서와도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모르나'의 주된 소재들 역시 사랑, 이별, 그리움, 향수와 같은 통속적인 것들이다. 또 한편으로는 생계형 이민으로 인해 흩어져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고통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노래하기도 한다.

까보 베르드의 음악 '모르나'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독특한 리듬이 지닌 매력이라 할 수 있다. 마치 조용히 일렁이고 있는 파도와도 같은 특별한 느낌의 이 리듬은 명료한 음색의 4현 기타인 까바깡뉴(Cavaquinho)와 기타에 의해 표현된다. '모르나'의 기원은 19세기에 브라질을 오가던 선원들에 의해 파두와 비슷한 유럽풍의 노래인 '모딩냐(Modinha)'가 전해지면서 생겨났다는 설을 비롯해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확실한 것은 포르투갈 '파두'의 정서적인 면과 브라질 음악의 형식적인 부분들이 만나고 있다는 점이다. 바다와 얽힌 숙명적인 그리움이 찰랑거리는 리듬 뒤에 구슬픈 감성으로 자리하고 있는 음악인 것이다.

까보 베르드의 다른 음악 스타일로 아프리카 리듬의 영향이 드러나는 '콜라데이라(Coladeira)'나 '푸나나(Funana)' 등도 있지만 '모르나'만큼 까보 베르드 사람들의 삶과 정서를 한 눈에 보여 주지는 못하고 있다. 다음 글에서는 '모르나'를 통해 까보 베르드라는 이 낯선 나라를 알리고 있는 씨자리아 에보라(Cesaria Evora)를 비롯한 세계적인 뮤지션들을 소개한다.



부산지하철 타고 문화속으로

하루 평균 65만명이 이용한다는 부산의 지하철, 바쁜 도시의 일상을 상징하는 지하철이 최근 들어 새로운 문화생활공간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005년 불과 500여회에 지나지 않던 지하철 문화행사가 2008년 1천 200여회를 넘어서면서 대중교통 수송공간이었던 지하철이 시민들의 문화생활공간으로 거듭난 것이다.

1985년 첫 개통된 부산지하철은 현재 3호선 92개 역사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 역사 중 20여곳이 공연시설과 전시장을 갖추고 있다.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1, 2호선 환승역인 서면역과 1, 3호선 환승역인 연산동역에는 현재 상설공연장이 마련되어 있다. 지난 2001년 8월부터 시작된 서면역 ‘지하철 예술무대’에 이어 2008년 3월부터는 연산동역 내에 두 번째 상설공연장인 ‘에어’가 문을 열면서 클래식과 국악, 국제민속음악, 가요, 전통무용, 비보이, 힙합댄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이밖에도 범일동역, 남포동역, 자갈치역, 하단역, 신평역(이상 1호선), 경성대부경대역, 덕천역, 대연역, 수영역(이상 2호선), 구포역, 강서구청역, 사직역(이상 3호선)에도 비상설 공연장이 마련되어 있어 지역별로 다양한 문화행사를 펼치고 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지하철 2호선 광안역 내에 전문 공연장인 ‘AN아트홀 Red’가 개관되기도 했다. ‘AN아트홀 Red’는 99석 규모의 소극장과 휴게실, 분장실, 조명실 등 첨단시설을 갖춘 전문 공연장으로, 지하철 역사에 전문 상설공연장이 생기는 전국에서 처음이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최근 들어서는 각 역사별로 그 특징을 살린 테마역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옛날 호랑이가 자주 출몰했던 계곡이라는 지명을 가진 1호선 범내골역의 테마는 바로 ‘호랑이’. 지하 1층 대합실과 만남의 장소, 쌈지공원에는 실물과 같은 호랑이 조형상이 설치되어 있으며, 대합실 통로와 벽면에는 각종 호랑이 그림과 공예작품이 전시되고 있다.

3호선 종합운동장역은 종합운동장이라는 특색을 십분 살려 스포츠 테마역으로 조성했다. 역사 내 벽면과 기둥은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와 프로농구 KTF매직윙스의 선수들의 사진과 프로필을 비롯해 구단의 역사, 우승장면 등을 담은 사진으로 단장했다. 앞



으로 경기가 열리는 시즌 중에는 각 구단 홍보부스를 별도로 설치하는가 하면 해당 구단의 프로선수를 지하철 홍보대사로 위촉해 팬사인회 등도 가질 예정이다. 2호선 부암역의 테마는 서예와 공예. 지하 2층 대합실에 마련된 전시장에는 대한민국 문화 예술협회의와 연계해 다양한 서예와 공예품을 상설 전시할 예정이다.

또, 역사별로 마련된 전시관에서는 다양한 주제와 테마로 운영되고 있다. 서면역 전시관에서는 명화 모조작품 30여점이 전시되고 있으며, 부암역과 강서구청역에서는 서예전시관이, 지게골역에서는 발명품 전시관이 운영되고 있다. 또 2호선 사상역과 경성대부경대역 전시관은 인근의 신라대학교, 경성대학교와 연계해 작품전시를 하고 있다.

역사 내 자투리공간을 활용한 썸지공원은 지하철을 찾는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되며, 더불어 역사 내 음악방송과 영어회화방송, 전통차 내 클래식방송으로 지하공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밖에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1호선 시청역, 남산동역 구내에 마련된 무료건강관리코너에서 건강검진도 받을 수 있다. 무료건강관리코너에서는 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상담원들의 안내에 따라 혈압과 혈당, 체성분 검사, 금연클리닉 및 음주관련 건강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연산동역과 온천장역 등 역사를 확대시켜 무료건강검진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매년 11월에는 부산 지하철과 부산지역 젊은 예술꾼이 만나는 풍성한 문화향연이 펼쳐졌다. 바로 '부산 지하철 문화제' 행사인데, 2008년은 11월 7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간 펼쳐졌다. 장소는 연산동역. 첫날인 7일에는 극단 좋다의 마당놀이 '백수의 전설'을 시작으로 벨리댄스, 비보이, 힙합댄스를 선보였으며 마지막 무대는 동의대학교 영화학과 학생들의 뮤지컬 '카바레'로 장식했다. 동양과 서양의 고전이 만난 8일은 오후 3시부터 클래식기타와 국악실내악 연주무대가 마련됐으며, 극단 새벽의 '어머니 날 낳으시고', 극단 자갈치의 '굿거리 트로트' 등 두 편의 연극작품도 무대에 올랐다. 또, 문화제 기간동안에는 연산동역 환승통로에서는 부산지하철 개통 당시부터 지금까지 선보인 지하철 승차권 1,700여점과 경성대학교 사진동호회와 부산교통공사 사진동호회가 함께 준비한 사진전이 함께 열려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부산지하철 예술제가 매년 11월 연산동역에서 펼쳐진다.

2009년 1월 신년맞이 '지하철 예술무대' 공연일정

■ 서면역 예술무대

- 1월 9일(금) 오후 3:00 노래마을 정기공연 및 지하철 시민노래자랑 1월 예선
- 1월 10일(토) 오후 2:00 예하 색소폰고을 공연, 오후 4:00 여성풍물패 '옛소리' 공연, 오후 6:00 푸른가요제 1월 예선
- 1월 15일(목) 오후 2:00 부산광역시 실버예술단 공연
- 1월 16일(금) 오후 3:00 '노짱 장지은' 팝송 콘서트
- 1월 17일(토) 오후 2:00 해운대 색소폰동네 공연, 오후 6:00 푸른가요제 1월 예선
- 1월 23일(금) 오후 3:00 주부가요열창 입상팀 '소리바다' 공연, 오후 4:00 정태일 색소폰 연주
- 1월 24일(토) 오후 4:00 마리아선교무용단 '전통문화 한마당', 오후 5:00 해미 르예술단 공연, 오후 6:00 푸른가요제 1월 예선
- 1월 30일(금) 오후 2:00 음악세상 정기공연, 오후 4:00 호호 문화예술단 공연
- 1월 31일(토) 오후 2:00 락 페스티벌, 오후 4:00 YOUNG MAGIC 페스티벌, 오후 5:00 힙합 & 댄스 페스티벌, 오후 6:00 푸른가요제 1월 결선, 오후 7:00 블루웨이브 콘서트

■ 연산동역 예술무대

- 1월 7일(수) 오후 6:00 보라색소폰 정기공연
- 1월 17일(토) 오후 5:00 소리샘 색소폰동호회 정기공연
- 1월 21일(수) 오후 6:00 보라색소폰 정기공연(초대가수 김선주)
- 1월 24일(토) 오후 3:00 민들레색소폰 정기공연

■ 덕천역 만남의 장소

- 1월 3일(토) 오후 6:00 뮤직필드 색소폰동호회
- 1월 10일(토) 오후 5:00 빅벨색소폰 정기공연
- 1월 17일(토) 오후 6:00 뮤직필드 색소폰동호회
- 1월 28일(수) 오후 2:00 정무연 무용예술단 정기공연

■ 수영역 만남의 장소

- 1월 3일(토) 오후 5:00 소리샘 색소폰동호회 정기공연

■문의 | 부산레일아트(816-9991, www.railart.info)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46회 정기연주회 2009 신년음악회

대극장 1월 9일 금요일 오후 7:30

매년 전석 매진 행진을 기록하고 있는 부산시립 교향악단 2009년 신년음악회.

지휘자 서현석이 객원지휘하고 부산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이지화, 크로스오버와 팝페라 등과 차별되는 새로운 음악을 들려주는 New Classic Artist 남성성악 앙상블 더 필(The Feel)이 출연하는 2009년 신년음악회는 코플랜드 '보통사람을 위한 팡파레'를 시작으로 신년음악회 주요 레퍼토리 J. Strauss의 폴카 '트리치 트라치', 폴카 '사냥', 오페레타 박쥐 서곡과 함께 번스타인 '캔디드' 서곡 등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코플랜드/보통사람을 위한 팡파레

번스타인/ '캔디드' 서곡

사라사테/찌고이네르바이젠

슈트라우스/ '트리치-트라치' 폴카, '사냥' 폴카, '박쥐' 서곡 등 수곡

· 지휘/서현석

· 협연/이지화(바이올리니스트), New Classic Artist The Feel(테너 양승엽, 테너 김철수, 바리톤 김창돈, 바리톤 고영호)

■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빈 소년 합창단 신년음악회

대극장 1월 11일 일요일 오후 6:00

매년 1월이면 전국을 천사의 목소리로 가득 메우는 빈 소년 합창단 부산연주회.

세계적인 작곡가 슈베르트와 하이든이 단원으로

활동하며, 베토벤이 직접 반주를 하기도 한 500년 전통의 빈 소년 합창단은 7살에서 15세의 변성기 이전의 소년들로 구성된 세계적인 합창단이다. 모차르트, 슈베르트, 하이든, 브루크너 4개팀으로 구성된 빈소년합창단은 3팀이 해외 연주여행을 다니는 동안 나머지 한 팀은 오스트리아 빈에 남아 1498년 이래 전통을 지키며 호프부르크 궁에 있는 교회 일요일 미사에서 합창 봉사를 한다.

프로그램

칼 오르프/오 운명의 여신이어

모리스 뒤뤼플레/온전히 아름다우신 마리아

생상스/귀하신 주님 (아베 베룸 코르푸스)

요한 슈트라우스/트리치 트라치 폴카

로시니/저녁 산책 등 수곡

· 우정출연/부산진구어린이합창단(지휘/박훈)

■ 관람료 R석 55,000원 · S석 44,000원 · A석 33,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 문의 예은예술기획(632-6904)

부산 MBC 창사 50주년 기념 제 1093회 MBC 목요일음악회 신년음악회

1월 8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장윤성



김동욱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력 있는 유망 주들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MBC 목요일음악회 신년음악회.

부산 MBC 창사 50주년을 기념해 장윤

성이 지휘하는 동아 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동아대학교 출신 음악인들이 2009년 신년의 환희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아르디티/입맞춤

스트라우스/봄의 소리 아리아

모차르트/오보에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KV 314

한국민요/박연폭포

포퍼/헝가리 광시곡 작품 68

림스키 코르사코프/스페인 기상곡 작품 34

베토벤/합창환상곡

· 지휘/장윤성 · 객원악장/김동욱

· 반주/동아필오케스트라

· 합창/동아성악가협회 합창단

· 독창 및 독주자/오보에 황지영, 첼로 이명진, 피아노 곽윤희, 소프라노 박희정, 김혜경, 남순천, 메조소프라노 전연숙, 테너 장익주, 김종석, 이흥득, 바리톤 이창룡, 박대용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사)문화도시네트워크(760-1494)

장익주(011-565-7665)

창작뮤지컬 '오! 당신이 잠든 사이'

1월 8일-18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중극장



2005년 겨울 초연공연 전석 매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평균 유료 객석점유율 82%를 기록하며 공연 신

화를 이어가고 있는 창작뮤지컬 '오! 당신이 잠든 사이'.

제 12회 한국뮤지컬대상에서 최우수작품상, 극본·작사상을 수상하며 대극장 공연을 압도하는 짜임새 있는 소극장 뮤지컬

의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오! 당신이 잠든 사이'는 전병욱, 진선규, 김재범, 성두섭 등 한국뮤지컬의 차세대 유망주를 배출하며 가능성 있는 배우들의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가톨릭 재단의 무료 병원, 모두가 잠든 사이 602호의 척추마비 반신불수 불박이 환자 최병호가 감쪽같이 사라지면서 최병호의 행적을 추적해나간다.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마법같은 무대, 초연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라이브 연주는 배우,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며 공연의 느낌을 한껏 끌어올린다.

관람료 R석 40,000원 S석 3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SM기획(1600-1602)

박성호의 창작춤판 '점(點)-채취'

1월 14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새암춤회 대표를 역임하고 현재 경성대학교 겸임교수로 우리 춤을 전승하고 있는 박성호가 이끄는 박성호 무용단의 창작춤판.

박성호는 부산 KBS 무용콩쿨 한국창작무용 부분 금상, 부산민속관 주최 전국 전통경연대회 무용부분 1등 종합 차석상을 수상했다.

작품

無에서의 시작-탄생
충돌과 결합의 생성
변화와 변이
팽창
無에로의 사라짐-영원
· 안무/박성호

출연

하연화, 박성호, 이동용, 박광호, 장영진, 신상규, 김여운, 정은주, 최혜림, 하원경, 심부근, 진현주, 남진아, 김희리, 장미란, 김지선, 양하나, 백혜인

관람료 R석 40,000원 · S석 20,000원 · 학생 10,000원

문의 박성호(010-7197-4102)

신년축하 성가의 밤

1월 15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우리 사회와 가정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는 신년 축하 성가의 밤.

소프라노 정대자, 유명숙, 테너 김종석, 우경준, 강재권이 지휘하는 성복교회 찬양대 등이 출연한다.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2009 우리춤 산책

소극장 | 1월 15일-16일 목-금요일 오후 7:30

우리 문화의 우수성이 담긴 우리 전통춤의 아름다움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우리춤 산책 2009년 무대.

평소 실제 강습을 통해 평소 우리춤의 기량을 갈고 닦아온 부산시립무용단원들의 빼어난 춤 솜씨와 기량을 선보일 이번 무대에서는 승무, 살풀이춤, 태평무 등의 중요무형문화재 뿐 아니라 삼고무, 설장고춤, 산조춤 등 다채로운 우리 춤을 한자리에서 공연, 한국 춤의 정수를 골고루 맛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한다.

첫째날

처용무(춤/최의옥), 도살풀이춤(춤/김동숙), 고성오광대 중 문동복춤(춤/허태성), 동래한량무(춤/김기원, 박상용), 산조춤(춤/윤은하)

둘째날

삼고무(춤/서정숙, 정진희, 도살풀이춤(출연/김주령), 강선영류 태평무(춤/서현미), 입춤(춤/김주연), 살풀이춤(출연/오숙례), 설장고춤(춤/이현주A, 이현주B)

■ 관람료 균일 5,000원

■ 문의 부산시립무용단(607-6118)



박성완 공정배 박성희

1월 한낮의 유U; 콘서트 신년음악회 'Happy New Year'

대극장 | 1월 20일 화요일 오전 11:00

국제신문 연중기획 한낮의 유U; 콘서트 서른한번째 만남.

부산대학교 박성완교수가 지휘하는 뉴프라이

임 오케스트라의 환상적인 선율과 왕성하게 활동 중인 바리톤 공정배, 국악인 박성희의 아름다운 하모니로 기축년 신년을 맞는 환희를 음악으로 함께 나눈다.

프로그램

희망의 새 아침/드볼작 신세계교향곡 제 4악장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희망의 새 출발/라데츠키 행진곡(J. 스트라우스), 천지여 천지여(이병욱 곡), 배 띄워라(박범훈 곡), 희망의 나라로(현제명 곡)

기축년의 노래/거문도 뱃노래(민요), 투우사의 노래 (G. 비제)

역동의 행진과 춤/행진곡, 왈츠, 댄스, 종곡(D. 쇼스타코비치) 등 수곡

· 지휘/박성완(부산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교수)

· 연주/뉴프라이임오케스트라 · 피아노/노경원

· 국악인/박성희 · 바리톤/공정배

■ 관람료 균일 15,000원(국제신문구독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30% 할인)

■ 문의 국제신문(500-5222)



칸타빌레 콘서트 시즌 3

대극장 1월 17일 토요일 오후 7:00

'노다메 칸타빌레를 위한 오마주'라는 부제로 올려졌던 칸타빌레 콘서트 시즌 1, 2공연에 이은 칸타빌레 콘서트 시즌 3.

괴짜 천재 음대생들의 이야기 '노다메 칸타빌레'에 삽입된 클래식 명곡들을 들려주는 칸타빌레 콘서트는 차세대 지휘자 최수열, '폭발력 있는 연주와 관객을 휘어잡는 카리스마의 소유자'라는 평을 받고 있는 19세의 젊은 바이올리니스트 김영욱(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사 3학년), 모스크바 국제청소년 쇼팽 피아노 콩쿠르에서 1위, 2001년 아시아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 그랑프리를 수상, '고귀한 카리스마'를 발산하는 피아니스트 이효주와 이프라 니만 국제콩쿠르 1위(2005년), 동아음악콩쿠르 1위(2006년)의 주인공인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윤을 악장으로, 서울대학교 음대와 한국예술종합학교, 파리국립음악원을 포함한 해외유학파로 결성된 라이징스타 오케스트라가 부산을 찾는다.

프로그램

차이코프스키/바이올린협주곡 1악장(Vn김영욱 협연)

라흐마니노프/피아노 협주곡 전악장(Pi 이효주 협연)

베토벤/교향곡 7번 전악장

■ 관람료 R석 55,000원 · S석 44,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 문의문의 (주)유니스컴퍼니(053-474-8284)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44회 정기연주회 2009 신년음악회 희망 2009, 굿 GOOD!

중극장 1월 21일 수요일 오후 7:30

2009년 풍요와 건강, 안녕을 기원하며 좋은(GOOD)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부산시립국

악관현악단 희망굿판 2009년 신년음악회.

열정적인 지휘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박호성이 지휘봉을 잡고, 2009년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는 이광수 명인의 소원굿, 자연스러우면서도 곳곳하고 강렬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박종선 명인의 산조굿, 민족 특유의 정서와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출하고 있는 이호연 명창의 소리굿, 원초적인 생명력과 움직임을 표출하는 민족음악원의 사물굿으로 2009년 신년무대를 연다.

프로그램

박범훈/신년맞이 신명굿 GOOD 굿을 위한 창작관현악 '신내림'

이광수(구성)/이광수 명인의 소원굿 GOOD 2009년 축원덕담을 위한 '비나리'

박위철(편곡)/박종선 명인의 산조굿 GOOD 박종선류 산조를 위한 협주곡 '금당'

김희조(편곡)/이호연 명창의 소리굿 GOOD 한오백년, 청춘가, 태평가, 뱃노래, 자진뱃노래 등

· 지휘/박호성(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 협연/이광수와 민족음악원(비나리, 사물놀이), 박종선(아쟁), 이호연(경기민요)

■ 관람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 문의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



강재권

김종석

프로그램

P.P.빌혼/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말룻테/주기도문

황의구/주님께서 세운 교회

S.아담스/거룩한 성

J.M.마틴/평생토록 찬양 등

출연

정대자, 유명숙(이상 소프라노), 김종석, 우경준(이상 테너)

서면교회 글로벌중창단, 성복교회 찬양대 (지휘/강재권)

이현주(피아노)

관람료 일반 10,000원 · 중고생 5,000원 · 장애우 무료

문의 부산예술기획(016-9317-4728)

아트뱅크코리아 Presents Rising World Star Series 3 한수진 바이올린 독주회

1월 20일 오후 7:30 중극장



8세에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해 세계무대에서 라이징 스타로 주목받고 있는 한수진 바이올린 독주회.

세계적인 명 바이올리니스트인 자칼 브론(Zakhar Bron)을 사사 한 한수진은 옥스퍼드 대학의 오리얼(Oriel College)에서 음악학을 수학하고 현재 영국 왕립음대(Royal Academy of Music)

에서 대학원과정을 이수중이다.

한수진은 15세때 매 포즈난에서 5년마다 열리는 비에나프스키(Wieniawski) 국제콩쿠르에서 최연소 참가자로서 한국인으로 콩쿠르 역사상 처음으로 2등 입상과 함께 음악 평론가상과 폴란드 국영방송 청취자가 뽑은 최우수상을 포함한 부상을 받았다. 한수진은 그 외에도 독일 바이로이트 국제콩쿠르에서 1등상, Tunbridge Wells International Young Concert Artists Competition 1등상, London Symphony Orchestra Scholarship 등을 수상했다.

프로그램

슈베르트/그랜드 듀오 가장조

포레/소나타

비에나프스키/폴로네이즈, 작품 4 라장조 등 수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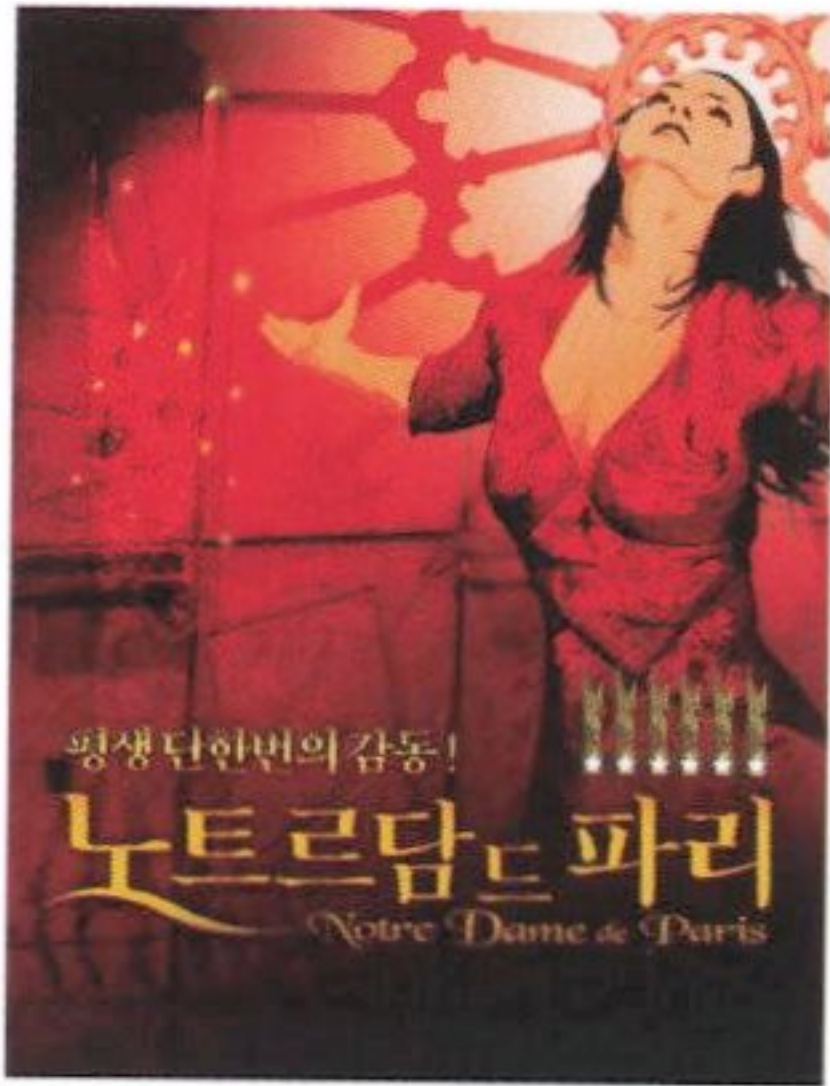
관람료 균일 20,000원

문의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시민회관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1월 9일(금)-18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7:30, 일요일 오후 5:00
(일요일 공연없음) 대극장



전 세계 1,000만 이상 관객이 관람한 프랑스 최고의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한국어 라이선스 공연.

집시여인 에스메랄다를 사랑한 노트르담 대성당의 곱추 종치기 과지모도의 비극적 사랑을 그린 노트르담 드 파리는 아름다운

우리말로 개사된 장중한 아리아와 예술적인 무대, 현대 무용과 브레이크 댄스, 아크로바트 등이 더해진 화려한 안무가 볼거리를 더해준다.

· 출연/문혜원, 오진영(에스메랄다), 윤형렬(과지모도), 서범석, 김성기(프롤로), 김태형, 최수형(페뷔스), 김수용, 박성환(그랭구아르) 외

관람료 VIP 120,000원 · R석 100,000원
S석 80,000원 · A석 60,000원
B석 40,000원

문 의 시민회관(630-5200)

가족뮤지컬 피노키오

1월 10일-11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소극장

사람이 되고 싶은 나무인형 피노키오의 모험을 그린 가족뮤지컬.

· 각색, 연출/염미정

· 출연/최창석, 윤미, 신추미, 박경순, 김현주, 황상철, 김도현 외

관람료 균일 15,000원(예매시 3,000원 할인)

문 의 문화예술기획 세종(050-2134-2580)

신나는 가족 뮤지컬

피터팬과 요정 텅커벨

1월 17일 토요일 오후 12:00, 2:00, 4:00,
18일 일요일 오후 1:00, 3:00 소극장

피터팬과 함께 떠나는 신나는 모험과 환상의 세계가 화려한 무대와 특수조명 속에 펼쳐지는 가족뮤지컬.

관람료 균일 15,000원(예매시 3,000원 할인)

문 의 티켓나무(1566-7275)

그림자음악회 마술피리

1월 29일(목)-2월 1일(일) 평일 오전 10:30,
11:40, 토요일 오후 12:00, 2:00, 4:00,
일요일 오후 1:00, 3:00 대극장

빛과 그림자가 만난 천재작곡가 모차르트의 환상 오페라 그림자극 '마술피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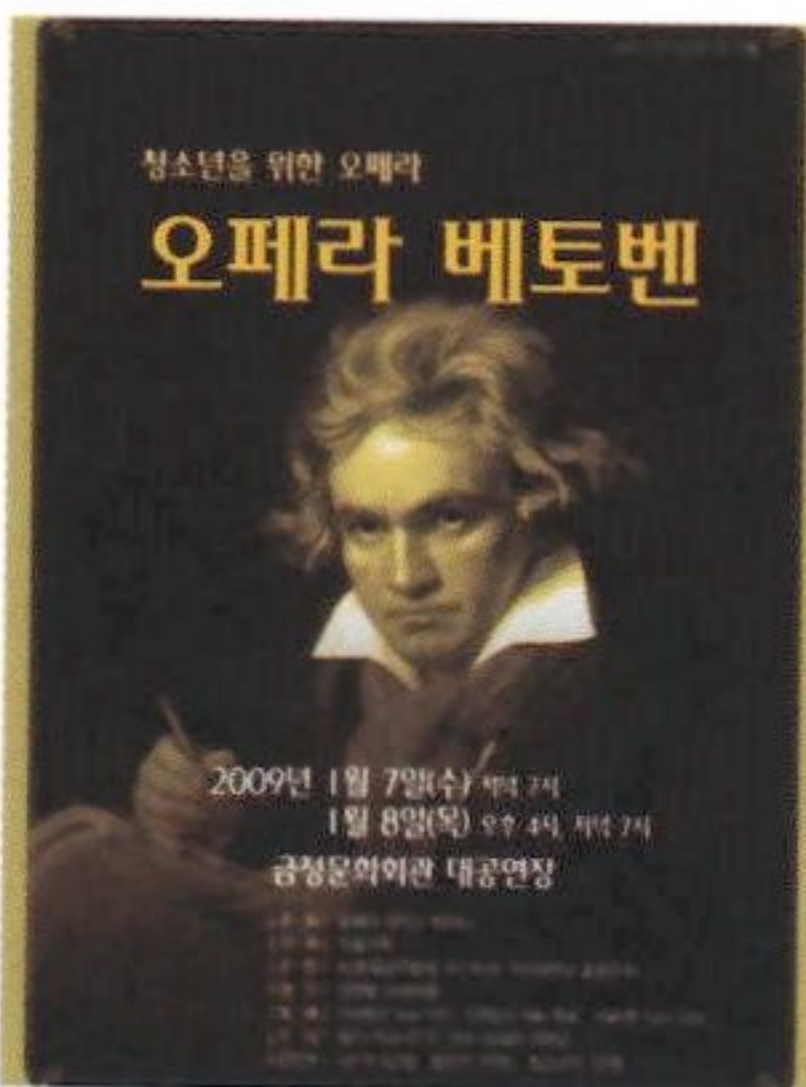
관람료 균일 15,000원

문 의 동그라미그리기(818-1772)

금정문화회관

청소년을 위한 오페라 히어로 베토벤

1월 7일 수요일 오후 7:30,
8일 목요일 오후 4:00, 7:30 대공연장



불굴의 의지로 가난과 병마, 세상의 억압을 이겨냈던 악성 베토벤의 삶을 그린 오페라 '히어로 베토벤'.

· 연출, 대본/김성경

· 지휘, 편곡/박성완

· 출연/바리톤 최대우(베토벤), 연극배우 양지웅(베토벤 망령),

바리톤 오세민(하이든), 테너 이민호(슈베르트)

· 연주/오페라 제작소 밤비니 오케스트라

· 합창/오페라 제작소 밤비니 합창단

관람료 VIP 30,000원 · 일반 20,000원

청소년 10,000원

문 의 오페라 제작소 밤비니(703-0737)

김윤영 귀국 첼로 독주회

1월 9일 금요일 오후 7:30 대공연장

경성대학교 음악학과와 러시아 국립 마그니따고르스



크 글린카 음악원(최고연주자과정 및 앙상블)을 졸업한 첼리스트 김윤영 독주회.

김윤영은 마그니따고르스크 챔버 단원을 역임하고 현재 영남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수석으로 있다.

프로그램

멘델스존/피아노와 첼로를 위한 소나타 내림나장조 작품 45

미야스코프스키/피아노와 첼로를 위한 소나타 가단조 제 2번 작품 81

아렌스키/바이올린과 첼로, 피아노를 위한 트리오 라장조 작품 32

· 특별출연/김성은(바이올린), 김성희(피아노)

· 반주/신진희

관람료 초대

문 의 예술기획(0505-700-9798)

인형극 뽀로로와 생일선물

1월 10일-11일 토-일요일 오후 12:00, 2:00,
4:00 대공연장

호기심 많은 펭귄 뽀로로와 그의 친구들이 펼치는 신나고 재미있는 가족뮤지컬.

갑자기 사라진 무지개를 찾아 떠나는 뽀로로의 신나는 모험을 그린 '무지개 도둑'과 친구의 생일파티를 준비하면서 벌어지는 한바탕 소동을 그린 '생일선물' 등 두 작품을 선보인다.

관람료 R석 25,000원 · S석 20,000원

(예매시 5,000원 할인)

문 의 극단 예인(1544-38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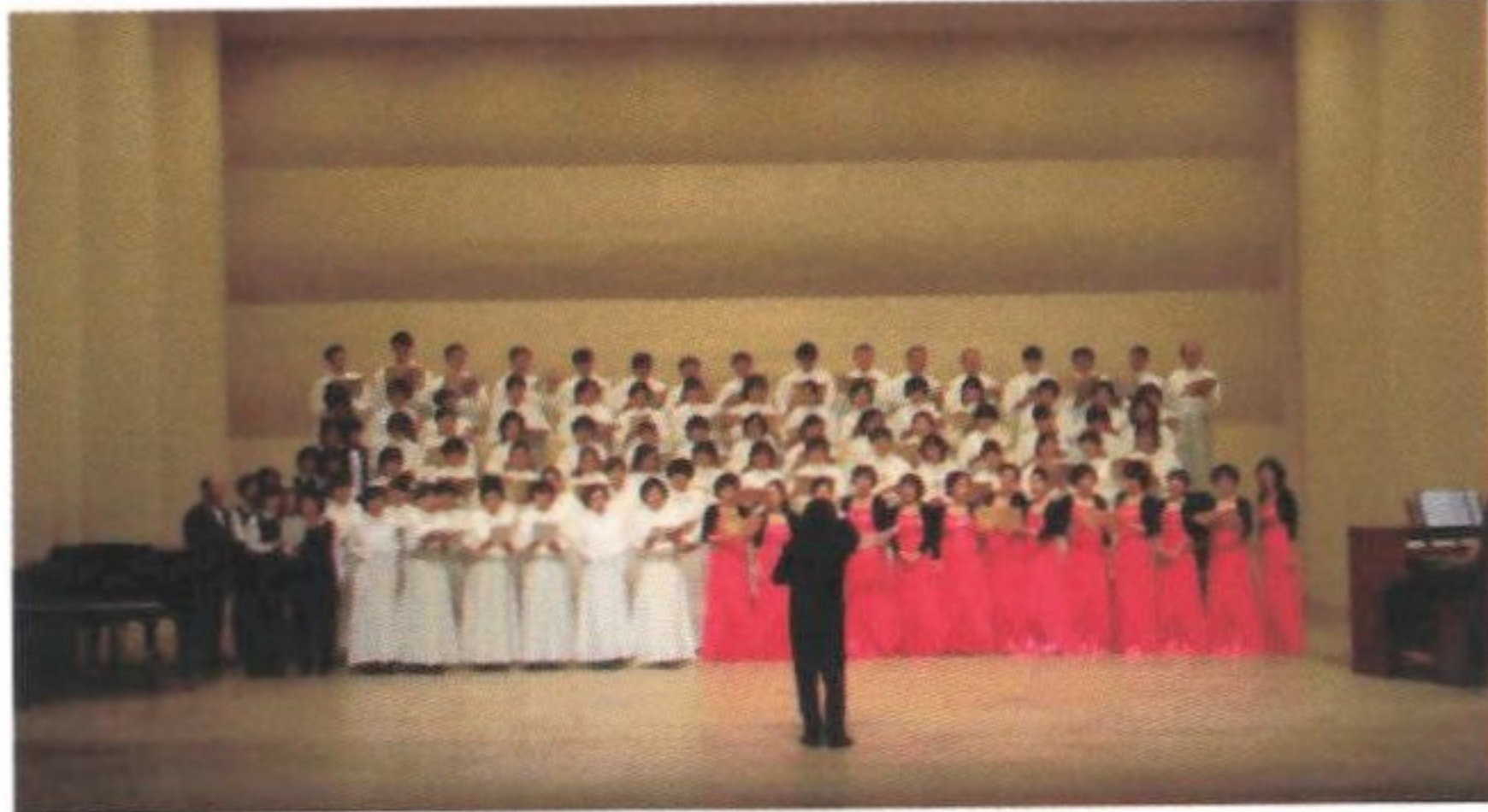
부산가톨릭음악교육원

제 18회 정기연주회

1월 14일 수요일 오후 7:30 소공연장

공연의 준비에서 감동까지
그 시작은 박스애드컴과 함께...
☎ 633-2655

문화·예술 공연의 홍보도우미
지하철 포스터 광고



전문적인 성음악 교육을 통해 교회음악가를 양성하는 부산가톨릭음악교육원의 18번째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슈만/페달피아노를 위한 4개의 스케치 작품 58 제 3번
임석수/하느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프랑크/프렐류드, 푸가와 바리에이션 작품 18 등 수곡
관람료 초대
문 의 부산가톨릭음악교육원(517-8241)



부산가야금연주단 신년음악회 세운철강과 함께하는 사랑 담은 가야금

1월 18일 일요일 오후 6:00 대공연장

부산대학교 김남순 교수를 단장으로, 27인의 전문연주인으로 구성된 부산가야금연주단 신년음악회.

부산가야금연주단은 2005년 창단공연을 시작으로 4차례의 정기공연과 제 10회 부산국제영화제 폐막식, 한·일 수교 40주년 기념 빅콘서트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전통 및 창작연주곡 등을 비롯해 가야금병창, 오페라 아리아 모음, 영화음악, 국악가요 등 다양한 연주곡을 들려준다.

- 해설/김남순 · 지휘/이수은
- 노래/강호중(추계예술대 교수), 박성희(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 춤/한송희, 이미경

문 의 부산가야금연주단(018-575-7968, 010-5596-01540)

금정수요음악회 제 28회 테너 장원상 독창회

1월 21일 수요일 오후 7:30 소공연장

한양대학교와 이태리 로마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 프랑스 빌 다브레 국립음악원(최고연주자과정), 니데르



메이어 국립음악원(최고연주자 및 전문연주자 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중국 길림예술대학 객원교수, 경성대학교 교수로 있는 테너 장원상 독창회.
부산을 노래한 작곡가 19인의 창작가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제갈삼/만월대
정원상/금정산의 아침
김윤하/을숙도 사연
김동조/해운대 찬가 등 수곡
· 피아노/강남길(경성대학교 초빙교수)
관람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 의 금정문화회관(519-5651)

해운대 문화회관

해운대구소년소녀합창단 정기공연

1월 10일 토요일 오후 5:00 대공연장

1999년 창단 이후 매년 정기연주회를 가져온 해운대구소년소녀합창단 정기공연. 이번 무대에서는 우리가곡 및 민요, 동요 등 다채로운 연주곡을 들려준다.

- 지휘/이창균
- 찬조출연/밀양소년소녀합창단

관람료 무료

문 의 해운대구청 관광문화과(749-4062)

홍영은 바이올린 독주회

1월 13일 화요일 오후 7:30 대공연장

동아대콩쿠르 1등, 한국음악교육협회 콩쿠르 현악 3등, 제 6회 글로벌콩쿠르 1등상을 수상한 해강고등학교

1학년 홍영은 독주회.

프로그램

크라이슬러/시실리안느와 리구동
비탈리/사콘느
생상스/바이올린 협주곡 제 3번 1, 2, 3악장
관람료 무료
문 의 손금희(011-573-6857)

달빛 콘서트

의학박사 김진목과 함께하는 2009 건강콘서트

1월 14일 수요일 오후 7:00 대공연장

해운대구를 중심으로 '새로운 공연문화'를 내걸고 출발한 달빛콘서트 두 번째 무대.

파라다이스 클리닉 원장으로 있는 의학박사 김진목과 함께하는 2009 건강콘서트가 펼쳐진다.

- 출연/김진목(색소폰), 김상호(기타), 이재영(베이스), 김홍민(드럼), 이대형, 김민정(보컬)
- 게스트/김강수(가수), 이성구(교수)

관람료 균일 10,000원

문 의 달콘기획(701-7072)

부산의 소극장

창작뮤지컬 Love is... 두 번째 이야기

2008년 11월 18일(화)-2009년 1월 4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6:00, 일요일 오후 4:00(월요일 공연없음) 공간소극장

사랑의 퍼즐을 맞추어 나가는 두 남녀의 알콩달콩 사랑이야기가 경쾌하고 감미로운 멜로디를 따라 펼쳐지는 창작뮤지컬.

- 연출/김만중
- 출연/이지혜, 김성현, 방두환, 김호준

관람료 일반 30,000원 · 청소년 20,000원

문 의 공간소극장(611-8518)

국제수준 음향 연주홀 녹음홀

글로벌아트홀

1, 2, 3월 대관접수중

첨단 시스템의 녹음 음반제작

로마아카데미 지휘 디플롬 과정 접수중

음악영재교육 대안학교 **사론국제음악원**

찬양사역사 음악목사 목사 **교육배출기관**

사론찬양신학교 봄학기 학생모집 중

국제수준 어쿠스틱음향 연주홀 · 녹음홀
607-603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 3동 1243-21(3호선 미남역 1번 출구에서 5분)
http://www.glovil.org E-Mail:glovil@paran.com
Tel. 051-505-5995/051-504-5994

GloVil Art Hall



카툰뮤지컬 두근두근

2008년 12월 5일(금)-2009년 1월 18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
 공휴일 오후 2:00, 6:00(월요일, 1/1일 공연없음,
 12/29일 오후 8:00, 12/30일 오후 7:00,
 10:00, 12/31일 오후 5:00, 9:00)

사랑과 혁명 소극장

울렁울렁, 콩닥콩닥, 쿵쿵 등 만화에서나 나올만한 의
 성어와 의태어로 사랑의 설렘을 그린 창작뮤지컬.

· 작, 연출/정세혁

· 출연/우영욱, 노양진, 이윤희, 하진주, 서성화 외

관람료 균일 30,000원(화-목요일 공연 예매시 30%
 할인, 금-토요일 공연 예매시 10% 할인, 일·
 공휴일 공연 예매시 20% 할인)

문 의 에스엠기획(1600-1602)



연극 바쁘다 바빠

2008년 12월 12일(금)-2009년 1월 11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
 공휴일 오후 3:00, 6:00(12/24, 12/31 오후
 7:00, 10:00, 월요일 공연없음) 공간소극장

가난 앞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가족을 통해 따뜻한
 감동과 웃음을 전하는 연극 '바쁘다 바빠'.

· 작, 연출/이길재

· 출연/신준영, 이미애, 이혜진, 김종국, 김도윤, 이세
 현, 조가비, 김현정

관람료 일반 30,000원 · 청소년 20,000원

문 의 공간소극장(611-8518)

드라마 콘서트 고물밴드 이야기...어?

1월 3일(토)-18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30, 일요일 오후 2:00, 5:30(월
 요일 공연없음)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빈 유리병에 빨대를 꽂은 뽁뽁이 피아노, 크고 작은
 주사기로 화음을 넣는 주사기 피리, 폐기된 사각의 각
 목을 음계에 맞춰 절단해 연주하는 각목 마림바 등 버
 려진 고물악기로 연주하는 이색무대.

관람료 R석 40,000원 · S석 30,000원

문 의 SM기획(1600-1602)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화요음악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가톨릭센터 소극장

클래식을 비롯해 국악에서 대중음악까지 다양한 장르
 의 음악을 상세한 해설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가톨릭
 센터 화요음악회.

■6일 동의대 대학원 반주전공 기획 신년음악회

'로맨틱 소나타의 밤'

동의대학교 대학원 피아노 반주 전공자들과 관현악
 전공자들이 함께하는 앙상블 무대.

프로그램

그리그/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제 3번
 브람스/피아노와 첼로를 위한 소나타 제 1번
 포레/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제 1번 등

■13일 뉴프라이밍 오케스트라와 함께 '비발디-사계'

2006년 창단 이후 젊은 오케스트라다운 패기와 열
 정, 힘이 넘치는 웅장한 사운드로 부산 및 경남지역에

서 폭넓은 활동을 펼쳐온 뉴프라이밍 오케스트라 연주회,
 비발디의 '사계' 전곡을 들려준다.

· 협연/동민칭, 하은영 · 해설/장진규

■20일 베이스 유형광 독창회 '슈베르트-겨울나그네'

부산대학교 음악과 및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원, 독일
 쾰른음대 대학원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베이스 유형
 광이 들려주는 슈베르트의 '겨울나그네' 전곡 무대.

관람료 일반 10,000원 · 청소년 5,000원

문 의 가톨릭센터(441-3788)

70분간의 연애 2nd -One Night Stand

1월 9일(금)-2월 8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30, 7:30, 일요일 오후 3:00,
 6:00(월요일, 1/26일 공연없음, 1/25일 오후
 6:00, 1/27일 오후 3:00, 6:00) 가마골소극장



2005년 초연 이후 로맨
 틱 코메디의 대표적인 작
 품으로 자리매김한 연극
 '70분간의 연애' 두 번째
 이야기.

5년을 사귀 애인에게 버
 림받은 서른 한살 주인공
 윤희와 오랜 시간 그녀의
 곁을 맴돌았던 대학후배

명식의 이야기를 통해 현대인들의 사랑과 연애에 대한
 담론을 현실적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 작, 연출/성기웅

· 출연/이화룡, 레지나

관람료 균일 2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가마골소극장(245-0042)

FT 아일랜드-2nd Island 부산

1월 17일 토요일 오후 7:00 KBS부산홀

책사랑 53년 대형서점 지하1~5층 엘리베이터운영

전국최고 종합지도(지구본)센터 (과장광고 아님)

국산 지구본 최상품만 취급/외국산 지구본 최상품취급

- ▶ 국 산 : 소·중·대·초대형, 위성, 지세, 행정 다양함 20%할인
- ▶ 외국산 : 세계적 매출 독일 스텔라노바 소·중·대 초대형

공중부양, 뜨고, 돌고, 한·영지명 출시중 색상분변 선물용최고

지도의 모든것! 종류가 많아서 일부만 안내합니다.

- ▶ 전국, 시, 도별지도 전국교통관광지도, 국내, 외국관광객자
- ▶ 전국전자지도 PC로 지적, 지번, 도면 확대 축소 연결자유
- ▶ 경매, 부동산, 건설 설계, 시공, 통신, 유통, 택배,
- ▶ 금융기관, 업무용, 기타 각종업체 정부발행지도판매
- ▶ 지형도 당지도센터 취급의 1:3000지도를 연결코팅
- ▶ 부동산업계, 기타, 회사, 사용용도에 따라 소중, 대형코팅

대형지도, 지구본 매장 관람을 환영

새 소식!

문우당서점 지도센터에서

세계지도계 초유

한국발명특허획득

국기 있는 지도(특허품), 국기 없는 지도(2종)

- 대형 금박 고급 액자 세계지도(사무실, 학교)
- 일반형 금박 고급 액자 세계지도(사무실, 학교)
- 대형, 코팅 벽걸이용 세계지도(사무실, 학교)
- 일반형코팅벽걸이용 세계지도(학교, 가정)

★ 학생, 일반공공케이스 / 날장지도(값 5,000원)

since 1955

문우당

MUN WOO DANG BOOK STORE
 www.munbook.co.kr

문우당서점

Tel: 241-5555(대표)
 245-2714(공연문의)
 자갈치시장 정문이 보이는 아이탑 앞
 (미니를 건너편)

각종 공연예매처

CGV10% 적립 통도환타지아 경주월드
 할인 판매처

관람료 R석 66,000원 · S석 55,000원

A석 44,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주)AN시티(1644-4484)



글로벌 행복음악회 설날에 가족과 함께

1월 25일 일요일 오후 5:00 글로벌 아트홀

글로벌아트홀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마련한 사랑의 자선음악회, 기악 연주 및 독창, 합창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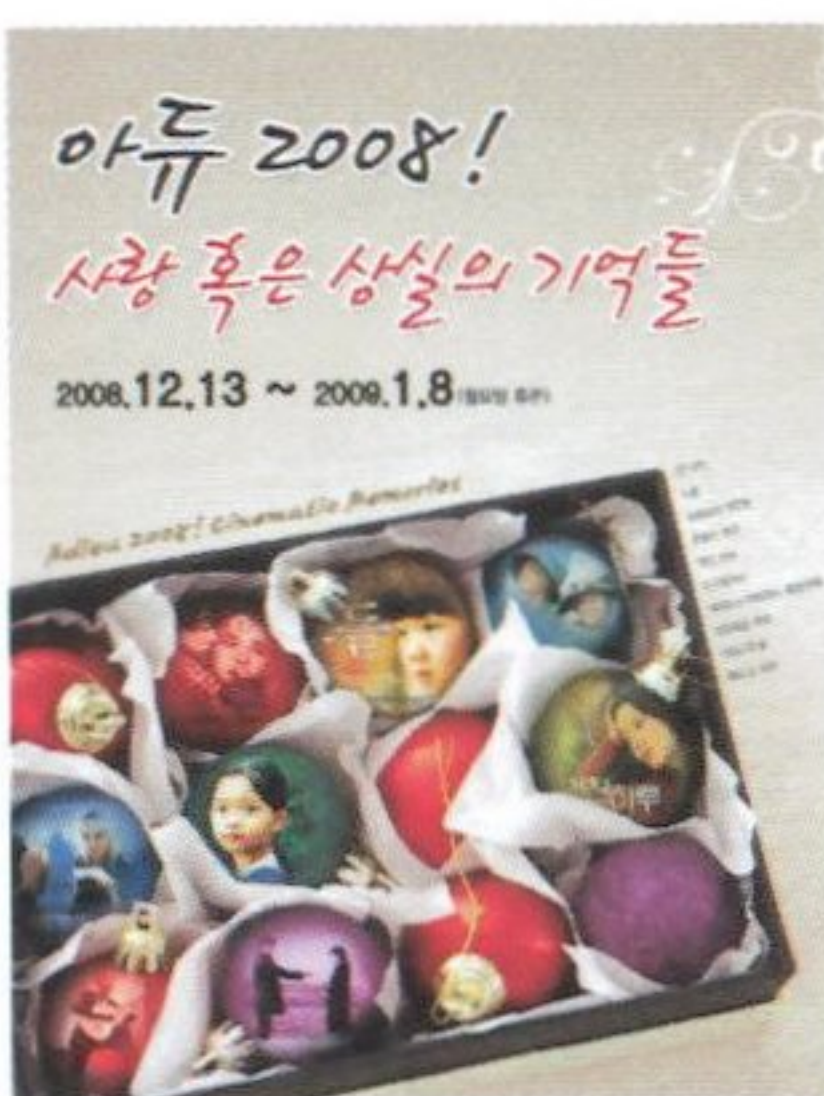
관람료 무료

문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시네마테크부산

아듀 2008! 사랑 혹은 상실의 기억들

2008년 12월 13일(토)~2009년 1월 8일(목)
오전 11:00, 오후 1:00, 3:10, 5:20, 7:30
(월요일 휴관)



2008년 개봉한 예술영화 중 시네마테크 부산에서 미 개봉된 영화를 대상으로, '사랑 혹은 상실의 기억들'이란 주제로 관객과 평단의 눈길을 사로잡은 영화 10편이 상영된다.

상영작

굿바이(감독/다키타 요지로), 누들(감독/아일레트 메나헤미), 라벤더의 연인들(감독/찰스 댄스), 러블리 로즈(감독/스테판 거저), 멋진 하루(감독/이윤기), 미스트리스(감독/카트린느 브레아), 부에노스 아이레스 탱고카페(감독/미구엘 코헨), 자유로운 세계(감독/켄 로치), 피아노의 숲(감독/고지마 마사유키), 해피 고 럭키(감독/마이크 리)

관람료 균일 4,000원

문의 시네마테크 부산(742-5377, cinema.piff.org)

장철과 홍콩남아들

1월 9일(금)~29일(목) 관람시간 미정(월요일 휴관)

1960~70년대 홍콩영화의 황금기를 장식하며 시대를 풍미했던 감독 장철을 비롯 이한상, 호금전 감독의 홍콩 무협영화를 소개하는 특별상영전.

관람료 균일 5,000원

문의 시네마테크 부산(742-5377)

행사

몸속 대 탐험전

2008년 12월 11일(목)~2009년 2월 15일(일)
부산전시컨벤션센터

· 관람시간/오전 10:00~오후 7:00

관람료 일반 12,000원 · 어린이 13,000원

문의 (주)함께하는친구들(747-5118)

신나는 뽀로로 놀이동산 시즌2

2008년 12월 13일(토)~2009년 2월 15일(일)
부산전시컨벤션센터

· 관람시간/오전 10:00~오후 5:00

관람료 일반 10,000원 · 어린이 12,000원

문의 (주)오콘(02-3218-9204)

키즈랜드

2008년 12월 20일(토)~2009년 3월 1일(일)
부산전시컨벤션센터

· 관람시간/오전 10:00~오후 7:00

관람료 균일 11,000원

문의 (주)씨앤제이엔터테인먼트(740-8800)

2008 이영란의 밀가루 체험놀이 가루야 가루야

2008년 12월 25일(목)~2009년 2월 15일(일)
부산전시컨벤션센터

· 관람시간/오전 10:00~오후 5:00

관람료 균일 15,000원(예매시 5,000원 할인)

문의 (주)KNN(850-9442)

제 79회 부산시울림 시낭송회

1월 14일 수요일 오후 7:0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관람료 무료

문의 김예강(019-516-1867)

전시

동삼동패총전시관 2008년 특별사진전 한강의 대홍수가 깨운 암사동 유적

2008년 9월 9일(화)~2009년 3월 1일(일)
동삼동패총전시관

한반도 중서부지역 신석기시대 사람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암사동유적(사적 제 267호)의 역사와 유적, 출토유물 등을 살펴볼 수 있는 특별사진전.

관람료 무료

문의 동삼동패총전시관(403-1193)

부산-인천 도시박물관 공동기획특별전 철도로 떠나는 근대도시 기행

2008년 11월 25일(화)~2008년 3월 1일(일)
부산근대역사관

근대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철도 개통으로, 각 각 남쪽과 서쪽의 종착역이었던 부산과 인천, 두 도시의



레스토랑 모짜르트

예약문의 051-622-1456
부산문화회관 영빈관 맞은편 1층
리셉션·생일잔치·각종모임 예약 받습니다.
(10인~100인)

1930년대 풍광을 조명한 특별기획전.
관람료 무료
문 의 부산근대역사관(253-3845~6)



플로르 비알라 작 'No.133'

The Masterpiece展

2008년 12월 9일(화)-2009년 1월 31일(토)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에비뉴엘 라운지

현대미술작가 줄리안 오피, 빌 베클리, 플로르 비알라, 칸디다 회퍼, 군터 우에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개관 1주년 기념전.

문 의 가양갤러리(752-7830)

소장품 기획 '풍경'展

2008년 12월 12일(금)-2009년 2월 22일(일)

용두산미술전시관

부산시립미술관 소장작품 중 부산항을 중심으로 부산 근교의 풍경을 소재로 한 작품 전시.

문 의 용두산미술전시관(244-4228)



최영훈 작 '장미'

꽃그림 4인전

2008년 12월 15일(화)-2009년 1월 15일(월)

임화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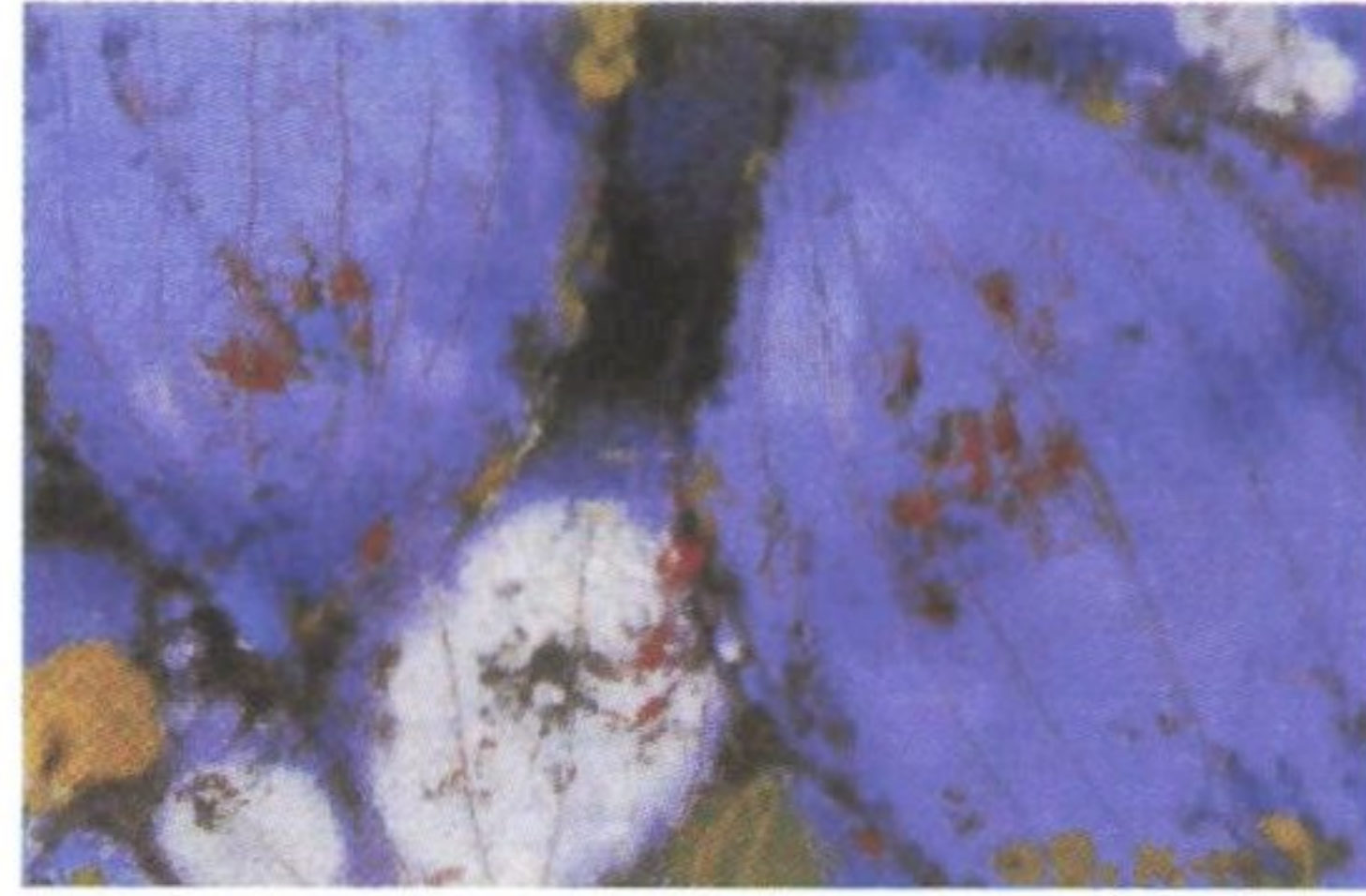
· 참여작가/성백주, 기국현, 최영훈, 백중기

문 의 임화랑(744-2665)

한국여류작가회 즐거운 선물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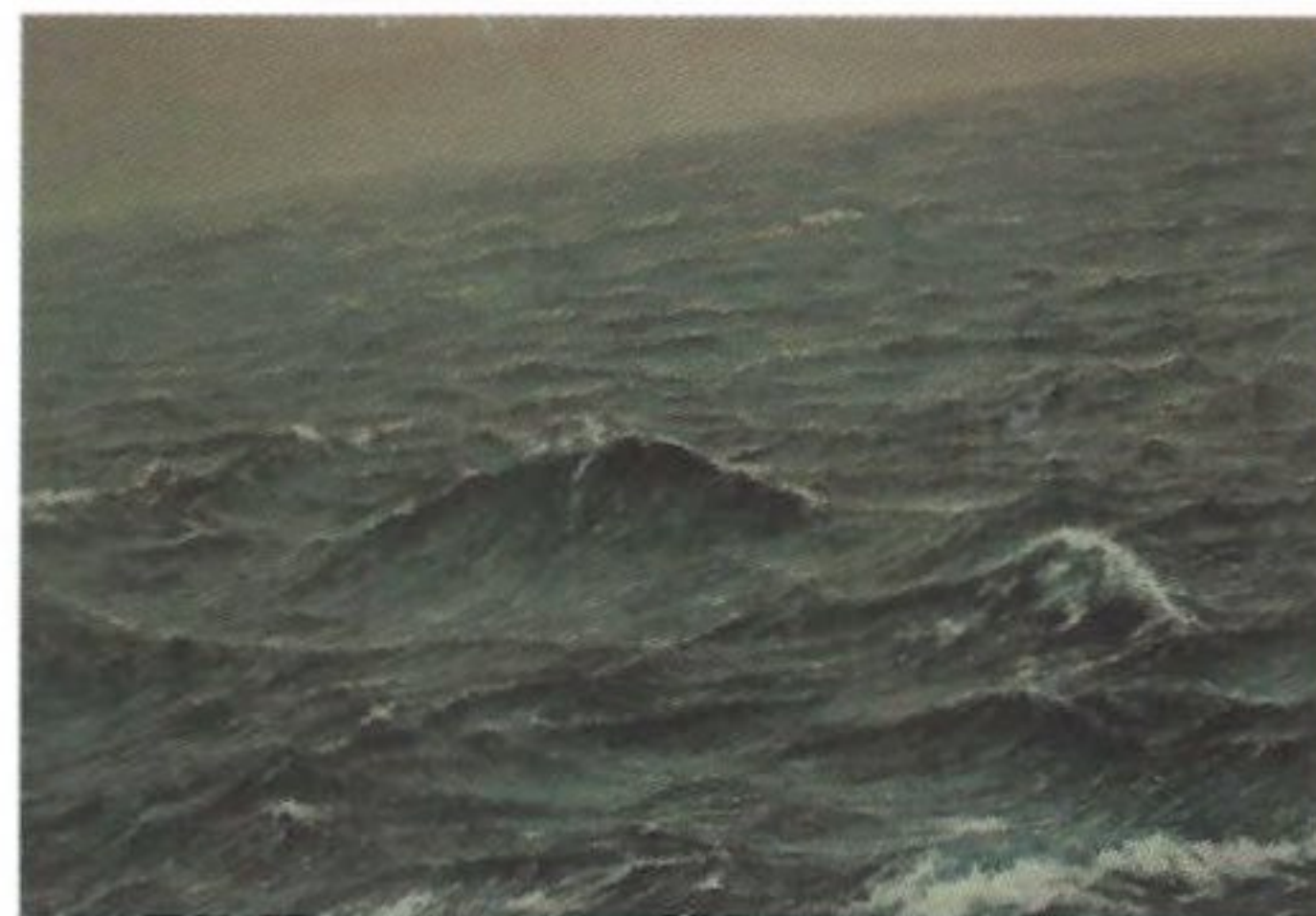
2008년 12월 15일(월)-2009년 1월 15일(목)

맥화랑



김혜정 작

문 의 맥화랑(722-2201)



김경환 작
'Solitude'

김경환 개인전(A.U. Ready?)

2008년 12월 20일(토)-2009년 1월 20일(화)

오픈스페이스 배

심해(深海)를 소재로, 바다의 깊이가 주는 공포를 통해 삶의 심연을 투사하는 김경환 작품전.

문 의 오픈스페이스 배(724-5201)



이재호 작

The Party:人 C.J.L.L.P.S

2008년 12월 20일(토)-2009년 1월 31일(토)

가양갤러리

문 의 가양갤러리(752-7830)

부산의 발견 2008 _Boosting the Mid 2008

2008년 12월 20일(토)-2009년 2월 22일(일)

부산시립미술관 3층 소전시실

작가정신과 작품으로 말하는 허리세대 작가들을 조명하는 특별기획전.

확고한 조형언어 속에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추구해 온 작가 박재현, 심점환, 왕경애, 하용석 등 4인의 작품을 소개한다.

문 의 부산시립미술관(744-2602)



박정희 작
'Paris France'

박정희 사진전 'Gestalt Prayer'

1월 5일(월)-1월 30일(금)

부산프랑스문화원 전시실

국립순천대학교 사진예술학과 교수로 있는 박정희 사진전.

문 의 부산 프랑스문화원(465-0306)

경성전통복식연구회 10주년 특별전 선비, 세상을 만나다

1월 12일(월)-1월 16일(금)

부산광역시청 제 2, 3 전시실

옆주름이 아름다운 고려 말기 액주름포부터 시대별 다른 형태의 철릭, 학자들의 대표적인 복식인 심의 등 조선 말기까지의 남성전통복식 20여점을 선보인다.

문 의 경성전통복식연구회 회장 유창오(017-551-1655, cafe.naver.com/lovehanbok)

대학교 동등한(학점은행제) 교육기관
Guide for Your Dreaming BUSANCONSERVATORY

부산콘서바토리음악원

오페라과 신설

- ▶ 작품 :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
- ▶ 모집일시 : 수시모집
- ▶ 모집대상 : 오페라에 관심있는 분은 나이, 학력 제한없이 누구나 가능
- ▶ 수업내용 : 오페라 악보연습, 연기
- ▶ 수업시간 : 매주 토요일 오후 1시~3시

학위과정 학사/전문학사/복수(타전공)학위(매년 2월, 8월중에 모집)
성악(뮤지컬), 피아노, 관현악, 작곡, 지휘, 교회음악(CCM)

유학과정 조기, 단기, 장기유학(유럽 전지역)
본원 자매학교 - 체코 브르노콘서바토리

입시원 예중, 예고, 대학, 편입, 대학원 등 철저한 개인위주의 시스템

취미과정 모든 과정 개인레슨

부산콘서바토리아트홀 대관 - 연주회, 마스터클래스, 세미나 등

부산콘서바토리음악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2동 595-61
BUSAN CONSERVATORY 사무실 TEL. 051-501-3999
부산콘서바토리아트홀 FAX. 051-505-3999
BUSANCONSERVATORY Art Hall 홈페이지: www.bscon.co.kr
부산콘서바토리음악원 대연분원 T. 629-910(경성대전철역 2번 출구, 푸르지오 상가 2층)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1987년 신년음악회 실황음반

· 지휘/헤르베르트 폰 카라얀(1987년, DG)

한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해를 시작하는 연말연시가 되면 오케스트라들도 이 뜻 깊은 시기를 함께하기 위해 음악회를 개최하는데 바로 제야음악회와 신년음악회가 그것들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음악팬들의 관심을 많이 끄는 음악회라면 바로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신년음악회일 것이다. 빈 필하모닉의 신년음악회는 세계 100개국이 넘는 나라의 TV방송을 통해 1억 가구 이상, 약 10억 인구가 시청하기 때문에 이제는 일반인들에게도 매우 익숙한 음악회가 되었으며 이는 오스트리아 최고의 문화상품이기도 하다.

지금으로부터 67년 전인 1941년 지휘자 클레멘스 크라우스에 의해 첫발을 내디디게 된 신년음악회는 1955년부터 1977년까지 빈 필하모닉의 악장이었던 지휘자 빌리 보스코프스키가 이끌었고 그의 은퇴이후 로린 마젤이 1986년까지 지휘했다.

그 이후 신년음악회 음악감독제가 폐지됨에 따라 해마다 다른 지휘자가 신년음악회를 지휘하게 되었는데 누가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의 신년음악회를 지휘하느냐 하는 문제는 음악계 최대의 관심사가 되곤하였다.

주빈 메타, 리카르도 무티, 클라우디오 아바도, 카를로스 클라이버, 세이지 오자와, 니콜라우스 아르농쿠르, 마리스 안손스, 조르류 프레트르 등 세계 정상급의 지휘자들이 거쳐간 이 신년음악회는 항상 최고의 연주를 들려주었지만 필자가 가장 좋아하는 신년음악회는 1987년에 열린 카라얀 지휘의 신년음악회이다.

요한 슈트라우스 부자(父子)와 요제프 슈트라우스의 음악들로만 꾸며진 이날 연주는 그때까지 내려오던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만이 가지는 비엔나 음악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세계음악계의 황제였던 카라얀의 비범함이 덧붙여진 인상적인 음악회이다.

이제는 DVD로도 즐길 수 있어 보다 생생하게 그날의 감동을 느낄수 있는데 죽기 불과 2년 전의 그의 모습은 노쇠함이 역력하지만 처음 등장할

때 부터 느껴지는 카리스마와 관객들의 환호, 우아하면서도 절도 있고 유려하며 풍만한 음악은 오직 카라얀의 음악에서만 들을 수 있는 매력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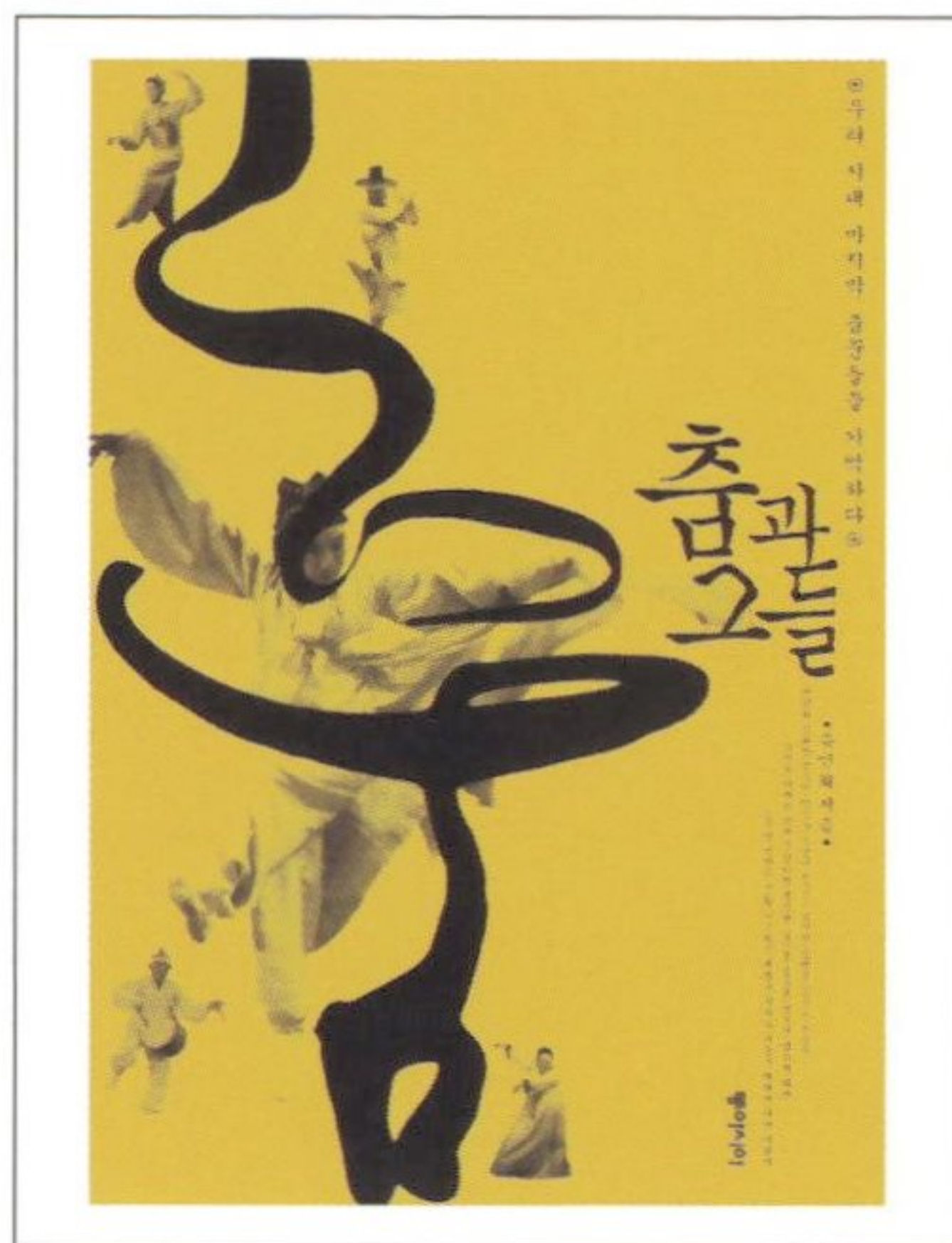
‘집시 남작’ 서곡을 비롯한 왈츠의 우아함과 폴카의 경쾌함과 익살스러움, ‘박쥐’ 서곡의 투명하고도 행복감에 젖어들게 하는 여유로운 뉘앙스 등등 희망 가득한 새해를 맞이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비엔나 음악의 향연은 너무나 아름다우며 그중에서도 이날 연주의 백미는 소프라노 캐서린 배틀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들려주는 봄의 소리 왈츠일 것이다. 흑진주 캐서린 배틀의 치즈케익처럼 부드러우면서도 화려한 기교로 들려주는 이 연주는 이날 음악회의 하이라이트이며 아마도 카라얀의 빈필 신년음악회를 이야기할 때 꼭 언급될 명연이라 생각된다.

DVD로 감상하면 더욱 재미있는 장면이 많은데, 캐서린 배틀을 바라보는 거장 카라얀의 사랑스런 표정, ‘피치카토 폴카’의 마지막에 카라얀의 놀라는 듯한 익살스러운 표정, ‘천둥과 번개’ 폴카에서 카라얀이 총에 맞아 쓰러지는 듯한 연기, ‘무궁동’ 폴카에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음악에 지겨워하며 멈추게 하는 장면 등 카라얀의 재치와 연기력이 더욱더 이 영상을 즐겁게 한다.

카를로스 클라이버의 리드미컬하고 화려한 두 번(1989년, 1992년)의 신년음악회, 원전 악보를 사용하여 화제가 되었던 니콜라우스 아르농쿠르의 두 번(2001년, 2003년)의 신년음악회도 기억에 남는 연주지만 필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신년음악회는 아직까지도 1987년의 이 신년음악회이다.

카라얀과 더불어 음악계의 양대 산맥을 이루었던 레오나드 번스타인이 신년음악회를 지휘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이 아직도 못내 아쉽다. 이 연주가 성사되었다면 또 하나의 기념비적인 신년음악회가 되었을텐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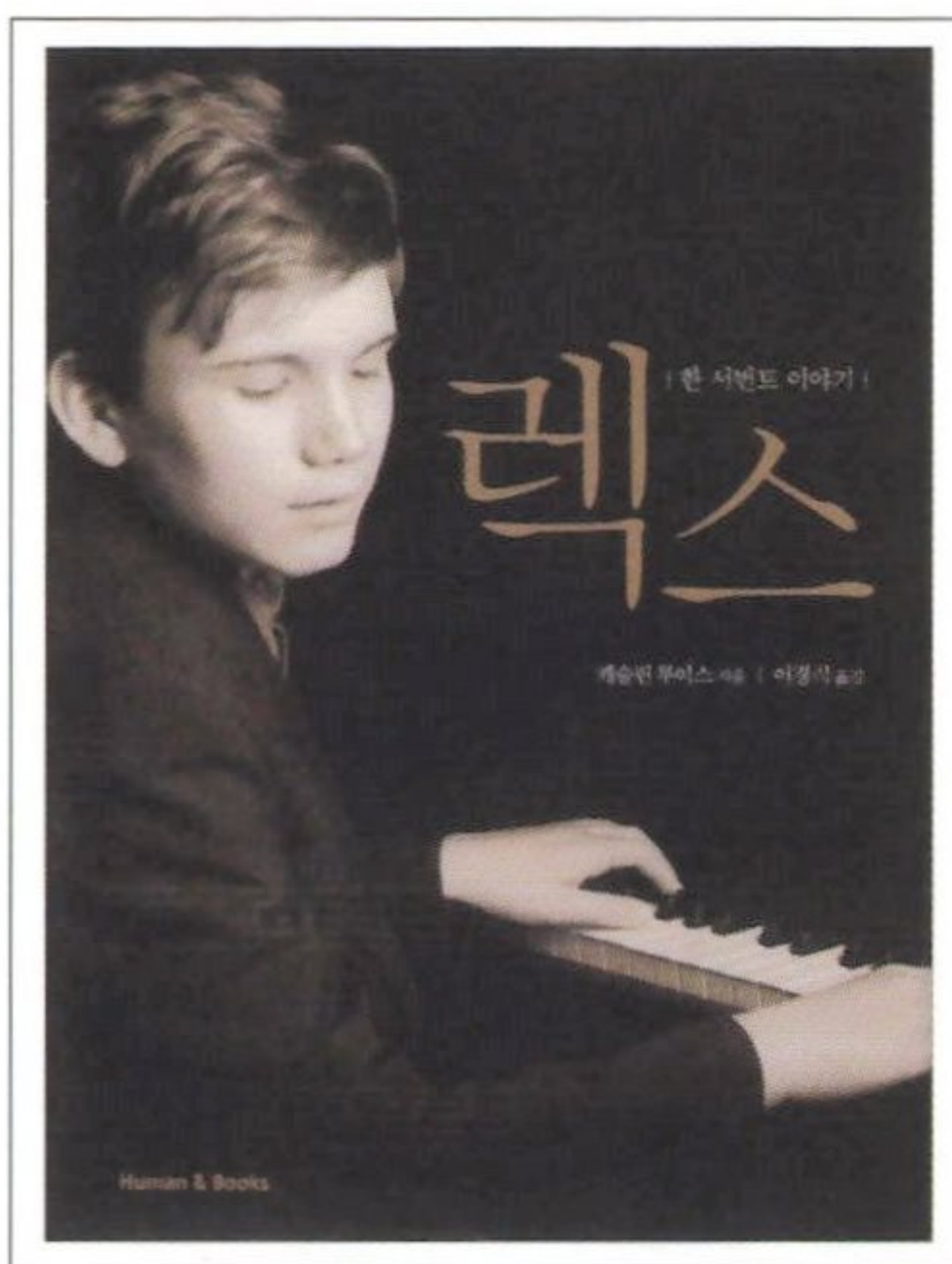
2009년 빈 필하모닉의 신년음악회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유대인 다니엘 바렌보임이 맡기로 결정되었다. 또 하나의 명연주가 탄생하길 기대해본다.



춤과 그들

• 유인화 지음 • 동아시아
• 375p • 16,000원

문화부 기자로 20여 년 동안 근무하며 영양실조에 걸린 우리 문화와 화려한 무대 뒤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예술인들이 늘 마음에 걸렸다는 유인화 씨. 저자는 저 세월 중 절반을 무용 담당 기자로 활동했으며, 이 땅의 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소명이라 여겨왔다. 춤 그림자로 머물지 모를 어르신들의 춤을 묻고, 그들의 춤 기억을 세상에 알리고픈 바람으로 쓴 이 책에는 기생, 광대, 무당 등 우리 춤의 명맥을 이어온 명무들의 진솔한 기록이 새겨졌다. 이 책에서는 한 시대를 춤으로 견뎌온 우리 시대의 진정한 춤꾼들의 태생적 비밀은 물론 춤에 집념에 대한 열정, 남북 이데올로기에 희생당했던 어린 과거, 부끄러운 과거사까지 이 책 속에서 자세히 만나 볼 수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17호 '봉산탈춤' 예능보유자로 북한 전통춤을 남한에서 집대성한 양소운, 신들린 '훈의 춤'을 추었던 산조춤의 명인 김진걸을 비롯 해방공간부터 현재까지 무용, 국악, 국극, 영화 등 공연예술계의 불분명했던 사실들과 비화들을 생생히 전해준다.



렉스 - 한 서번트 이야기

• 캐슬린 루이스 지음, 이경식 옮김 • Human&Books
• 386p • 13,000원

시각장애와 자폐증을 함께 가진 복합장애 아들을 세계적인 음악 석학으로 키워낸 어머니의 이야기가 지금 전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다. 어머니 캐슬린 루이스가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와 자폐를 가진 아들 렉스의 비범한 음악적인 재능을 발견하고 그 재능을 꽃피우도록 함께 노력한, 눈물겨운 헌신의 기록이다. 서번트 신드롬(savant syndrome)은 자폐증 같은 뇌기능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이와 대조되는 천재성을 동시에 갖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렉스가 바로 그런 아이였다. 어머니 캐슬린 루이스가 장애 아들이 음악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만 네 살이 되기 전이다. 어느 비 오는 날 자동차 지붕 위에 떨어지는 빗소리에 놀란 렉스가 비명을 지르며 울고 칭얼대기 시작했다. 렉스를 달래주기 위해서 어머니는 라디오를 켰다. 한 채널에서 우아한 음악이 흘러나왔을 때, 놀랍게도 렉스는 그 음악을 들으면서 조용해졌다. 그 음악은 모차르트. 장애 아들의 음악적 천재성을 알아본 어머니, 그리고 렉스가 어두운 절망 속에서 새로운 희망의 빛을 발견한 감동적인 이야기이다.



살아있는 문학여행 이야기

• 안영선 지음 • 마로니에북스
• 270p • 12,000원

7년간 국어를 가르쳐온 현직교사인 저자 안영선 씨는 15년 전부터 작가의 고향과 문학의 배경이 된 여행지를 현지 답사를 해왔다. 이 책은 윤선도의 보길도, 허균과 허난설헌의 강릉, 조지훈의 영양, 정철의 담양, 심훈의 당진, 서정주의 고창 등 교과서에서 나오는 굵직한 작가와 작품의 무대 21곳을 소개한다. 학생들에게는 그동안 교과서에서만 보왔던 문학 작품들을 여행을 통해서 더욱 흥미롭게 만나는 기회를 제공하는 반가운 책이 되겠다. 시조와 한시, 가사 문학으로 대표되는 고전 문학부터 현대 시와 소설, 수필로 대표되는 현대 문학까지 총 망라되었다. 작품의 배경의 풍경과 감상도 생생하게 전해준다. 또한 문학 이외의 이야기나 문학 답사를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길 등을 자세히 일러주고 있어서 이 책을 펼치는 순간 책에서 이야기하는 그곳으로 달려가고픈 마음이 든다. 대학 입시를 위해서 공부하느라 우리 아이들은 아름다운 우리 문학의 진정성과 향기를 제대로 느껴보지 못했을 터. 아이들과 함께 가족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겠다.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중국 초청 공연 - 중국 영주시 한·중 문화교류음악회 참가 부산시립합창단 독일,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등 5개 도시 순회연주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의 문화 사절단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무대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부산시립예술단이 2009년에도 활발하게 해외초청 무대를 갖는다.

1월에는 부산시립합창단과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독일과 중국에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들려주기 위해 연주길에 오른다.

2009년 첫 해외 연주길에 오르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1월 10일 중국 영주시에서 열리는 한·중 문화교류음악회에 참가하기 위해 공연길에 오른다. 지난해 전상철 수석지휘자를 새로이 영입,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사단법인 정주시

황하문화서화연구회와 하남성 영주시 공동초청으로 여주시문화극장과 낙양 용문석굴, 소림사 등에서 야외 공연을 가질 예정이다. 2004년 국제어린이합창경연대회에서 1등상과 특별상을 수상해 중국 현지 관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이번 중국 무대에서 어린이합창에 민요, 부채춤, 소고춤 등 우리 전통문화를 곁들여 부산의 다이나믹한 이미지를 보여줄 계획이다.

부산시립합창단은 1월 17일 10박 11일의 일정으로 독일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슈투트가르트, 뮌헨 등 4개 도시 순회 연주 길에 오른다. 독일의 주립오케스트라 Philharmonie der Nationen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이번 무대는 독일 4대 도시에서 Philharmonie der Nationen과 함께 2009년 신년음악회 순회연주를 가진 뒤 우리나라 설에 즈음해 함부르크에서 재독함부르크한인회와 터키교민회가 주최하는 2009 설맞이 민속한마당 축하공연을 가진다.

이번 독일 공연은 독일의 국민작곡가인 베토벤의 합창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최고의 곡인 '코랄 판타지 작품 80'과 베토벤의 마지막 교향곡인 'Symphony 제9번 작품 125'를 한국의 부산시립합창단이 독일어로 독일의 국립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를 한다는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이번에 부산시립합창단이 공연하는 베를린의 콘체르트하우스, 프랑크푸르트의 알테오퍼극장, 슈투트가르트의 리더할레극장, 뮌헨의 필하모니홀은 세계적인 지휘자들의 공연실황 음반에서도 익히 만날 수 있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독일의 정규 공연장이라 의의가 깊다.

부산시립합창단 공연일정

- 2009년 1월 19일(월) 20:00, 베를린, Konzerthaus
- 2009년 1월 20일(화) 20:00, 프랑크푸르트, Alte Oper
- 2009년 1월 21일(수) 20:00, 슈투트가르트, Liederhalle
- 2009년 1월 22일(목) 20:00, 뮌헨, Philharmonie
- 2009년 1월 24일(토) 18:00, 함부르크, Alterteich weg Aura

부산문화회관, 북구민을 위한 시립예술단 공연지원 협약체결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 개최-



2008년 10월 북구문화빙상센터에서 공연, 큰 박수를 받은 부산시립합창단.

부산문화회관이 북구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2월 23일 부산광역시 북구와의 공연지원 협약을 가졌다. 부산문화회관은 이번 협약으로 부산문화회관을 찾기 힘든 북구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2009년에는 정기공연을 북구지역에서도 개최, 7월 부산시립극단 공연과 11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공연 등 '북구민을 위한 문화공연' 이 두 차례 펼쳐진다. 부산문화회관은 이 공연 외에도 북구의 요청이 있으면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을 수시로 편성, 북구민들에게 다양한 작품을 선사할 계획이다.

부산문화회관은 2008년 덕천초등학교에서 가진 부산시립무용단 정기공연 쇼케이스 공연과 4월과 7월, 10월 북구문화빙상센터에서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을 개최, 북구 구민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다.

부산문화회관 2009년 공연입장권 판매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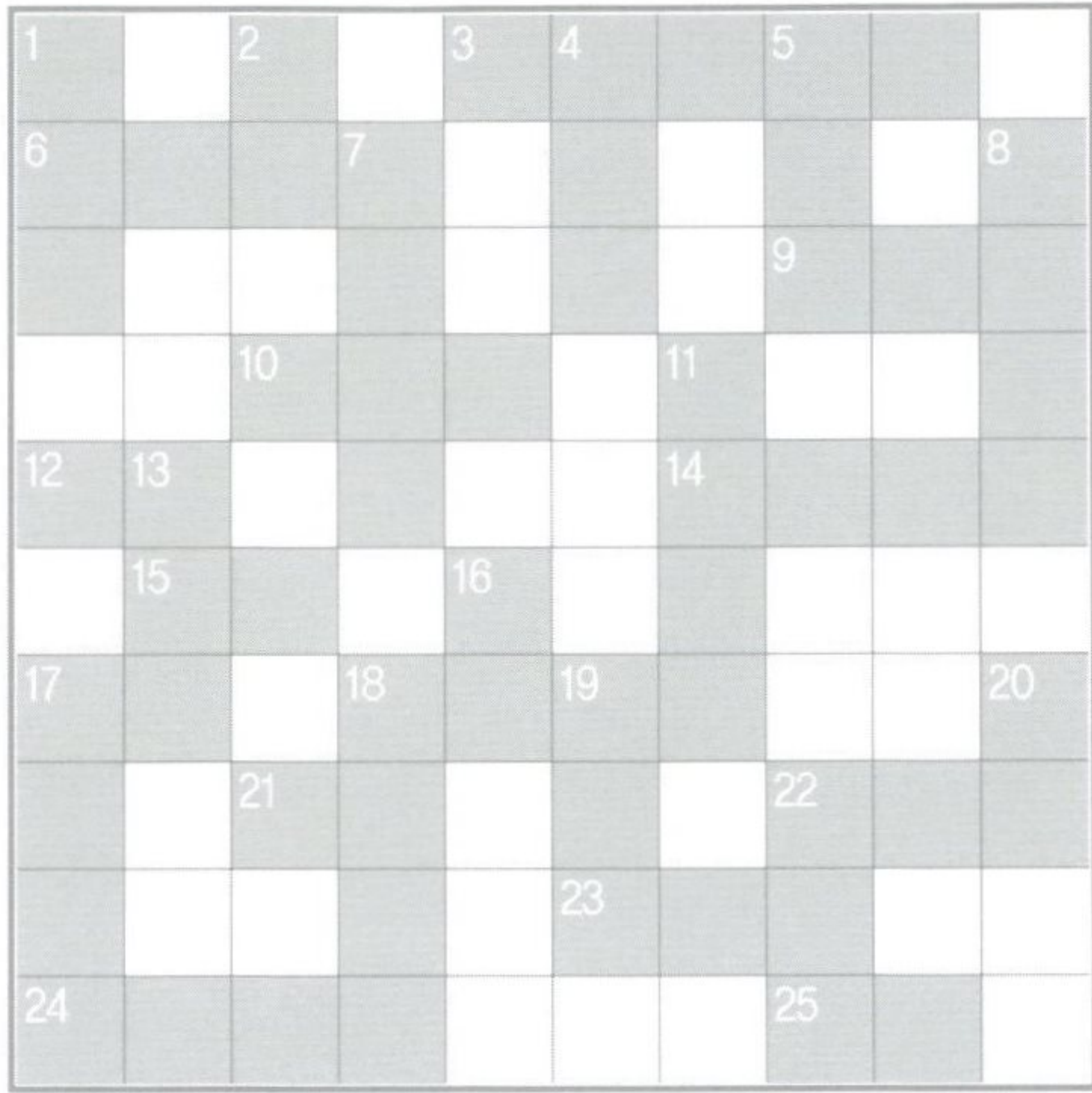
2009년 공연입장권 판매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인 부산문화회관(사진은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매표소)

부산문화회관이 2009년 공연입장권 판매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연장의 IT 문화확산 및 고객만족 서비스 제고 등 부산시민의 문화저변 확대와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밑거름을 마련한다.

그동안은 시립예술단 공연입장권 판매를 티켓링크, 부산은행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였으나, 2009년 85,000천원의 예산을 확보,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특히 온라인 예매시스템과 무인발권기 등을 도입하여 다양한 판매채널 확보 및 고객 DB 분석을 통한 마케팅전략 수립으로 관객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부산문화회관은 2009년 상반기에 시스템 본 가동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으며,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부산시립예술단 입장권 판매는 물론, 장기적으로 부산문화회관 대관 공연 입장권의 예매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가로

- 3. 신년음악회의 대표적인 레퍼토리인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 '라데츠키 행진곡' 등을 작곡한 오스트리아의 부자(父子) 작곡가.
- 6. 어떤 음을 들었을 때, 다른 음과 비교하지 아니하고도 그 음의 고유한 높낮이를 알아내는 능력.
- 9. 남녀의 사랑이야기를 중심으로 당시 사회적 특권계급의 횡포를 고발하고 주인공의 정절을 찬양한 조선시대 판소리계 소설.
- 10. 18세기 후반 빈고전파를 대표하는 오스트리아 작곡가. '교향곡의 아버지'.
- 12. 뉴욕의 예술학교 라 구아디나를 배경으로, 스타를 꿈꾸는 학생들의 열정과 사랑을 그린 뮤지컬. 팝가수 아

이린 카라의 노래로도 유명하다.

- 14. 음력 정월대보름날에 영남에서 행해져 온 민속놀이. 마을사람들이 농악대를 앞세우고 집집마다 돌며 땅을 다스리는 신령을 달래며 연중 무사를 빈다.
- 15. 북극지방에 분포하는 사슴과의 하나.
- 17. 민가와 궁중에서 음력 선달 그믐날 묵은해의 마귀와 사신을 쫓아내려고 베풀던 의식.
- 18. 전쟁피해 아동의 구호와 저개발국 아동의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설치된 국제연합 특별기구. 지난해 지휘자 정명훈씨가 국제친선대사로 임명되기도 했다.
- 21. 고대 인도에서부터 전해오는 심신단련법의 하나.
- 22. 단군이 고조선을 개국할 때의 도읍. 평양 부근의 백악산 또는 황해도 구월산이라고 한다.
- 23. '다시 돌아서 들어간다'는 뜻으로, 보통 빠르기의 6박 1장단으로 구성된 국악장단, 또는 그 장단에 맞춰 만든 악곡이나 춤.
- 24. '정도를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뜻으로 중용(中庸)이 중요함을 이르는 말.
- 25. 활로 줄을 문질러 연주하는 7현으로 된 우리나라 현악기.

세로

- 1. 동해안에서 맨 먼저 떠오르는 해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알려진 울산의 명소.
- 2. 노래나 연주솜씨가 매우 뛰어난 경지에 이룸.
- 4. 두개의 'U'자 모양관을 맞춰만든 금관악기. 관을 뽑거나 당기는 슬라이드 장치로 음의 높이를 변화시킨다.

- 5. '씨없는 수박'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농학자. 지난 1999년에는 그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동래구 온천2동에 기념관이 건립되기도 했다.
- 7. 자연의 풍경이나 예술작품 등에 자신의 감정이나 정서를 불어넣거나 대상으로부터 느낌을 직접 받아들여 대상과 자기가 서로 통한다고 느끼는 일.
- 8. 광채가 나는 자개 조각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박아 넣거나 붙인 칠기.
- 11. 수십 또는 수백미터 높이에서 뛰어내려 추락의 아찔한 긴박감을 즐기는 스포츠.
- 13. 우리나라 여자 핸드볼 선수들의 투혼과 열정을 보여준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을 감독한 영화감독.
- 16. 1976년 시판된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 고유모델.
- 17. 나비의 단순한 날개짓이 날씨를 변화시킨다는 이론.
- 18. 2008년 정부에서 발표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의 하나로 대중교통비 부담액의 일정부분을 세금액으로 환급하는 한시적인 제도.
- 19. 국보 제 180호. 조선시대 문인화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평가받는 조선 후기 서화가 김정희의 문인화.
- 20. 불교용어에서 유래된 말. 인도에서는 음악을 전문적으로 하는 악사나 배우를 지칭했으나, 지금은 돈이 없으면서 아무 일도 않고 빈둥빈둥 놀거나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을 가리킨다.
- 22. 오페라, 오라토리오 등에서 기악반주가 있는 서정적인 가락의 독창곡.

지난호 정답

조	수	미	신	이	습	우	화
공	사	의	찬	미			양
정	가		아	락			초
트	신	그		소			화
리	우	데	자	네	이	루	루
오	렐	스	시	나	브	로	
	마	라	도		드	르	
	드		인	터	폴	박	수
미	리	한	왕				물
드		부	산	문	화	회	관

퍼즐 당첨자 명단

■ 큰집

- 이인순(부산진구 연지동)
- 손은정(사상구 주례동)
- 김희선(부산진구 양정1동)
- 박정희(동래구 안락1동)
- 정상면(남구 용호동)

■ 가마골 소극장

- 김대현(영도구 청학2동)
- 김민주(수영구 망미동)
- 이진숙(사상구 학장동)
- 이신애(수영구 남천동)
- 김수기(부산진구 개금동)

■ 나랏소

- 이기순(서구 동대신동3가)
- 김현석(사상구 엄궁동)
- 성춘용(부산진구 양정4동)
- 김미진(남구 용호동)
- 오정원(해운대구 중동)

■ 동보서적

- 송경현(연제구 연산9동)
- 유미정(남구 대연4동)
- 김취곤(해운대구 반여1동)
- 신분주(사상구 학장동)
- 장영선(금정구 금사동)

그리움이 있는곳에 늘 고향이 있습니다

韓國傳統飲食店

큰 집

예약. 051-245-3320
업무. 051-255-4547

◆ 예약을 하시면 특별찬(샐러드, 죽)을 제공해 드립니다.
◆ 큰집은 광복로 국제시장에 있습니다.

날마다 연극축제가 열리는 곳
부산에는 가마골소극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연극의 신실

가마골소극장

(051) 245-0042 www.kamagol.co.kr

최고급 공연장을 자랑합니다

나랏소

한우 숯불구이 고풍 연문림

TEL.051-628-8814

대연동
시티원골프연습장 입구

부산문화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동보서적 1층 안내에서 각종 공연 티켓을 편리하게 예매할 수 있습니다.

동보서적

• 도서안내 : 803-8000 • 단체납품 : 804-6391
• www.dongbobooks.com

- 보내실 곳/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상품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 2009년 1월 15일까지 보내주시요.)
- 문의/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를 실연으로 관람하게 된다니 공연 시작 전 부터 가슴이 뛰었다. 막이 오르고 즐겨듣던 아리아와 합창이 흘러나오자 기쁨은 배가 되었다. 스토리로만 본다면 3류 소설에 불과하겠지만, 베르디는 아름다운 음악으로 불멸의 오페라를 탄생시킨 것 같다. '아 그이인가' '언제나 자유라네' '타오르는 마음' '프로벤자 내 고향으로' 등등 아름다운 곡들이 아직도 귓전에 맴도는 듯하다. 빛나는 목소리로 너무도 훌륭하게 알프레도를 소화한 테너 이은민 씨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브라보 베르디, 브라보 꼬레아 오페라단...

-김하진(영도구 대평동1가)

순천시립극단 '웃고랑 맥베스'

'웃고랑' 은 '웃자' 라는 의미가 있어 비극인 '맥베스' 를 재미있게 각색을 했을 거라는 기대감과 달리 거의 2시간동안 대체로 무겁고 엄숙하고 진중한 분위기로 극이 진행되었다. 배우들 연기력이 뛰어나고 소품, 의상, 음향도 멋지고 볼만했다. 원작의 비운의 '맥베스' 와는 달리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맥베스... 마녀들 대신에 무당들이 나와서 맥베스를 나락으로 빠지게 하는데, 엄마 무당의 염라대왕 같은 목소리, 구슬픈 노래가 기억에 생생히 남는다.

-정무중(부산진구 부암1동)

을숙도 겨울 세레나데

바람만 세찬 황량한 겨울 을숙도에서 감미로운 음악의 선율을 들을 수 있어 정말 행복한 밤이었다. 피아니스트 박종훈의 열정적인 무대, TV로만 봐왔던 테너 임웅균, 가수 유열의 감미로운 음성이 오랫동안 귓가에 맴돌았다. 이번 음악회가 겨울 세레나데였으니 봄, 여름, 가을 세레나데도 있으려나, 2009년이 기다려진다.

-신은아(사하구 신평2동)

부산시립교향악단 송년음악회

청소년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중학생 딸아이가 학기말시험이 끝나 부산시립교향악단 송년음악회를 보기위해 일찍감치 부산으로 향했다. 1시간 10여분 동안이나 연주한 합창교향곡은 베토벤의 운명과 비애를 충분히 느끼게 하면서도 고통을 극복한 승리자의 환희도 느낄 수 있었다. 4악장 환희를 외치는 합창의 스케일에 합창교향곡의 진수가 느껴졌다. 돌아오는 길에 딸아子和 난 베토벤의 일생에 대해 다시 이야기 하며 각자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최고가 되자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참 좋은 시험 뒷풀이였다.

-장미정(양산시 물금읍)

박성희 판소리 발표회

상, 하층 어느 것 하나 거침없이 뽑아내는 성음과 소리하나로도 그림 그려지는 듯 한데 거기에 더해지는 때론 화려하게 때론 절제된 듯한 너름새! 그리고 관객 한분 한분과 눈을 맞추며 대화하듯 치는 애드립의 흡입력은 완벽한 소리판을 이끌어냈다. 마음으로 하는 소리를 꿈꾸는 명창 박성희의 소리는 이날 한 공간에 있었던 모든 관객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다.

-김한주(해운대구 우동)



나랏소란?
그 옛날 나랏님께서 드시던 우리
나랏소 한우를 뜻합니다.

TEL. 051-628-8814
대연동 시티원골프연습장 입구

방 법 bsculture@naver.com으로 공연후기 '100자 토크' 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100자 토크' 는 예술에의 초대 지면을 통해 소개합니다.

'100자 토크' 공연후기를 보내주신 분 중 5명을 선정하여 나랏소 시식권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마 감 수시 모집
(원고를 보내실 때는 주소와 연락처를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7~8)



경주 양동마을로 떠난

겨울여행

매섭던 추위가 한풀 꺾였던 지난 12월 12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08년 마지막 테마여행을 떠나기 위해 정기회원 가족들이 이른 아침부터 부산문화회관 주차장에 모였다. 12월 테마여행지는 신라 천년의 고도(古都) 경주.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수많은 문화재와 유적이 살아 숨쉬는 역사적인 도시이다. 이번 여행길에는 부산시립무용단 수석단원 장래훈, 단원 서현미, 홍보담당 김태훈이 여행 길동무로 함께 자리했다.

한시간 반을 달려 제일 처음 도착한 곳은 국립경주박물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국립경주박물관은 신라시대 유물을 중심으로 선사시대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마침 오전 10시와 오후 2시, 하루 두차례 있는 관람객들을 위한 문화유산 해설 시간에 맞출 수 있어 자원봉사자들의 재미나는 해설과 함께 전시장을 둘러볼 수 있었다.

박물관을 뒤로 하고 두 번째로 찾은 곳은 석탑으로 유명한 분황사. 현재 남아있는 신라 석탑 가운데 가장 오래된 석탑인 분황사 석탑은 돌을 마치 벽돌처럼 깎아서 차곡차곡 재어 만든 모전 석탑으로, 현재 국보 30호로 지정되어 있다.

“분황사는 한때 원효대사가 주지스님으로 있으면서 귀족의 품 안에 있던 불교를 백성들을 위한 대중불교로 탈바꿈시킨 곳이기도 한데요, 이것을 기리기 위해 매년 음력 3월 그믐날 원효대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맛깔나는 해설로 석탑을 둘러본 정기회원 가족들은 약사불이 안치된 법당과 호국룡이 살았다고 전해지는 팔각정 우물 등을 돌아보며 천년 고찰에 서린 역사적 흥취를 느꼈다.

출출한 배를 달래며 자리를 옮긴 곳은 이번 테마여행의 종착

지인 양동마을. 경주 손 씨와 여강 이 씨, 두 가문에 의해 형성된 집성촌인 양동마을은 안동 하회마을과 더불어 조선시대 전통문화와 자연을 고스란히 간직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반촌(班村)이다. 500년이 넘는 조선시대 전통가옥구조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안동마을은 신라 천년의 고도 경주에서 조선시대를 느껴볼 수 있는 이채로운 장소이다.

본격적인 마을 탐방에 앞서 정기회원들은 마을 할머니가 직접 담은 된장으로 끓인 된장찌개와 양동마을의 토속음식 ‘즙장’으





※ 2009년 2월 추위로 지친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사천**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 엽서를 부산문화회관 홍보부로 보내주십시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감 2009년 1월 15일)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로 정성스럽게 차려진 점심으로 허기진 배를 채웠다. 독특한 맛의 '즙장'은 회원들이 직접 담가볼 예정이라 특히 회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점심식사 후 한결 느긋해진 마음으로 마을입구에 모인 회원가족들은 문화유산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본격적인 마을 탐방에 나섰다.

“양동마을은 안동 하회마을보다 규모면에서도 두배 반이나 큰 조선시대 최대의 마을입니다. 그 역사적 가치로 현재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마을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건물인 '향단'은 회재 이언적 선생이 경상도관찰사로 부임할 당시 병중이던 모친을 돌볼 수 있도록 증중임금이 하사한 집이다. 당시에는 99칸이었으나 지금은 허물어져 56칸만 남아있다. 조선 성종 때 우재 손중돈 선생이 분가해 살던 집인 '관가정'은 '곡식이 자라는 모습을 보듯 자손이 커가는 모습을 본다'는 뜻으로, 이곳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는 경관이 일품이다.

향단과 관가정을 차례로 둘러본 회원가족들은 좀 더 마을을 둘러보고 싶은 아쉬움을 뒤로 하고 '즙장만들기' '옛만들기' 체험에 나섰다. 메주가루에 조청과 무우, 연근, 다시마, 미역, 버섯 등 다양한 채소를 넣어 버무린 후 숙성시켜 먹는즙장은 여름철을 제외하고는 담귀서 5일 후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전통 장류 중 하나로, 소화는 물론 입맛을 돋우어 주는 별미장이다.

몇몇 회원의 부지런한 손놀림으로즙장만들기 체험을 마친 회원들은 곧바로 옛만들기 체험을 가졌다. 미리 만들어놓은 검은 색의 조청을 두 사람이 호흡을 맞춰 늘이기를 반복하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흰 엿이 된다. 눈앞에서 변해가는 엿가락의 색깔에 처음보는 회원들의 탄성이 절로 나온다.

즙장 만들라 옛만들라 한동안 웅크렸던 몸을, 장래훈, 서현미씨의 '우리춤 체조'로 충분히 푼 회원들은 짝아진 겨울 해를 뒤로 하고 부산으로 향했다.

- 협찬 : (주)레임투어핀

“1월 테마여행 당첨자”

신규회원

변현미(영도구 영선동)
이명숙(연제구 거제3동)
홍지아(연제구 거제1동)
정명옥(남구 대연6동)
성정우(연제구 연산5동)
이정윤(사하구 괴정2동)
임혜경(동래구 온천동)
성은우(부산진구 연지동)
정영임(금정구 서2동)
홍미정(남구 대연4동)

엽서당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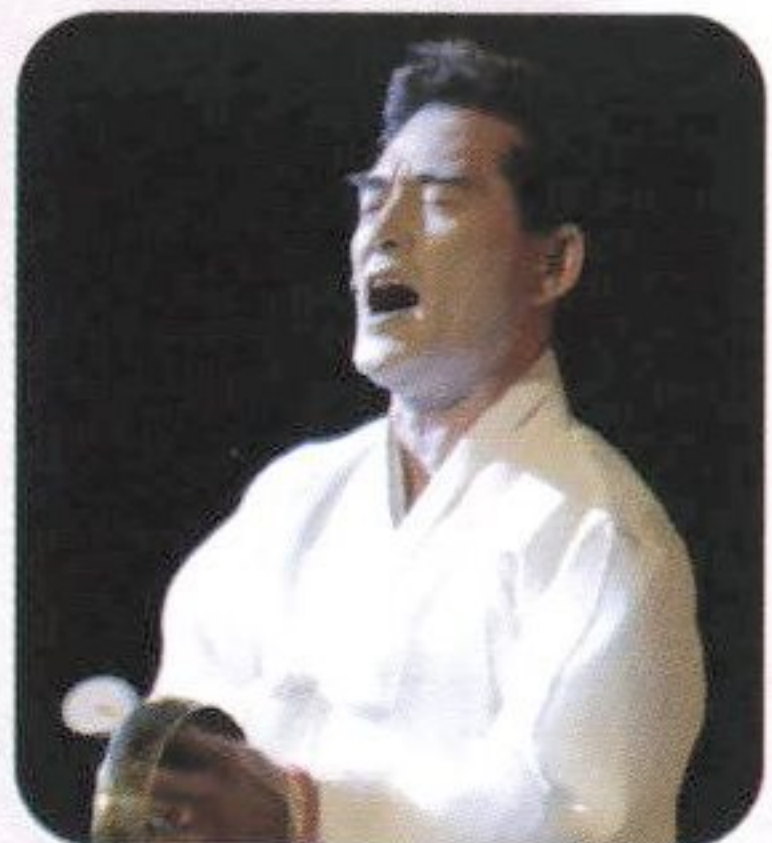
강정우(사하구 하단동)
고원준(동래구 사직2동)
박현주(해운대구 수영만 3길)
윤은혜(사하구 신평 2동)
윤정민(연제구 연산5동)
이동준(부산진구 당감동)
이준엽(남구 감만1동)
이효민(금정구 장전2동)
정규내(금정구 장전2동)
최영화(남구 용호동)

2009 신년음악회

“희망 2009, ㄱ GOOD!”



지휘 박호성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소원굿 Good 이광수
비나리 명인



산조굿 Good 박종선
아쟁산조 명인



소리굿 Good 이호연
경기민요 명창



사물굿 Good 이영광
민족음악원(뽕과리)



사물굿 Good 손경서
민족음악원(장구)



사물굿 Good 권지훈
민족음악원(징)



사물굿 Good 함주명
민족음악원(북)

2009. 1. 21(수) 19: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주 최 | 부산광역시 | 후 원 | Focus

| 문 의 | 부산문화회관 051)607-6041~8 <http://www.bsculture.busan.kr> 부산시립예술단홍보부 051)607-607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051)607-6110 <http://www.bsgugag.com>

| 예매처 | 부산은행 전지점 www.ticketlink.co.kr 콜센터(1588-7890)

| 입장권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2009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웰빙 콘서트 시리즈

2009. 2.12, 4.29, 6.9, 10.8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매회 오전 11:00 ▷ 총 4회

- 지휘 : 이동신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 해설/진행 : 장일범 (음악평론가, 방송 진행자)
김문경 (음악 칼럼니스트, 말러 스페셜리스트)
- 연주 : 부산시립교향악단



이동신



장일범



김문경

일자	해설/진행	공연내용
2.12(목)	장일범	오페라와 11시에 만나요 - 벨칸토 오페라 삼총사 : 로시니, 벨리니, 도니체티
4.29(수)	김문경	말러와 11시에 만나요 - 구스타프 말러의 삶과 음악 I : 방랑과 뿔피리
6.9(화)	장일범	오페라와 11시에 만나요 - 이탈리아 오페라의 거장, 푸치니의 여인들
10.8(목)	김문경	말러와 11시에 만나요 - 구스타프 말러의 삶과 음악 II : 사랑과 고별

- 문의 : 부산시립교향악단 (051)607-6101~4
- 입장권 : 균일 10,000원 / 시즌권 30,000원 (4회관람)

부산문화회관 기축년 신년맞이기념 정기회원 특별혜택

해외여행비 5%할인받자!!

* 하나투어예약센터 Hi!하나로 예약확정 하실 때 특별혜택을 드립니다.
* 전국 대표전화 1544-1759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부산문화회관 테마여행 협찬사 Hi!하나 www.hihana.co.kr NAVER 하이하나

高물가시대 연계여행

한번 여행으로 여러나라를 경험하는 기회



[夜沁滿滿] 백만불 야경
홍콩&상해 + 1일 자유여행
CCP757 899,000원~



일석삼조!!
대만/홍콩/마카오 3국 5일
ATP732 1,079,000원~



유네스코 지정
베트남(하롱베이)/앙코르왓 5일
AVP701 1,179,000원~

2009 설날 연휴여행

2009 기축년에 떠나는 설날 연휴 여행



동남아 휴양지
세부 비스타마 리조트 5일
APP754 79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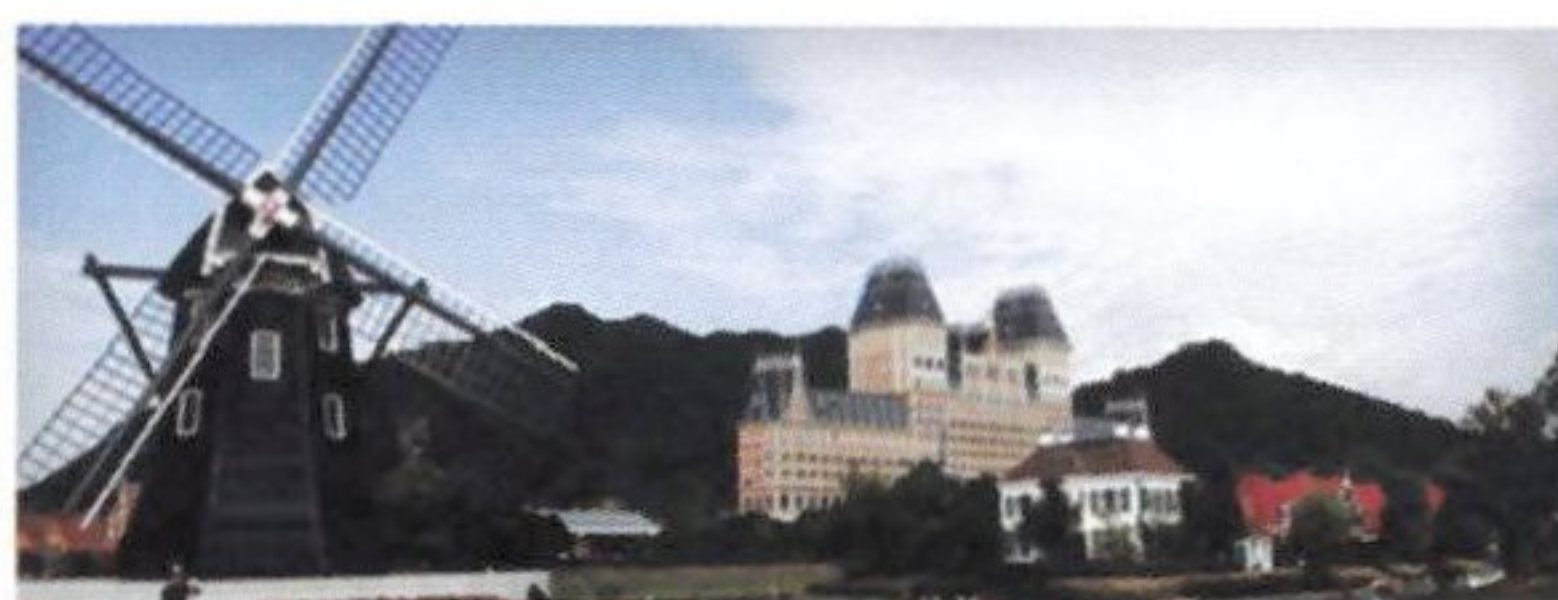
LOHAS + 名品 전통료칸
우레시노 온천/다카치호/북큐슈 4일
JKP741 99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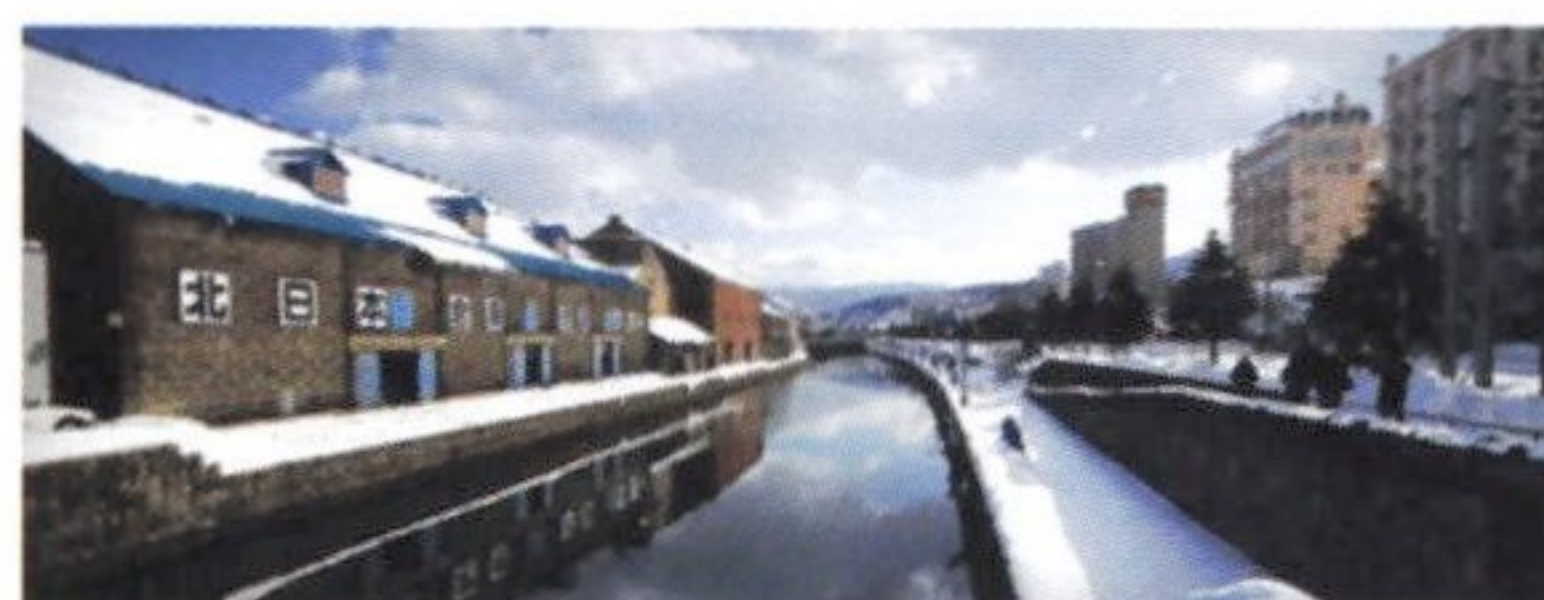
동양의 포인트
홍콩/싱가폴/바탐 6일
ACP702 1,399,000원~

화려한 빛의 축제여행

빛의 거리 + 화이트 일루미네이션 여행



빛의 거리
북큐슈 하우스텐보스 4일
JKP742 399,000원~



화이트 일루미네이션
홋카이도(北海道) 4일
JSP731 729,000원~



빛의 거리
북큐슈 하우스텐보스 3일 (항공)
JKP738 749,000원~

파라다이스 가족여행

달은듯 서로 다른 느낌의 괌/사이판



淸淨地帶 투몬만의 특급 호텔
괌 '특급-메리어트' 5일
PGP704 1,049,000원~



순수할 純
괌 PIC 슈퍼리얼 실버 5일
PGP710 1,199,000원~



<내사랑 못난이> 촬영장소
사이판 '초특급-HYATT' 5일
PAP701 1,349,000원~

토요상설무대

매주 토요일 오후 4:00

1월 10일 토요일 오후 4:00 소극장 부산시립교향악단 현악6중주 '펠리체 앙상블' 연주회



현악6중주 펠리체앙상블

■ 프로그램

장-바티스트 륄리/가보트와 론도
 요한 세바스찬 바흐/G 선상의 아리아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현악4중주 제 15번 작품 421 중 제 3악장
 슈트라우스 형제(요한 2세 & 요제프)/피치카토 폴카 작품 234
 에드바르트 그리그/노르웨이 무곡 제 2번 가장조 작품 35
 요하네스 브람스/헝가리 무곡 제 5번
 카를로스 가르델/간발의 채(영화 '여인의 향기' 중 '탱고')
 히사이시 조/'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중 '치히로의 왈츠'
 마이클 맥린/차르다시
 · 연주/이상진(Violin I), 우소라(Violin II), 홍영선(Viola), 김상철(Viola)
 서송은(Cello), 윤강희(Double Bass)

1월 17일 토요일 오후 4:00 소극장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회

■ 프로그램

수제천(집박/유경조 · 소금/조은경 · 대금/강영진, 이만형, 황두호 · 피리/
 김용우, 강영현, 권미정 · 해금/방병원, 윤해승, 김소현 · 아쟁/박
 일 · 장구/이장우 · 좌고/송강수)

거문고 독주 '달무리' (거문고/이대하 · 장구/송강수)
 가야금중주 민요메들리 '아리랑, 밀양아리랑' (18현/옥경화, 오은영 · 25현
 /이명일, 송영남 · 장구/이장우)
 흥겨운 민요 한마당(민요/박성희, 정선희 · 대금/황두호 · 피리/진형준 ·
 해금/방병원 · 아쟁/최영훈 · 가야금/정미자 · 거문고/
 오상훈 · 장구/신문범)
 사물놀이(팽과리/이주현 · 장구/전학수 · 징/최오성 · 북/신문범)
 · 예술감독/박호성 · 해설/백규진

1월 31일 토요일 오후 4:00 중극장 부산시립교향악단 겨울방학특집 '청소년을 위한 실내악앙상블'

■ 프로그램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현악4중주 제2번 라장조 작품155
 프란츠 요제프 하이든/현악4중주 제53번 라장조 '종달새' 작품 64-5
 영화 '올드 보이' 중 미도 테마 '마지막 왈츠'
 요한 파헬벨/캐논
 리처드 로저스/사운드 오브 뮤직 선곡
 조르주 비제/'카르멘' 중 '카르멘 환상곡'
 요제프 프란츠 바그너/쌍두 독수리의 깃발 아래(쌍두취 행진곡)
 하이메 텍시도르 달마우/암파리토 로카
 루 폴락/뎃츠 어 플렌티 등
 · 연주/현악4중주 G-스트링, 목관5중주, 금관5중주 '골든브라스'



현악4중주 G-스트링

2009년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 2009년 2월 13일(금) 사천 다솔사 및 비봉내 마을

추위로 지친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사천 대나무 마을 비봉내에서 즐기는 건강체험. 우리에게 편안한 휴식을 주는 대나무의 다양한 효능을 배워본다.

- ▷ 08:00 부산문화회관 출발
- ▷ 10:00 사천 비봉내마을 도착, 대나무 숲 산책 및 대잎차, 대나무비누 만들기 체험
- ▷ 12:00 중식
- ▷ 13:00 다솔사 탐방
- ▷ 14:00 비토섬 이동, 굴 구워먹기
- ▷ 16:0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 17:00 부산으로 출발



※ 체험비는 참가자 부담입니다.

▶ 2009년 3월 13일(금) 고대문화를 꽃피운 역사의 고장 고령

찬란한 가야문화의 숨결을 따라 떠나는 역사의 고장 고령 역사기행. 520년간 찬란했던 대가야국의 도읍지, 가야금을 창제한 악성 우륵 선생의 출생지로도 유명한 유서 깊은 고장 고령에서 이른 봄기운을 느껴본다.

- ▷ 08:00 부산문화회관 출발
- ▷ 10:30 대가야전문박물관 대가야박물관-지산동 고분군 답사
- ▷ 12:30 개실마을 도착, 중식
- ▷ 13:00 개실마을 탐방
- ▷ 14:00 개실마을 전통음식 및 농촌 체험
- ▷ 16:0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 17:00 부산으로 출발

■ 테마여행 응모방법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습니다.

〈예술에의 초대〉에 있는 응모엽서를 작성하여 1월 15일까지 보내주시시오.

※ 한달동안 신규가입한 회원 중에서도 10명을 추첨, 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주)레임 투어편(1544-2579)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가입안내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 가입하시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공연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VIP 회원 1년제 10회 관람 100,000원

일반회원 1년제 5회 관람 25,000원 10회 관람 45,000원

(청소년 푸른회원 20% 할인, 장애인·경로, 국가유공자 사랑회원 50% 할인)



■ 가입비 납입 은행계좌번호 : 부산은행 036-01-034846-1(예금주 : 부산문화회관)

■ 가입 및 공연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ulture.busan.kr)에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우 편 엽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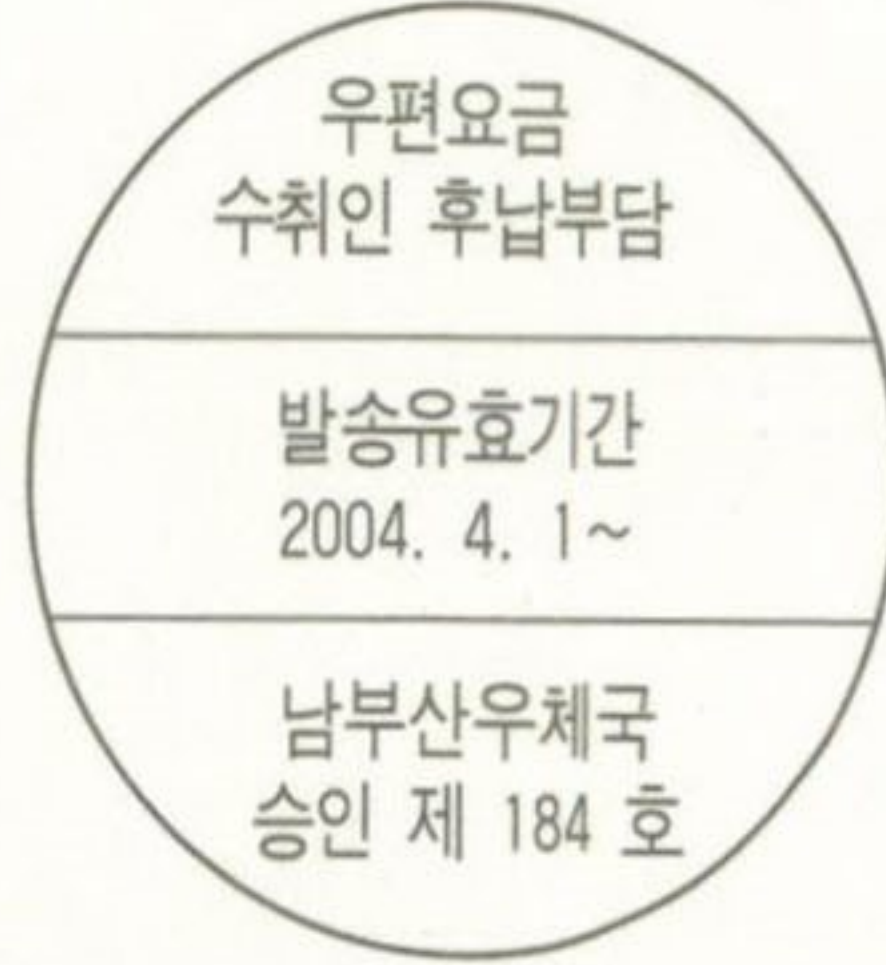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 □ - □ □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 □ - □ □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Since 1981 **philharmony**

식사 · Wine · Beer · 차를 함께 즐기는 편안한 문화 사랑방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 628-2592

70분간의 연애 2nd
-One Night Stand

10% 할인



▶ 날짜 : 2009. 1. 9(금)~2. 8(일)
▶ 시간 : 평 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30, 7:30
일요일 오후 3:00, 6:00
(월요일, 1/26일 공연없음,
1/25일 오후 6:00,
1/27일 오후 3:00, 6:00)

▶ 입장권 : 균일 25,000원

▶ 장소 : 가마골 소극장

▶ 문의 및 예매 : 051-245-0042

※ 쿠폰소지회원에게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세계문화체험 중심

**용두산공원 부산타워
통합입장권 특별할인**

(전망대+세계민속악기 박물관
: 대인 5,500원, 소인 4,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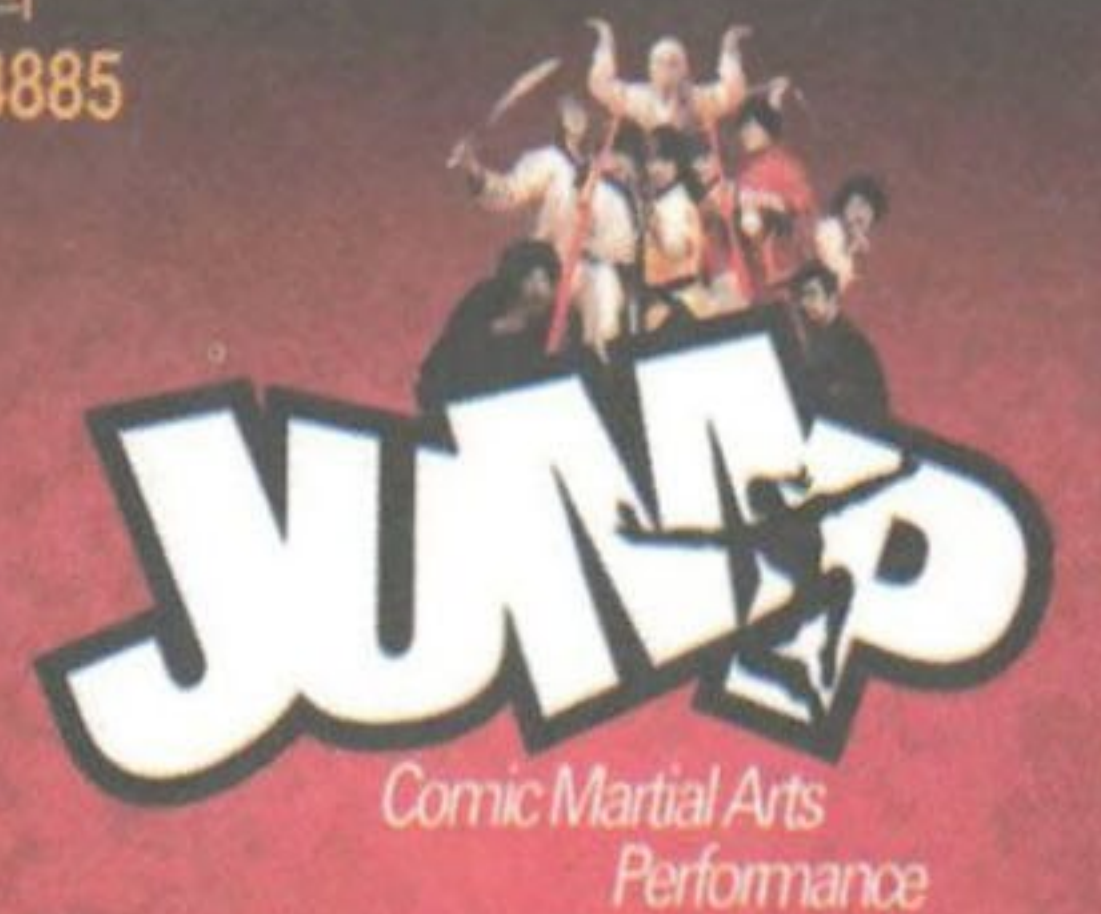
▶ 날짜 : 2009. 1. 1(목)~12. 31(목)

▶ 시간 : 오전 10시~오후 6시
(마지막 입장 오후 5시 30분)

혜택 쿠폰제시시 통합입장권에 한해 1매 2인 까지 20% 할인

부산타워 상담전화 ☎ 245-1066

예매 및 문의
051) 744-4885



점프 20% 할인

화-금요일 20시 / 토요일 16시, 20시 / 일 · 공휴일 15시, 18시

IBK (매인카드카드번호 81) 50,000원(R석) / 40,000원(S석)

* 쿠폰제시시 1매 4인까지 할인 가능 * 전화 및 현장 예매시 할인 가능 * 타 쿠폰, 할인카드 중복사용 불가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을 위한 특별한 혜택

"당신의 피부속을 진단해 드립니다"

맛사지 무료체험권

DR▲QU

* MBC / SBS / KBS 방송사에서 방영된 놀라운 피부혁명*
여드름 / 기미 / 아토피 / 잔주름 / 검버섯

닥터▲큐 남천점 Tel. 622-6901

지하철 남천역 4번출구 동해빌딩 4층 * 방문시간 사전 예약제 실시*

www.wendl-lung.co.kr

1910년부터 100여년간 제작된 최상의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
음악의본고장 오스트리아 벤들·룽 피아노

Wendl & Lung



!주! 벤들·룽 피아노 코리아

부산시 남구 대연4동 965-8. 문화회관 옆 TEL : 051-441-7474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OD Musical Company and CJ Entertainment Present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왕·의·귀·환
절대적인 뮤지컬의 신화가 돌아온다!

2009.3.6(금) ~ 8(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예매 및 문의 **1644-4484**

예·매·수·수·로·없·는
가·장·중·은·자·리

검색항에

AN티켓

을 쳐보세요!!

Conceived by for the stage by Steve Cuden & Frank Wildhorn | Book and Lyrics by Leslie Bricusse | Music by Frank Wildhorn | Orchestration by Kim Schambeg
Arrangement by Jason Howland | Directed by David Swan

마법과 같은 고음악의 신비가 다가온다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 바로크 콘서트

〈미스테리오소〉 *Mysterioso*

2007년, 우리는 그의 이야기에 눈물을 흘렸고

지난 해, 그는 고독한 겨울나그네를 노래하여 진한 여운을 남겼다

2009년 2월, 이제 그는 신비로운 바로크 음악의 전령사가 되어 우리를 찾아온다.

리처드 용재 오닐, 바로크의 전령사가 되다!

세계적인 고음악 단체, **알테 무지크 쾰른**과 함께하는
놓칠 수 없는 **감동**의 무대!

4집 솔로 음반 〈Mysterioso〉 발매를 기념하는 전국투어!
DG레이블 획득에 이어 세계최고권위의 클래식레이블 ARCHIV로 음반발매

2009.2.22(일) 오후 5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연 주 : 리처드 용재 오닐(Vla), 알테 무지크 쾰른



AMK2

입 장 료 : R석 50,000원 S석 30,000원 A석 2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공연문의 : 부산문화회관(607-5058),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